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논문

## 3.1운동의 성격과 의의 재고찰

민족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 지 훈

### 3.1 운동의 성격과 의의 재고찰

: 민족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

지도교수 최정운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지훈

김지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위 원 장                      박 종 희                      (인)

부 위 원 장                      안 두 환                      (인)

위 원 최 정 운 (인)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민족에 대한 담론(national discourse)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을 이뤄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 식민지하 최대의 항일 민족 항쟁으로 각인되어 있는 3.1운동을 그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사회 각계·각층이 두루 참가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으며, 이를 통해 조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그런 인식을 일깨웠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사람들이 3.1운동 현장에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알아보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을 이뤄냈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붕괴와 내부적 갈등이 내재해 있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명확한 대립 구도는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척왜양창의’를 내세웠던 동학 역시 ‘친일’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절(自切, autotomy)과 재생(再生)의 과정을 통해 변신(變身, metamorphosis)을 거듭하며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진회의 노골적인 친일 활동과 한일합방성명 발표는 친일을 하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식인층 및 사회 지도세력들은 자신의 조상과 문화를, 천도교는 자신의 전신(前身)인 동학을 회고(回顧)하며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적(敵)’에 대한 규정과 ‘아(我)’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며 지식인층에서 제시한 ‘아’는 바로 민족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인층에 의해 제시된 민족 개념은 정치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이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행동의 의미를 규정하는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존재했던 많은 담론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선언문과 신문을 통해 제시된 민족이란 개념은 민중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만세운동에 나서며 흰 옷 물결의 가시적인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와 행동에 노출되고, 만세운동 현장에서 자신과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주변 이들에게 가해지던 일제의 폭력을 목격하며 민족을 체험했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사람들은 민족 담론을 재생산하였고, 민족 담론은 하나의 일상적인 담론이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당시 상이한 정체성 논의와 담론이 존재했었지만 3.1운동이라는 사건을 통해 민족 담론이 대두되었고, 이는 일정 순간 패권(hegemony)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담론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배 구조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민족 담론은 3.1운동이라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인 순간이 지나자 패권적 지위에서 내려와 다시 여러 담론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도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우리의 혼성(hybrid)적인 면을 이해하는 데에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의미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요어:** 3.1운동, 민족, 민족주의, 담론, 패권, 동학과 천도교

**학 번:** 2010-23048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기존 연구 검토 .....	6
1) 민족주의 이론 .....	7
(1) 원초론(primordialism) .....	7
(2) 근대론(modernism) .....	8
(3) 종족적 상징론(ethnosymbolism) .....	10
2) 포스트 식민 접근법(post-colonial approach) .....	12
3) 3.1운동 연구 .....	16
3. 연구 방법 .....	22
1) 3.1운동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	23
2)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선(先) 고찰 .....	24
3) 민족 담론 연구 방법 .....	26
4. 연구 자료 .....	27
5. 논문의 구성 .....	29
II. 3.1운동의 시작 .....	32
1.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 .....	34
2. 1919년 3월 1일 .....	40
3. 일제의 대응 .....	44
4. 3월 1일 이후 .....	48
5. 운동의 확산: 각 지역 만세운동의 모습 .....	51
III. 3.1운동의 참가자: 민족 담론의 담지자들 .....	56
1. 33인의 민족대표 .....	56
2. 지식인층과 학생 .....	62

3. 재탄생하고 있던 민중 .....	67
----------------------	----

#### IV.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 71

1. 3.1운동 이전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 .....	73
2. 동학과 일진회의 합동(合同): 동학의 부정적 통합 .....	81
1) 동학의 역사적 행보 .....	81
2) 동학의 교정일치(敎政一致)와 일진회와의 합동 .....	84
3. 진보회와 일진회의 분리: 부정적 통합의 해체 .....	89
4. 천도교의 독립운동 추진 .....	93
1) 천도교의 교단 단속과 동학에 대한 회고(回顧) .....	93
2) 독립운동 분위기의 확산 .....	96
3) 천도교의 3.1운동 계획과 추진 .....	101
5.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	102

#### V. 대중의 3.1운동 참여 ..... 110

1.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불만의 증대 .....	110
1) 토지조사사업 .....	110
2) 납세 .....	114
3) 솟구치던 쌀값 .....	116
4) 경제적 수탈에 따른 만세운동 참여? .....	119
2. 의병전쟁에 대한 복수 .....	120
1) 의병전쟁과 ‘전시적(demonstrative) 폭력’ .....	120
2) 일제의 ‘전시적 폭력’이 남긴 기억 .....	123
3) 의병전쟁 복수를 위한 만세운동 참여? .....	125
3. 인간 존엄성의 회복 .....	126
1) 조선 사람들을 대하던 일제의 방식 .....	126
2) 만세운동에 대한 탄압 .....	129
3)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만세운동의 참여? .....	133
4. 수치심과 주위의 압력 .....	135
5. 소결 .....	138

VI. 3.1운동의 영향 .....	141
1. ‘민족’ 담론의 재생산 .....	141
2. 3.1운동이 일제에 미친 영향 .....	150
3. 3.1운동이 남긴 기억 .....	158
VII. 결론 .....	162
참고문헌 .....	166

## 표 목차

<표 V-1> 1914년과 1919년 조선 농촌에서의 토지소유 .....	111
--	-----



# I. 서론

## 1. 문제 제기

2002년 6월 수십만의 한국인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들었고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동일한 시각 한국의 각 지방에서도, 나아가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세계 곳곳에서 같은 구호가 외쳐졌다. 2002년 월드컵의 응원 모습은 2006년, 2010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고 201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 2008년 수십만의 한국인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사거리 안으로 모여들었다. 그 해 여름 내내 한국은 ‘촛불집회’를 경험했고 그 이후 일어나는 대규모 집회에서 ‘촛불’은 꾸준하게 그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우리는 흔히 ‘민족성’을 거론하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 혹은 응집력을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얘기한다. “(2002년) 월드컵이 560만 재외동포들에게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차이를 넘어 서로를 연결했다는 것이다”<sup>1)</sup>라는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월드컵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족’ 혹은 ‘민족성’의 의미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과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와 ‘원자화된 한국인’이라는 평가<sup>2)</sup>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 한국 사회가 분절화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 민족’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

---

1) 『코리아타임즈』, 2002년 6월 27일. 재인용: 신기욱, 이진욱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2009), p. 16.

2) Gregory Henderson, 박행웅·이종삼 옮김,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작되었다.

1989년 워커 코너(Walker Connor)의 ‘민족은 언제부터인가?(When is a Nation)?’란 글이 발표되고 난 이후 민족주의 이론의 관심은 그의 화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더욱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족(nation)’의 형성 시점을 규명하는 데에 대한 코너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가 보기에 현대 민족들의 시작 지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체성(Identity)은 어떠한 (역사적 혹은 연대기적) 사실(facts)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느껴지고 체험하는) 인지(perceptions)에 기반”하기 때문이다.<sup>3)</sup> Umut Özkırımlı는 세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코너의 입장에 동조한다. 첫째, 민족의 형성은 특정한 사건이 아닌 역사적 과정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민족의 출발점에 대한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둘째, 민족의 출발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민족(nation)’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민족의 출발점을 규명하는 것이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합의를 더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sup>4)</sup>

이에 본 논문은 민족의 기원(origin)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민족을 둘러싼 담론(discourse)의 형성과 이후 재생산 과정에 있다. 즉, 민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을 이뤄왔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 의식의 “출현과 지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는 지적<sup>5)</sup>과는 달리 한

---

3) Walker Connor, “When is a Nation?,” in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154-160.

4) Umut Özkırımlı,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0), p. 199.

5) 신기욱, 2009, p. 18.

국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민족’, ‘민족성’,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추상성과 복잡함으로 인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답을 찾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즉, 다음 절에서 더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기존 민족주의 연구와 이에 영향을 받은 3.1운동 연구는 ‘민족’을 거론할 수 있는 시점과 지역 간 특성에 치중하여 민족 그 자체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검토의 시발점을 1919년 3.1운동으로 삼으려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3.1운동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출발점과 같이 인식되어 왔다. 또한 3.1운동은 일제하 최대의 항일 민족 항쟁이었으며, 기독교·천도교·불교 등 종교인이 단합하였고, 학생·상인·농민 등 사회 각 계·각층이 두루 참가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3.1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모든 차이들을 초월하여 ‘민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3.1운동에 대한 서술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과 탄압 속에서 억눌리며 저항의 불씨를 키워오던 조선 민중이 일손의 민족자결주의, 고종의 독살설, 서울의 만세시위 운동에 의해 ‘폭발하였다’가 주를 이룬다.<sup>6)</sup> 여기에 1910년대까지 각기 다른 계층이 주도한 여러 계열의 민족운동이 3.1운동을 통해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주장<sup>7)</sup>이 더해져 3.1운동은 이제 남녀노소·신분·계급·지역·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

6) 참고로 김지수, “현상윤의 민족의식 형성과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70 (2012), pp. 111~148.

7) 최영희, “3.1운동에 이르는 민족운동의 원류,”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논총』 (서울: 동아일보사, 1969); 윤병석,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 試論,” 『사학연구』, Vol. 27 (1973), pp. 69~83; 윤경로, “1910년대 독립운동의 동향과 그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994).

가한 운동이었다고 규정된다.

이와 같은 서술을 기반으로 3.1운동은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이에 그들은 투쟁의 주체이자 독립의 주체가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다시 말해, 3.1운동이 한국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알린 계기이자 독립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sup>8)</sup>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차기벽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적 차원에서의 ‘우리’ 의식이 1차적 완성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박승길은 3.1운동을 통해 “자주적으로 어떤 일이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말없는 다수 민중들이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동일성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민족의식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희곤 역시 같은 주장을 공유한다. 3.1운동으로 인해 저항의 주체로서 한국의 민중이 태어나 성장했으며 국내외 동포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구성원 모두가 참가한 저항은 곧 민중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이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영훈은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은 계층별 또는 종교별로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여 민족을 역사의 단위 혹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했다고 평가하며 3.1운동의 전 민족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sup>9)</sup>

정리하자면, 3.1운동은 일제에 의해 억눌려 있던 민중을 ‘폭발’하도록 했고, 계층 간 그리고 운동노선 간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한 운동이었고, 이에 조선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민족적

---

8) 대표적으로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9); 윤진현, 『한국독립운동사』 (파주: 이담Books: 한국학술정보, 2010) 등이 있다.

9)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p. 102; 김희곤,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 16~18; 정영훈, “삼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Vol. 11, No. 2 (2012), pp. 63~90.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관된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반일적 혹은 민족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3.1운동 이전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20여 년간은 왜 이러한 정체성 확인이 이뤄질 수 없었는지에 대해 단순히 ‘일제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라고 규정한다면 3.1운동은 모든 것을 일순간에 이루게 한 하나의 ‘신화’로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3.1운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확고한 반면 무엇이, 어떻게 그런 인식을 일깨웠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3.1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언제 어떠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만세운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밝혀지고 논의되고 있는 반면 그들이 만세운동을 통해 ‘무엇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혹, 이것이 얘기된다 하더라도 ‘자주독립’, ‘자치’, ‘정의인도’, ‘자유평등’ 등 추상적인 언어의 사용에 그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사람들의 ‘폭발적’ 3.1운동 참여 이후의 일들에 대해, 또한 그와 같은 참여를 통해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우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 이는 3.1운동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그것이 일어난 원인을 탐색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민족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이 민족 담론(national discourse)이 3.1운동을 통해 패권(hegemony)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

---

10) “민중의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의 발현이었으며, 인류의 양심에 기초한 비폭력적 저항운동이었다”는 식의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희, “3.1 독립운동 이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법적용과 식민지법제의 변화,” 『법학논총』, Vol. 35, No. 1 (2011), pp. 31~71.

해, 첫째, 3.1운동이라는 사건을 재해석할 것이다. 이는 곧 사람들이 3.1운동 현장에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체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만세운동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만세운동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둘째,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을 이뤄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 2. 기존 연구 검토

이전 절에서 밝혔다시피 본 논문은 3.1운동을 통해 확인한 ‘우리 민족’에 대해 다룬다. 따라서 ‘민족(nation)’이란 무엇이며, 그동안 어떠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간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민족주의(nationalism)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우선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는 기본적으로 안소니 스미스(Anthony Smith)가 제시한 세 종류의 분할법(tripartite division)에 따라 진행했다.<sup>11)</sup>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 연구 흐름 속에서 한국 민족주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어서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전한 포스트 식민 접근법(post-colonial approach)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1운

---

11) Anthony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물론 이와 같은 분류법이 널리 사용된다고 하여, 이것이 완벽한 분류 체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민족주의 이론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억지스러운 분류로 인해 각 이론의 주장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Özkırımlı, 2010, pp. 199~204 참고.

동 연구들에 대한 정리로 이 절을 마치려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비판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 1) 민족주의 이론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의 기원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크게 원초론(primordialism), 근대론(modernism), 종족적 상징론(ethnosymbolism)으로 분류된다.

### (1) 원초론(primordialism)

원초론은 민족성(nationality)이 인간의 ‘자연적인’ 한 부분이며, 민족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즉, 종족적(ethnic) 혹은 문화적 정체성을 본래부터 주어진 것(given)이라고 본다. 한 예로, 도널드 호로비츠(Donald Horowitz)는 민족이 공통의 조상을 숭배해 왔고 서로 간 종족적 유사함을 지니고 있음을 지목했다.<sup>12)</sup>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종족적으로 거의 또는 전적으로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된 예외적인 국가”<sup>13)</sup>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상당 기간 한국 민족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손진태는 “유사 이래 우리는 같은 역사적 삶을 지니고, 단일한 지역에 살며... 같은 운명을 지닌 단일한 인종이다”라

---

12) Donald L. Horowitz, “The Primordialist,” in Daniele Conversi (eds.), *Ethnonational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Walker Connor and the Study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p. 72-82.

13)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60.

고 했으며 백남운은 “조선민족은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적 운명 등의 공통성을 공유한 단일민족으로서 수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sup>14)</sup>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은 민족의 출현은 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2) 근대론(modernism)

근대론에 속한 이론가들은 민족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근대적인 것이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이에 근대론은 민족을 지나치게 근대적인 현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전에 존재했던 종족 공동체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문화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하지만 근대적인 현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는 이론가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전에 존재했던 문화 단위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 공동체는 기존의 종교나 왕조 공동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즉, 앤더슨은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던 종교적 힘이 쇠퇴하며 생긴 ‘비어있는’ 공간을 신문과 소설 같은 문화적 형식을 기반으로 한 민족이라는 근대적 상상물이 채운다는 논리를 폈다. 앤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들의 구성원들조차 그들의 동료 대부분을 알지도, 만나지도, 심지어 그들에 대해서 들어 본적도 없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마음 속에 그들 공동체의 이미지가 살아 있는” 형태이다. 이와 더불어 앤더슨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타 지역에 보급되고 전파 가능한 ‘모듈적(modular)’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민족’은 특허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발명품임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손들에 의해 표절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sup>15)</sup>

---

14) 신기욱, 2009, p. 21.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근대론적 입장에서 헨리 엠(Henry Em)은 20세기 초 조선이 근대 세계체제에 노출되고 난 뒤에야 민족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그 이후 한민족이란 의식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에서 국가를 유지해 왔지만 엠은 이는 근대 민족국가가 아닌 왕조체제 국가라고 밝혔다.<sup>16)</sup>

하지만 스미스는 근대론은 여전히 민족 이전에 존재하던 공동체와 민족의 지속적인 연계를 보여주지 못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문화를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다.<sup>17)</sup> 또한 조티 퓨리(Jyoti Puri)는 근대론은 민족을 구성함에 있어 일반 대중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sup>18)</sup> 퓨리의 지적과 연관된 근대론의 결정적인 설명적 한계는 바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그들의 삶까지 희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sup>19)</sup> 이에 대해 브랜든 오리어리(Brenden O'Leary)는 대중은 단순히 엘리트와 지도 세력으로부터 강요된 것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님을 지적했다.<sup>20)</sup> 또 한 스미스는 앤더슨의 주장은 '상상하기'를 통해 민족이라는 관념이 얼마나 쉽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왜 그와 같은 확산이 일어나는지, 왜 민족이란 관념의 확산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들은 민족

---

1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16) Henry Em, "Minjok as a Modern and Democratic Construct: Sin Ch'eaho's Historiography of Korea," in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p. 336-61.

17) Anthony D. Smith,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1995), p. 42.

18) Jyoti Puri, *Encountering Nationalism* (Malden and Oxford: Blackwell, 2004), p. 53.

19) Smith, 1995, p. 40.

20) Brenden O'Leary, "Instrumentalist Theories of Nationalism," in Athena S. Leoussi (eds.), *Encyclopedia of Nationalism*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1), pp. 148-53.

에 대한 어떠한 종속된 감정을 느끼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sup>21)</sup>

### (3) 종족적 상징론(ethnosymbolism)

종족적 상징론은 상술한 근대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형성된 논의이다. 이 논의는 신화(myths), 상징(symbols), 기억(memories), 가치(values), 그리고 전통(traditions)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족성과 민족주의의 지속성(persistence)과 변화를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근대론에서 경시했던 주관적인(subjective) 요소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sup>22)</sup>

대표적으로 존 허친슨(John Hutchinson)은 민족은 민족 형성 이전 모습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23)</sup> 이에 스미스는 과거 종족적 공동체와 민족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스미스는 전쟁과 정복, 추방과 노예화 등의 사건들이 정체성의 큰 변화를 가져 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족과 그 이전 정체성간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또한 스미스는 민족을 단순히 단일하고 동질적인 하나(unitary and homogeneous whole)로 보아서는 안 되며, 민족 내부에는 항상 갈등과 세부 그룹들 간 정당성 다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민족 내부에서 근대화를 둘러싼 전통주의자와 근대주의자 사이의 긴장 상태가 상존한다는 것이다.<sup>24)</sup> 허친슨 역시 민족 형성 과정에서

---

21) Smith, 1998, p. 137.

22) Anthony D. Smith, "Ethno-Symbolism," in Leossi, 2001, pp. 84~87.

23) John Hutchinson, *Modern Nationalism* (London: Fontana, 1994), p. 7.

24)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16;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1), p. 26.

복수의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 간 분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족 형성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역설했다.<sup>25)</sup>

한국 민족주의에서도 근대 민족 이전 한국인들이 유지해 오던 집단 정체성을 “전근대 민족”, “원민족”, “종족” 이라고 칭하며,<sup>26)</sup> 이와 같은 종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 민족국가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민족 내 복수의 정체성 개념과 관련해서 존 덩컨(John Duncan)은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도 여러 층의 정체성이 존재했으며,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 어떤 시기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환경에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sup>27)</sup>

하지만 원초론과 근대론 사이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종족적 상징론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 논의는 과거와 근대라는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요소들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모순된 상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민족의 발전 혹은 근대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족주의가 역설적으로 민족 애착 혹은 관습과 전통이라는 ‘전근대적인’ 장치들을 도구로 삼으면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두고 네언(Nairn)은 민족주의는 “사회로 하여금 스스로 특정한 종류의 퇴행에 의해 - 내향적이 되는 것, 그들 고유의 자원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것, 과거의 민속 영웅들 및 그들 자신에 관한 신화를 부활시키는 것 등등에 의해 - 특정한 종류의 목표(산업화, 번영, 다른 민족들과의 평등 등등)를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고 묘사했다. 결국, “민족주의는... 근대로의 이행을 감독한다. 곧게 뻗어 있는

---

25) John Hutchinson, *Nations as Zones of Conflict* (London: Sage, 2005), p. 4, 193.

26) 각각 노태돈,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시민강좌』, Vol. 20, (1997), pp. 158~81; John Duncan, “Proto-nationalism in Pre-modern Korea,” in Sang-Oak Lee and Duck-Soo Park (eds.), *Perspectives on Korea*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pp. 198~221; 조민, 『한국민족주의 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27) Duncan, 1998, p. 220.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 인류는 발전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도움을 얻으려는 희망으로 필사적으로 과거를 돌이켜 보기 마련이다.”<sup>28)</sup>

## 2) 포스트 식민 접근법(post-colonial approach)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의 경험 이후 민족주의 연구는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했고, 이에 포스트 식민 접근법이 등장했다. 이 접근법은 식민지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는 실제로 피지배자들에게 이로운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앤더슨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깊고 수평적인 동지의식”이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sup>29)</sup> 하지만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 사람들은 식민지화 이전 이러한 동격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앤더슨의 주장에 따라 식민지 국가에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자리하고 있던 이러한 차이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무시되어야만 했다. 이처럼 민족주의 이론과 식민지 현실 간의 괴리는 몇몇 학자들로 하여금 “민족이라는 ‘신화’는 과연 민족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인가?”<sup>30)</sup>라는 질문을 제기하도록 했다.

파르타 채터지(Partha Chatterjee)는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주의가 자칫 자기모순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족주의는 그것을 주장하는 민족이 자신은 열등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스스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자

---

28) Tom Nairn,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London: NLB and Verso, 1977), pp. 348~349.

29) Anderson, 1991.

30) John McLeod, 박종성 외 옮김, 『탈식민주의 길잡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108.

신은 식민지 지배 이전 열등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식민주의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권리 주장에 도전했을 때조차도 식민 지배의 근거가 되었던 ‘모더니티’의 바로 그 지적 약속들을 승인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즉, 독립을 위해 내세웠던 주장이 도리어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31)</sup> 또한 엘리트 주도 반식민(anti-colonial) 민족주의의 모순은 실제로 민족이 독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독립이 대중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란 의문을 남긴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주장처럼 대중에게 독립은 자신의 지배계급을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변경하는 수준에 머무는가란 비판이 제기된다. 즉, 대다수의 피지배자들은 독립을 이뤄낸 이후에도 “총체적 해방”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sup>32)</sup>

이와 더불어 반식민 민족주의는 그들의 모든 관심을 식민지 지배자에게 향하도록 하여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의” 등 내부의 분열과 “민족주의 엘리트가 신흥 독립 국가를 장악하는 문제 등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하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엄격한 이원론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알버트 멤미(Albert Memmi)였다. 멤미는 “식민 조건은 식민 지배자와 식민지인을 불가피한 상호의존 관계로 엮으며, 각각의 성격을 주형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정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호의존관계는 대립주의적(oppositional)인 식민주의 담론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형태의 욕망의 표상(representation)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배자가 식민지에 대해 품는 욕망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피지배자의 욕

---

31) Partha Chatterjee,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A Derivative Discour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 30.

32) Frantz Fanon,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2004).

33)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Random House, 1993), p. 262.

망은 멤미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가 느낀 혼란은 “식민지인은 그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식민 지배자들을 증오하면서 또한 그들에 대해 그토록 열렬하게 찬탄할 수 있었을까?”였다.<sup>34)</sup> 이러한 피지배자의 욕망은 극단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단절을 감행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멤미의 지적은 ‘영국성’에 대해 애증의 관계를 갖게 되는 인도의 모습을 묘사한 아쉬스 난디(Ashis Nandy)의 저작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난디는 “식민주의자도 식민주의의 기제에 갇힌 공동의 희생자”라고 밝히며 식민지 지배자 역시 식민주의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sup>35)</sup>

호미 바바(Homi Bhabha) 역시 식민지 지배자는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피지배자는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민 당시의 현실과 실제 정체성에 대한 불성실한 정의이며 개념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바는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각자의 목적에 의해 대립주의적인 이분법을 차용한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지배자가 그와 같은 경직된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허위 이미지의 구축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투사와 동화, 은유적이며 환유적인 전략들, 정치, 죄의식, 공격성이라는, 훨씬 양가적인 텍스트다... 유령 같은 지식의 가면쓰기<sup>36)</sup>와 분열시키기”를 내포한다.<sup>37)</sup> 피지배자 역시 자신의 반식민 민족운동을 펼쳐나갈 때 그와 같

---

34) Albert Memmi, *Dominated Man: Notes Toward a Portrait* (London: Orion Press, 1968), p. 45.

35) Ashis Nandy, *The Intimate Enemy: Loss and Recovery of Self Under Colon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36) 식민지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이 언제 자신을 전복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정형화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더 강한 상대처럼 보이도록 하는 ‘가면 쓰기’를 반복한다. Homi K. Bhabha,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 2012), p. 17.

37) Homi K. Bhabha,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은 대립주의적인 이분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리처드 폭스(Richard Fox)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저항 역시 피지배 세력은 “본래 정신적이고 합의에 기초하며 공동체적”이라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sup>38)</sup>

그러나 바바는 실제로는 민족이 이질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된 서사가 형성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는 반식민 민족운동이 이뤄지면서 변화무쌍한 정치적 실체가 출현함을 지적했다. 또한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엄격한 양극성들의 소통과 마주침으로 인해 ‘제3의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공간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바로 ‘혼성(hybrid)의 자리’라고 정의했다.<sup>39)</sup> 마리 프랫(Mary Pratt)은 이를 발전시켜,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언어를 차용하고 변형시키면서 역으로 식민지 지배자의 이해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sup>40)</sup>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 요소들이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식민 ‘이론’들의 정리를 시도한 릴라 간디(Leela Gandhi)는 민족주의는 “다양한 탈식민 투쟁들에게 혁명의 어휘를 제공했으며, 오랫동안 다양한 반식민 운동들이 응집력 있는 모습과 틀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 벡터로서 인정되어 왔다. 달리 말한다면, 민족주의는 공동의 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잡다한 민중 운동들의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들을 유도하고 통합한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sup>41)</sup> 파농

---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in Francis Baker, Peter Hulme, and Margaret Iversen (eds.),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London: Methuen, 1986), pp. 148~173.

38) Richard G. Fox, “East of Said,” in Michael Sprinker (eds.), *Edward Said: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1992), pp. 144~156.

39) Homi K. Bhabha, 2012.

40) Mary L. Pratt, “Transculturation and autoethnography: Peru 1615-1980,” in Francis Barker, Peter Hulme, and Margeret Iverson (eds.), *Colonial Discourse/Postcolonial The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pp. 24~47.

역시 민족주의는 농민, 노동자, 자본가, 지주, 지식인 간의 수직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여 식민 지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주의는 식민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가한 심리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치료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주의를 통해 “실제로 나의 삶이 정착자의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움츠러들거나 얼어붙게 하지 않으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돌처럼 굳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2)</sup>

그러나 간디(Leela Gandhi)는 식민주의가 지배와 저항의 이야기로 서술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몇몇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듯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실패를 거듭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며 뒤얽혀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sup>43)</sup>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의식의 섬광에 눈이 먼 역사가는, 예를 들어, 반란 행위 속에서는 연대 이외의 어떤 것도 보지 못하며, 그것의 타자, 즉 배반을 주목하지 못한다.”<sup>44)</sup>

### 3) 3.1운동 연구

상술한 민족주의와 포스트 식민 연구는 3.1운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 민족주의 연구는 3.1운동의 대중적 참여 원인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3.1운동의 대중적 참여 원

41) Leela Gandhi, 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0), pp. 138~9.

42) Fanon, 2004, p. 105, 35.

43) Gandhi, 2000, p. 207.

44) Mark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May 1973), pp. 1360~1380; Ranajit Guha, “The Prose of Counter-Insurgency,” in Ranajit Guha (eds.), *Subaltern Studies II: Writings on South Asian History and Society*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40.



인에 대해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을 강조하는 쪽과 일제의 식민 지배 가혹성과 이에 따른 민족적 독립 의지, 독립운동 주도 세력의 존재 등 내부적 요인들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즉, 외인론적 입장에서는 1918년 1월 8일 발표된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으로 인해 민족자결주의 의식이 고취되었고 조선의 1919년 파리강화회의 참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3.1운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내인론적 입장에서는 민족자결주의 보다는 오히려 한말 의병의 영향이 컸음을 내세운다. 또한 3.1운동이 지방에서도 하나의 자체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의 만세시위 영향도 있지만, 각 지방마다 일제 통치로 인한 반일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고 때마침 고종 황제의 독살설이 전파되어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3.1운동 원인론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은 민족주의 연구에서 살펴본 원초론과 근대론의 대립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원초론의 입장을 따른다면 민족 내부에 자리하고 있던 역량에, 전파 가능한 ‘모듈적(modular)’ 성격을 강조하는 근대론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민족자결주의의 영향력에 더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둘째, 포스트 식민 연구는 3.1운동을 계획하고 조직했던 천도교와 대중의 3.1운동 참여 동기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천도교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한 쪽에서는 천도교 지도층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천도교 지도층을 소극적인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sup>45)</sup> 이는 전반적인 동학·천도교에 대한 성격 규정에도 영향을 미쳐

---

45) 긍정적인 입장은 대표적으로 신용하와 박성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용하,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한국사학회, 『한국현대사론: 한국독립운동의 전개와 근대민족국가의 수립』 (을유문화사, 1986); 박성수,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윤병석·신용하·안병직, 『한국근대사론Ⅱ』 (서울: 지식산업사, 1979). 부정적인 입장으로는 안병직의 연구가 있다. 안병직, “3.1운동에 참가한 계층과 그 사상,” 『역사학보』, Vol. 41 (1969), pp. 20~51.

손병희의 문명개화론과 천도교의 근대적 종교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그의 문명개화노선은 친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sup>46)</sup>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포스트 식민 접근법에서 지적하였듯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 ‘애국’과 ‘친일’, ‘민족’과 ‘반민족’의 대립논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의 엄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용창은 ‘척왜양=반일=민족적’과 ‘일본의 협력을 동반한 정치세력화=친일=반민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도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조선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sup>47)</sup>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은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1923)에서도 잘 그려져 있다. 소설에서 그려진 조선의 현실은 온갖 비참함, 허무, 치욕, 혼란이 구더기처럼, 공동묘지처럼 섞여 있는 곳이었다.<sup>48)</sup>

하지만 경직된 이분법에 의해 그동안 동학·천도교 연구에서는 동학·천도교와 일진회와의 연관성을 밝혔지만 어떻게 ‘친일적’인 노선을 걸던 동학·천도교가 ‘항일적’인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1운동 연구에서는 천도교의 3.1운동 계획 과정과 영향력에 대해서만 기술하여 왔다.

대중의 3.1운동 참여 동기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들의 서술은 상당히 규정적이다. 허영란은 종교인과 학생이 3.1운동을 이끄는 주체였

---

46) 긍정적인 평가로는 최기영과 조규태의 연구가 있다. 최기영, “韓末 東學의 天道敎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Vol. 20, No. 3 (1994), pp. 92~126;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Vol. 114 (2001), pp. 183~216. 이에 반해 김경택, 이은희의 연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김경택, “한말 동학교문의 정치개혁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은희, “동학교단의 ‘갑진개화운동’(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7) 이용창, “동학·천도교단의 민족독립운동과 정치세력화 연구(1896~1906),”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5).

48) 염상섭, 김경수 책임 편집, 『만세전: 염상섭 중편선』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으나 시간이 지나고 운동이 격렬해짐에 따라 모든 계층이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는 서술은 3.1운동의 지역적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 참여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각은 첫째, 지방의 3.1운동이 서울의 만세운동 영향과 중앙 지도층의 이념이 ‘파급’되었다는 점, 둘째, 기본적으로 민중은 수탈당하는 입장이므로 특정한 상황이 형성되면 그동안 쌓아온 불만이 터져 ‘당연하게’ 운동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sup>49)</sup> 또한 이는 서구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군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힘의 지배를 받아 과격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군중의 집단적인 행동은 감정, 사회적 무질서, 박탈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sup>50)</sup>

이러한 시각에 대해 시드니 태로우(Sydney Tarrow)는 박탈과 결핍은 대중에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운동을 야기할만한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 되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존의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 것은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를 정부 기관에서 수집하고 제공한 양적 정보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sup>51)</sup>

또한 이는 오리어리(O’Leary)의 지적<sup>52)</sup>처럼 우리가 민중을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운동의 동원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들의 주체성을 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 데에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민중이 “나는 독립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조선이 독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세를 부른 것이다,” “독립이 되었다기에 기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남들이 만

49)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경기도 안성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Vol. 72 (2009), pp. 155~181.

50) Gustave Le Bon, 이상돈 옮김, 『군중심리』 (서울: 간대서원, 2005); Ortega y Gasset, 황보영조 옮김, 『대중의 반역』 (서울: 역사비평사, 2005).

51)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81, 103.

52) O’Leary, 2001.

세를 부르니까 불렀을 뿐이다,” “술에 취하여 한번 불렀다”고 하는 일제 사법기관의 진술서의 영향이 컸다.<sup>53)</sup>

이에 대해 조경달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민중의 절제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들은 단순하고 비이성적인 불만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군중의 규율 있는 모습에 대해 일본 헌병대가 기술한 점,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현금이나 물품 탈취 사례가 극히 적었다는 점들을 근거로 하여 민중은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절제했음을 밝혔다. 또한 민중은 지식인들에 의해 계몽되었으며, 이에 3.1운동 시 만세라고 외치는 행위 등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민족을 체험하고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촌락공동체적 논리”에서 “민족공동체적 논리”로 의식의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군수나 면장에게도 만세를 외치게 한 것을 민족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한 요인으로 규정했다.<sup>54)</sup>

허영란은 민중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직적으로 혹은 우연히 참여하게 된 만세 시위의 행렬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힘”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민중의 경험과 내적 동기에 대해 “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민족의 구성원으로 자각하게 만든 계기였다,”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속하는 민중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만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집단 주체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는 등 기존 연

---

5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공판시말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지방법원공판시말서」, 「이상원 신문조서」.

54) 조경달, 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 근대 민중운동사』, (서울: 역사비평사, 2009), pp. 241~243; 지식층과 민중이 만세운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당수 농민들은 독립이 되면 대한제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역사연구회, 1989).

구들에서 3.1운동의 의의로 밝혔던 서술을 반복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sup>55)</sup>

김용직은 조선 민중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행동이나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행동은 ‘우리’라는 의식 하에 이뤄질 수 있었음을 주장했다.<sup>56)</sup> 하지만 실제로 지방 만세운동 경과를 살펴보면 만세 군중은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공격하여 문서를 소각했다. 이는 조선 민중이 자신의 경제적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용직의 주장과는 반대의 입장에서 윤해동은 면사무소나 주재소 공격은 민중이 ‘민족’적인 정체감을 갖게 된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그 정체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제시되었다.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공격하는 것이 왜 ‘민족’적인 정체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동체의 해체 이후 어떻게 조선인이 ‘민족’을 재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sup>57)</sup> 박명림 역시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라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이 결합되면서 강한 배일 민족의식이 생겼다고 평가했지만, 어떻게 그러한 의식이 형성·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58)</sup>

이해령은 3.1운동이 “국망 후에도 살아 있던 왕의 죽음이라는 비일상적인 사건을 계기로, 유람과 구경, 철시, 파업 등처럼 ‘생업’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아예 삶 그 자체를 넘어서고자

---

55) 허영란, 2009.

56) Young-Jick Kim, *Formation of a Modern State and National Social Movement in Modern Korea: March First Movement(1919)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92, p. 202.

57) “조선 민중이 일제의 촌락 재편정책으로 재생산구조가 파괴되고 공동체적 향촌 자치기구가 해체, 재편됨으로서 ‘민’으로 하여금 ‘민족’적인 정체감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3.1운동의 대부분의 시위운동이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를 상징한다.” 윤해동, “일제의 지배정책과 촌락재편,” 『역사비평』 No. 28 (1995), pp. 344~352.

58) 박명림, “분단 시대 한국 민족주의의 이해: <열린> 민족주의의 모색,” 『세계의 문학』, Vol. 80 (1996), pp. 48~75.

했던 초(超)일탈의 경험”이었다고 주장했다.<sup>59)</sup> 이는 그간 3.1운동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거나 3.1운동을 어떤 추상적 개념어의 틀 안에 두려했던 연구의 획일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좀 더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또 삶을 넘어서 순간 경험했던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 연구 방법

이전 절에서도 밝혔듯,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민족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이다. 담론(discourse)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reality)’을 등한시함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하는 등 우리의 사고와 행동 모두가 담론의 구조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담론은 사물과 현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담론은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을 통제하기도 한다.<sup>60)</sup> 예를 들어, 지진이 나고 운석이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자연적 현상으로 여길지, 신(God)의 분노로 여길지는 담론의 구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sup>61)</sup> 따라서 담론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을 등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현상 혹은 사건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구조화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즉 좀 더 현실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다.

---

59) 이해령,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화사연구』, No. 40 (2009), pp. 230~275.

60) Sara Mills,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p. 46.

61)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Verso, 1985), p. 108.

### 1) 3.1운동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막스 베버(Max Weber)는 어떠한 행위(action)란 “그 행동을 하는 개인이 주관적인(subjective) 의미를 붙인 모든 인간의 활동”이며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이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란 주관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또한 역으로 주기도 한다. 이에 베버는 행위자들(actors)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버는 사회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인과적·통계적 분석은 불충분하며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의식(consciousness)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규정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버는 이해(verstehen)의 방법을 내세우며, 연구자가 행위자들의 세계 속으로 충분히 관여해야 함을 주장했다.<sup>62)</sup>

베버의 주장은 사회세계(social world)의 상호 주관적 혹은 간(間) 주관적인(inter-subjective) 성격을 강조한 알프레드 슈츠(Alfred Schutz)에 의해 더욱 발전했다. 슈츠는 행위자들이 주관적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슈츠는 이것이 행위자들이 속한 사회세계 속에서 구성되고 조직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세계 속에서 서로의 의식(consciousness)를 이해하고 이해 받는 것이다.<sup>63)</sup>

---

62) Max Weber, 전성우 역, 『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서울: 나남, 2011); Jonathan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7).

63) Alfred Schutz, translated by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7).

## 2)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선(先) 고찰<sup>64)</sup>

Özkırımlı는 ‘민족’이란 그것을 정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징(a symbol with multiple meanings)이기 때문에 민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족을 구성한다고 일컬어지는 언어, 지형 등 객관적(objective) 요인들의 나열로는 그 요인들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이 각 민족에 따라 다를 수 없다. 반대로 연대(solidarity), 자기 인식(self-awareness), 충성심(loyalty) 등 주관적(subjective) 요인들은 민족 외에도 다른 사회적 혹은 문화적 공동체를 특징짓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관적 요인들은 민족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민족을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민족이란 정체성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sup>65)</sup>

이어서 그는 민족주의를 하나의 ‘담론(discourse)’이라고 규정하며<sup>66)</sup> 민족주의자들이 향유하는 담론(nationalist discourse)에 대한

---

64) Özkırımlı, 2010, pp. 206~209 참고.

65) John R. Gillis, “Memory and Identity: The History of a Relationship,” in John R. Gillis (eds.),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5.

66) 이와 같은 접근법은 ‘담론적 형성(discursive formation)’을 얘기한 칼훈(Calhoun)을 비롯하여 Delanty and O'Mahony, Hall, Suny 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Craig J. Calhoun,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7); Gerard Delanty and Patrick J. O'Mahony, *Nationalism and Social Theory: Modernity and the Recalcitrance of the Nation* (London: Sage, 2002); Stuart Hall,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tuart Hall, David Held, Don Hubert and Kenneth Thompson (eds.),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Oxford: Blackwell, 1996), pp. 595~634; Ronald G. Suny, “Constructing Primordialism: Old Histories for New Nations,”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73, No. 4 (December 2001), pp. 862~896.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했다.<sup>67)</sup> 첫째, 민족주의 담론(nationalist discourse)은 민족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며 민족을 다른 공동체들보다 우위에 둔다. 둘째, 민족을 궁극적인 정치적 정당성으로 여긴다. 셋째, 현재 논의되는 민족주의 담론의 유지를 위해 항상 그것이 기반이 되는 과거의 담론에 의지한다. 넷째, 민족주의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근대 이전에 잠재하던 요소들은 민족주의 담론이 형성된 뒤에 담론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거나 부각 혹은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의 계산된 민족주의 만들기예 의한 것이 아닌 우연한 사건, 오인 등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민족을 사고(thought)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민족주의를 담론의 형태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담론이란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특정한 방법이며, 우리 주변 현실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하나의 준거 틀(a frame of reference)이라는 것이다. “제도(institutions)나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은 담론의 발전, 유지,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68)</sup>는 사라 밀(Sara Mills)의 주장과 ‘지식의 고고학(archaeology of knowledge)’을 내세우며 담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강조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sup>69)</sup>의 논의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담론을 단순히 언어나 문장들의 알 수 없는 묶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Özkırımlı가 제시한 연구의 틀(framework)은 민족주의를 담론의 한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자들이 향유하는 담론의 형성 과정에만 집중하여, 이것

---

67) Umut Özkırımlı and Spyros A. Sofos, *Tormented by history: nationalism in Greece and Turk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68) Mills, 2004, pp. 9~10.

69)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New York: Vintage Books, 1994); Michel Foucault, translated by A. M. Sheridan Smith,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이 어떻게 대중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담론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민족주의 담론(nationalist discourse), 후자를 민족 담론(national discourse)이라 구분하며 칭하며 양자를 모두 다루는 좀 더 총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3) 민족 담론 연구 방법

민족 담론 연구의 목적은 민족 담론의 형성과 이 담론이 어떻게 경쟁 담론들을 물리치고 패권(hegemony)적 지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담론은 국가나 일부 지도층 및 지식인들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담론의 형성에는 모든 개인들이 참여한다. “권력은 그물 같은 조직을 통해 구사되고 행사된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 실들 사이를 순환하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권력을 경험하거나 행사하는 위치 속에 있다. 그들이 권력의, 자활력이 없거나 순응적인 표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그 분절의 요소들이다. 달리 말하면 개인들은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들이기보다는 권력의 담지자들이라고 해야 한다.”<sup>70)</sup> 푸코의 지적처럼 민족 담론의 형성 및 세력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부 지도 세력만이 아닌 모든 개인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체험하는 민족에 대한 담론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민족적 상징, 의식, 역사를 넘어 좀 더 “잠재적이며 무의식적인”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sup>71)</sup>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상징적인 것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

---

70) Michel Foucault, edited by Colin Gordon,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 98.

71) Lauren Berlant, *The anatomy of national fantasy: Hawthorne, Utopia, and everyda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 4.

양한 현상들을 포함해야 한다.

민족 담론이 일상적인 담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다른 정체성보다 민족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민족 담론이 패권적 지위를 차지했음을 뜻한다. 패권(hegemony)이란 “사회정치적인 상황 혹은 순간을 의미하는데... 삶의 특정한 방식이나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고, 현실의 어떠한 개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sup>72)</sup> 즉, 담론이 패권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의 담론이 일상화되며, 하나의 ‘상식(common sense)’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경쟁 논리 혹은 담화들로 인해 한 담론의 영원한 패권 출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sup>73)</sup>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헤게모니는 항상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의 지배 구조 혹은 형태로 있을 수 없다. 헤게모니는 항상 재생산되며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했다.<sup>74)</sup>

#### 4. 연구 자료

3.1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일제 총독부 기관 자료, 일제측 신문조서, 신문자료에 기반을 두어 논의를 형성해 왔다. 동학·천도교에 대한 연구들 역시 동학사나 천도교 기관 문서, 그들이 출판한 신문 등 간행물에 기반하고 있다. 기관 및 정부 문서와 신문 등 정규 간행물은 정보의 일관성이 있으며 그것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

72) Gwyn A. Williams, “The Concept of 'Egemonia' in the Thought of Antonio Gramsci: Some Notes on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21, No. 4 (1960), p. 586~599.

73) Özkırımlı, 2010, p. 213~214.

74) Raymond 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112.

넓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관 및 정부 문서는 그들의 행동과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에 불리한 정보는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sup>75)</sup> 그 예로, 일제의 공식적인 기록들은 자신의 조선통치가 조선에게 이득이 된다는 통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되었을 수 있다. 이에 기관 및 정부 문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편향된 시각에서 기록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얻는 정보를 객관적인 사실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삼으려 한다.

또한 일제 측 신문조서에서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는가는 다음의 진술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문> 피고는 경무총감부에서 (중략) 임치정, 양기탁, 옥관빈 등과 회합하여 총독암살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스스로 말하였는데 그러한가.

<답> 경무총감부에서 지금 물어본 바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대답은 사실과는 틀린 것이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경무총감부에서 심문을 받을 때 본인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신문하는 측에서 양기탁을 비롯해 안태국, 옥관빈, 이승훈, 임치정 등이 모두 본인과 화합한 것을 자백했다고 하며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백을 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문을 시작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여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 고통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등을 자문(自問)한 결과 더 이상 부인한다면 고통만을 더할 뿐이라고 생각되었다. (중략)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들이 진술했

---

75) Elisabeth Clemens and Martin Hughes, “Recovering past protest: Historical Research on Social movements,” in Bert Klandermans and Suzanne Staggenborg (eds.), *Methods of social move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pp. 201~230.

다는 대로 (본인도) 진술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sup>76)</sup>

이 진술은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떠오르게 한다. 안태국, 옥관빈, 이승훈, 임치정 등 옆 방에 있는 다른 수인들이 이미 자신과의 화합을 자백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자신도 자백하여 그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든가 자백하지 않고 고문을 받으며 혼자 더 큰 형량을 받든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자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신문조서는 ‘사실’을 표방하며 날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기관 자료, 신문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고 회고록들을 활용하여 당시 사회현실과 조선인의 모습을 재구현할 것이다.

## 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분석에 앞서 1919년 3월 1일을 전후한 서울의 모습을 회고록과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아내려고 한다. 지방에서 이뤄진 만세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반면 이상하게도 3.1운동이 처음 전개된 서울의 만세운동은 처음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만세운동의 확산과정을 그리며 각 지역 만세운동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만세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을 크게 민족대표, 지식인층과 학생, 민중<sup>77)</sup>으로 나눠서 각 그룹의 사람

---

76) 윤경로, “105인 사건 피의자들의 사건 이후 행적에 관한 소고: 친일로 경도된 9인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36 (2012), pp. 91~152 참고.

들이 어떻게 만세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IV장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민족 자결과 독립을 외친 결사체 혹은 정당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3.1운동을 계획·조직하였지만 이전에는 일본에 대한 지지를 주장했던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학·천도교의 역사적 행보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민족주의 담론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V장에서는 천도교 지도부를 비롯한 민족대표들이 제시했던 3.1운동이 어떻게 전국적 대중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즉, 만세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은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온 경제적 수탈에 대한 불만 표출, 의병전쟁에 대한 복수 등의 요소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 사람들이 체험했을 분노와 울분 그에 따른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라는 요인과 주위의 압력과 수치심이라는 수동적인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려 한다.

이어지는 VI장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 만세운동 현장에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경험은 ‘민족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또한 3.1운동이 일제에게 미친 영향과 함께, 3.1운동은 이후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77) 본 논문에서는 ‘민중’이란 단어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듯 투쟁의 주체 혹은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어떠한 통일적이며 일관된 이해나 주체성을 가진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음을 밝히려 한다. 본고에서 ‘민중’은 명확한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층과 지식인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people)을 가리킨다. 이에 ‘대중’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대중’은 지도층과 지식인들을 모두 포함한 조선인들을 가리키기에 이와 구분을 위해 ‘민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불명확한 개념 정의는 필자의 언어 구사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VII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3.1운동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1920년대, 그리고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에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이 한국사회와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 II. 3.1운동의 시작<sup>78)</sup>

본 장에서는 3.1운동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앞서 1919년 3월 1일 전후 서울의 모습을 남겨진 기록과 회고록 등을 통해 재구성하려 한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 지역별 만세운동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만세운동은 상세히 밝혀지고 있다.<sup>79)</sup> 반면,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에 대한 서술은 민족대표의 활동에 관한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다’ 정도가 대부분이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이 3.1운동의 시발점이자, 이를 경험하고 구경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각 지역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된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 만세운동의 행동노선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는 자료상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총독부는 3.1운동 초기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상당 기간 동안 언론을 통제했다.<sup>80)</sup> 이에

---

78)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김창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기독교 민족사회주의자 김창준 유고』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1), pp. 99~100; 윤소영 편,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운동편 1』 (천안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a)), pp. 78, 80~81, 97, 106~107, 118, 170; 윤소영 편,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운동편 2』 (천안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b)), pp. 116, 118, 122~124, 126, 141, 147~148, 167;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回顧錄』 (서울: 자유문고, 1982), p. 8; Hildi Kang, 정선태, 김진옥 옮김, 『검은 우산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1910-1945)』 (서울: 산처럼, 2011), pp. 51-53, 56; 이준열, 이달호 편, 『선각자 송강 이준열의 삶 : 3·1운동, 고학당 교육, 광주학생운동, 대동사업의 증언』 (서울: 해안, 2012), pp. 96-98; 이정은, 2009, p. 133; 이희승, “내가 겪은 삼일운동,” 동아일보사,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서울: 동아일보사, 1989), pp. 399~400; 김진봉, 『三一 運動史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2000), pp. 108~109, 114~115;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이용권 외 옮김, 『한국통사(하)』 (서울: 대야출판사, 1990), p. 72.

79) 대표적으로 이정은, 2009.

80) 총독부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일신보’에서 3.1운동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3월 7일부터이고, 서울보다는 각 지역의 운동현황을 다루고 있다. 황민호,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의 전개와 조선총독부의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26 (2006), pp. 169~203.



당시의 공식적인 총독부 기관 문서 역시 기록되지 않았거나, 소멸되었거나, 혹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약이 있지만 서울의 만세운동은 그 상징성 하나만을 고려하더라도 좀 더 많은 모습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 한다.

1919년 3월 1일,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날도 늘 그랬듯 기독교회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 거리를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종로 광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눈에 들어 왔다. 소년들은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었다. 이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불을 보듯 뻔한 위험 속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는 이 시위에 연루되는 걸 피하기 위해 회관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군인, 기마, 경찰, 형사, 헌병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sup>81)</sup>

윤치호의 이 글은 3.1운동의 여러 면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닥칠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과 시민들. 그 수가 부족하여 태극기<sup>82)</sup>를 손에 질 수는 없었지만 대신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어 대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들과 연루되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문을 닫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sup>83)</sup> 그리고 운동 참가자들과 함께

---

81) 윤치호, 김상태 편,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 77~78.

82) 1883년 공식적으로 제정된 태극기는 일본에 의해 병합된 이후 “국권회복과 독립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목수현, “근대국가의 ‘국기(國旗)’라는 시각 문화: 개항과 대한제국기 태극기를 중심으로,” 『美術史學報』, Vol. 27 (2006), pp. 309~344.

같은 장면에 등장한 일본의 군인, 기마, 경찰, 형사, 헌병들. 본 장에 서는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것이다.

## 1.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

3월 3일로 예정된 고종의 국장 예행연습은 2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거행되었다. 이 예행연습이 있기 전부터 서울은 조선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2월 26일에는 3천여 명, 27일에는 6천여 명이 상경했다. 2월 28일부터는 서울로 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방의 각 역에서는 기차표 발매 중지 사태가 빚어지고, 서울역 출구에는 밀려드는 인파가 마치 폭포수와 같았다. 기차를 못 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오기도 했다. 아예 기차가 다닐 수 없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기도 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여관들은 크기를 막론하고 모두 만원이었고, 친척 등 아는 집에 묵기로 하여 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서울 거리는 매우 혼잡했다.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해 시내 도로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모인 군중은 십 수만 명을 헤아려서 국장 당일에는 배관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일본 기자는 “이러한 사태는 조선 개벽 이래 처음 보는 현상으로 (3월) 2일에는 수십만을 넘을 것이” 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흰 갓에 흰 두루마기를, 여자들은 흰 저고리에 흰 치마로 입었다. 어디를 가나 ‘순백 일색’이었다.

1919년 3월 1일 오전 10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

83) 윤치호는 “조선의 독립문제는 파리강화회의에 상정될 기회가 없을 것이며... 설령 독립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독립에 의해 이득을 볼 준비를 갖추지 못했고...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치호, 2001, p. 79.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은 비단 윤치호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울 시내 남대문 벽에 한글로 적힌 배일(排日) 격문을 이곳, 저곳에 붙이는 사람이 있었다. 또한 조선독립신문 제1호와 독립선언서가 암암리에 대중에게 배포되고 있었다.<sup>84)</sup> 조선독립신문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김병조 외 31인이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하오 2시에 조선독립선언서를 경성 태화관에서 발표하였는데, 동 대표 제씨는 종로경찰서에 구인되었다더라.

2. 대표 제씨의 신탁: 조선민족 대표 제씨는 최후의 일인으로 동지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는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으로 바치노니 우리 신성한 형제는 우리의 본래의 뜻을 관철하여 몇 년 며칠까지든지 우리 2천만 민족이 최후 1인이 남더라도 결단코 난폭한 행동이라든지 파괴적 행동을 하지 말지니 천만 주의하고 천만 보중할지어다.

3. 전 국민의 향응: 동일 대표 제씨 구인되는 동시에 전 국민이 제씨의 본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제 향응한다 하더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sup>85)</sup>

우선 신문의 발표 날짜는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로, 단기로 표시되어 있다. 민족대표 33인 이름으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서도 발표 일자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었고, ‘반만년 역사의 권위’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단기 표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IV장에서

---

84) 천도교인 이종일이 제안한 조선독립신문은 1919년 2월 28일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자 보성사 사장인 윤익선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조선독립신문 제1호는 이종린이 원고를 작성했고, 이종일이 보성사에서 약 1만매를 인쇄했다. 반포 책임은 다시 이종린이 맡아 인쇄된 신문을 임준식에게 주며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반포하도록 했다. 아마 그 중 일부가 3월 1일 오전부터 대중에게 반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5) 국가보훈처, 『3·1 운동 獨立宣言書와 檄文』 (서울: 國家報勳處, 2002), pp. 39~40.

좀 더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이는 조선 민족의 시작을 단군으로 삼으며 그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 내 공동체를 상기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병희 등 33인의 민족대표가 3월 1일 오후 2시에 태화관에서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경찰에 구인되었으나 대중으로 하여금 일제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바라는 당부가 담겨있다. 하지만 이 발표에 호응하여 전 국민이 껄기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처럼 적어두는 방식으로 천도교에서는 그들이 내세운 운동의 대중화와 비폭력 노선을 대중에게 미리 인식시키고 있었다. 2월 28일 한용운은 독립선언서 5천여 매를 학생단과 사찰에 나눠 주었고, 박희도와 이갑성은 서울 남녀 학생들에게 각기 2천매를 나눠주었다. 3월 1일 12시 이전에는 인쇄해 둔 약 2만부의 선언서 전부가 배포되었다.

오전 11시 반 조선인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총독부의 경무총감부는 덕수궁에서 조사봉독의식에 참석 중인 고지마 소지로(児島 惣次郎) 경무총감에게 이를 알렸고, 경무총감은 식 중간에 나와 총감부로 돌아와서 헌병대 경찰서장들을 모아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sup>86)</sup> 몇 가지 증언들은 일제측에서 3월 1일 만세운동 계획에 대해 이 시간 이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sup>87)</sup>

정부(총독부)의 스파이들이 벌집처럼 퍼져 있고, 군대·경찰·헌병들의 감시가 삼엄한 나라에서 한국인들은 범국가적인 혁명을 조직, 최후의 순간까지 이들 모두를 속여 실천에 옮긴

---

86) 당시는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헌병대 사령관이 경무총감부 총장을 겸임했다. 각 지방 도내 주요 요소에는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가 없는 지방에는 헌병분대, 분견소를 두었다. 일제는 경찰과 헌병의 관할 구역과 지방의 행정구역을 가급적 일치시켰다. 이정은, 2009, p. 43.

8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6)』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4), pp. 297, 345~346, 456.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독립운동이 계획되고 수행된 효력과 완벽성이다. 최고의 정보 계통에서 일하던 일본인 관리들이나,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기는커녕 약간의 의식조차 가지지 못했다. 다만 공기가 좀 험악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직 지도자들과 계획을 추진하던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나는 일본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한국학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있음직한 인물이었다. 내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얘기하고 소란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웃었다. 그는 자기가 한국인들을 잘 아는데 그들은 일본의 통치에 만족하고 있다고 내게 설명했다. 그들은 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며, 일본의 손에 의해 수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 독립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는 자기가 한국인의 심중을 통찰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못해 모든 한국인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에 뛰어 나왔다.

마지막 증언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어쩌면 한 부류의 조선 학생들의 면모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조선 학생들 모두가 처음부터 만세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몇 장면은 이처럼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과 참여를 독려 받던 학생들 간의 미묘한 의견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족은 곧 부정한 일본 정책에 대한 일종의 시위 운동을 감행할 것이며, 전 한국인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다.

(중략)

우리는 저녁 과제를 빨리 마친 다음 우리 민족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선거법? 또는 자국의 군대를? 그것도 아니면 자치를? “어쨌든간에 정치적인 것일 거야.” 익원은 언짢게 말했다. “물론이지!”

“우리들이 참가한 것이 관청에 드러나는 날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봤니?”

“물론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

“우리들은 더욱 심할 거야. 정부 직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고마움 때문에라도 결코 정치적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될 것이야.”

이제야 우리들이 참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큰 문제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고 우리들에게 고상한 학문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고마웠다. 우리들에게 국비로 여러 가지 관광을 시켜주었고, 또 유명한 학자며, 승려, 정치인에게 안내해 주었다.

(중략)

“그렇지만 우리들도 우리 전 민족에 관계되는 일이 생긴다면 같이 해야지.”

“그렇긴 해”

“너의 의견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제기랄.”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행동하자고 그는 말했다. “말할 필요 있나.”

(중략)

시위 운동은 벌써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다만 국립 학교 학생만이 모르고 있다고 상규가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반 왜놈’이라고 하며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sup>88)</sup>...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시위 운동에 참가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 무엇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참석하기를 원했다.

그 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우리 조상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 일본놈은 얼간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말했다. 우리들은 맨 처음 발명된 인쇄 활자며, 거북선, 도자기 기술, 특별한 종이와, 우리들 조상이 이 세계의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였던 여러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잘됐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규는 우리에게 시위에 대한 새로운 준비며, 국기며, 뼈라며, 행진 질서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첫 시위는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개시된다는 중요한 보도가 들어왔다.<sup>89)</sup>

---

88) 이와 같은 상황은 3.1운동 이전 학생들이 주도한 동맹휴교에서도 나타난다. 1916년 4월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최승만은 “우리들의 재학시절에도 동맹휴학을 더러 하였는데, 한번은 반에서 무슨 일인가로 동맹휴학을 결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동맹휴학의 결의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반에서도 제일 작은 축에 끼는 내가 혼자 반대하자, 특히 커다란 주동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니까 찬성하라는 강요를 하였다”고 후술하였다. 普成80年史編纂委員會, 『普成80年史』 (서울: 東成學園, 1986), p. 189. 재인용: 이정은, 2009, pp. 113~114. 학생 운동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종족 소수의 의견은 다수의 강압적 압력에 의해 묵살되기도 했던 것이다.

89) 이미륵, 전해린 옮김, 『압록강은 흐른다』 (서울: 범우사, 2000), pp. 160-163. 이 책은 이미륵 박사가 자신의 소년 시절부터 독일 도착까지의 삶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한 자전소설로, 원저(독문본) 제목은 ‘Der Yalu fliesst : eine jugend in Korea’이다. 1946년 피퍼 출판사에서 간행되자마자 상당한

이미륵의 회고는 당시 일부 조선 학생들, 특히 관공립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던 일본의 통치 방식에 만족함을 넘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갈등하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이어져 오던 유구한 문화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이내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내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해 4,000~5000명 정도 군중이 모인 듯 했다.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학교 단위로 모였으며, 경성의전 학생들이 처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당일 아침부터 전원 결석을 하고 오기도 했다. 파고다공원 주위는 이미 일본 경찰들이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팔각정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낭독이 있을 후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그칠 줄 모르는 만세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좁은 공원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전율을 느꼈고 그들의 열기는 폭발할 것 같았다.<sup>90)</sup>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빠라가 휘날렸고, 군중은 공원 밖으로 나

---

인기를 끌어 곧 매진되었고, 1950년 재판이 나와 다시 절판되었다. 이미륵 박사는 1899년 3월 8일 출생하여 1950년 5월 20일 별세했다. 서울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3.1운동에 가담한 뒤 독일로 건너가 공부를 했다. 이미륵, 2000, pp. 206~209 역자 후기 참조.

90) “집회장에서는 흥분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한 장소에 모여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 주위에 늘어선 경찰과 군대, 체포되고 추방되는 지도자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와 시가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여! 소년들이여! 때는 왔다!”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여자들은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렸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시위 군중에게 나눠주었다. 이때까지 경찰과 헌병들은 개입하지 않고 시가를 군중에게 개방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무장을 한 채로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경 사람들은 종로에 모여들었다. 학생들이 비밀리에 연락해서 모인 사람들과 만세 외침에 호응한 사람들이 모두 모이니 그 수는 약 3만 4천명에 달했다. 이전 파고다 공원에 모였던 군중이 대부분 학생들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일반 민중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한 데 모여 있다가 학생들의 주도로 여러 무리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또 한 무리는 종로에서 대한문으로 시가행진을 하여 대한문 앞에서 ‘조선만세’를 부르짖으며 절규했다. 대한문 앞으로 모였던 군중 중 일부는 미국영사관으로 가서 만세를 외쳤다. 대한문 앞 군중 중 약 500명은 대한문의 경계가 느슨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물밀 듯이 문 안으로 들어가 고종의 영구가 안치되어 있는 덕수궁 함명전 앞에서 더욱 크게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들은 이들 중 몇몇을 체포하며 무리를 밖으로 몰아냈다. 문 밖으로 쫓겨난 군중은 다시 종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 한 무리는 경성우체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프랑스 영사관(지금의 창덕여중 근처) 앞에 모였으며, 다른 무리는 창덕궁 앞에 도착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어느 무리는 조선보병대 앞에 이르러 영내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좁은 골목에서는 6천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제지하던 일본 군경의 저지선을 두 번이나 뚫기도 했다.

시위 군중은 시내를 걸어 다니며 민가를 향해 연신 만세를 외쳤다. 사람들이 외치는 만세소리에 서울이 공중으로 떠나가는 듯했다. 집 벽이 진동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여 밖으로 나와 보면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조선 군중 속으로 인력거를 타고 퇴근하던

---

Fanon, 2004, p. 90. 이와 같은 파농의 묘사는 파고다 공원에서 조선 사람들이 느낀 전율과 열기가 예외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본인 경기도지사는 군중의 강요로 모자를 벗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갓을 쓴 양반이나,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나, 심부름꾼, 기생들까지도 함께 엉키어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휩쓸었다. 이들은 행진하는 도중 목이 말라 만세 부르기가 어려워지면 상점에 들어가 냉수를 얻어먹기도 했고, 아예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찬 물동이를 문 앞에 놓고 물을 나누어줬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이들에게 “만세를 왜 부르고, 무슨 일이 났느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몇몇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대한 독립을 승낙 받았다”며 기쁜 나머지 시가를 휩쓸고 다니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인 여자 몇 명이 “무슨 일이 있는가, 조선인들이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느냐”고 묻자 “대한독립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정되어 독립만세를 높이 부르며 방방곡곡에서 환호하는 도중이니 당신들은 급히 도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세를 부르는 이들 중 일본만세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세를 외치는가’라는 의문과 혼란은 비단 민중만이 가진 것은 아니었다. ‘압록강은 흐른다’에서도 그려졌듯이 실제로 운동을 이끌고 있던 학생들조차 만세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이 만세운동을 통해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조차 몰랐다.

실제로 조선에서 ‘만세’를 외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만세’는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원구단에서 제사를 올리며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개칭하여 황제국임을 선포하고, 자신의 지위를 왕에서 황제로 승격한 뒤에야 외칠 수 있는 구호였다. 만세(萬世)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구호였기 때문에 대한제국 선포 이전에는 한 번도 조선 사람의 입을 통해 불릴 수 없었다. 조선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사용되던 구호는 천세(千歲)였다.<sup>91)</sup>

---

91) 정교, 조광 편, 변주승 역, 『대한계년사(3)』 (서울: 소명, 2004), p. 131.

독립협회원들은 무엇인가 축하하고자 할 때 만세를 외쳤다. 고종이 내린 조치에 대해 “지금 이 열줄의 은혜로운 말씀이 내리신 것은 진실로 우리 대한이 중흥하는 때가 되므로 본회에서 저희들은 기뻐서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자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면해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을 구하였을 때에도 만세를 외쳤다. 한편으로는 “1897년 10월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이는 모두 우리 태조께서 대업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신 공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紀元)의 경축일을 맞이해, 높고 낮은 관리와 백성들이 독립관에 모여 기뻐서 만세를” 불렀다. 또한 관민공동회와 만민공동회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항시 만세를 외쳤다.<sup>92)</sup>

따라서 적어도 독립협회원이었거나 관민공동회 혹은 만민공동회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은 만세를 이와 같이 군중이 모이면 외치는 구호라고 여겼을 수 있다. 또한 만세를 외치는 것은 다시금 독립을 이뤄냈다는 축하나 기쁨의 의미였거나,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제국에 속한 열등한 신민이 아닌 대한제국의 구성원이라는 동등한 위치 의식을 표출했던 것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을 ‘시내를 걸어 다니며 민가를 향해 연신 만세’를 외치던,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세의 의미를 묻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만세는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端初)를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만세를 외치는 군중은 점점 늘어나 서울 시내를 전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뒹눴던 시위 군중 중 일부는 발걸음을 돌려 대한문 앞으로 돌아와 재차 진입을 시도했다. 기마헌병과 경찰들에 의해 대한문 진입 시도가 실패하자 이들은 총독부 및 총독부 관저(경복궁 앞)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시간 전까지는 만세 군중과 일본 헌병 및 경찰 간의 무력

---

92) 정교, 2004, p. 80, 198, 236, 126, 247, 249.

적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일본 신문을 살펴보면 일제는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장소마다 조선인들과 함께 있던 외국인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이 이때까지 무력 사용을 자제한 이유는 아마도 외국 언론에 비춰질 일본의 통치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들은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소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교묘하게 이를 알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 만일 다수가 집회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산을 명하고 듣지 않는 자는 용서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폭력적 진압이 정당해질 순간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 3. 일제의 대응

일제는 시위군중의 2차 대한문 진입 시도를 군사 작전의 정당성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우리는 단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 뿐, 일본에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므로 조선의 법률로는 사형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법에 의하면 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놈들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대신에 거리에서 학살하였던 것이다”는 회고는 일제가 폭력 진압을 결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준다.<sup>93)</sup> 즉, 일제는 만세운동 참가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법적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여겼고 이에 그들에 대한 복수를 법적 재판이 아닌 폭력과 학살을 통한 ‘거리에서의 재판’으로 대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93) Nym Wales, 송영인 옮김, 『아리랑』 (서울: 동녘, 2005), p. 96. 이 책은 훗날 장지락(張志樂)으로 본명이 밝혀진 주인공 김산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님 웨일즈(Nym Wales)는 1937년 당시 32살인 김산과 인터뷰를 하며 남긴 기록을 이 책으로 정리했다.

총독은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 太郎) 군사령관에게 1개 중대 출동을 명령했고, 사령관은 야마모토 소좌가 이끄는 보병 제78연대 1개 중대를 출동시켰다. 1개 소대는 덕수궁 경비를 위해 남아있고, 1개 소대는 본정거리(지금의 명동)로, 1개 소대는 종로와 황금정 방면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이미륵의 회고에 의하면

우리들이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 ‘자유 민족’임을 거리낌 없이 선언한 다음 총독부로 행진하려 할 때, 우리들은 완전히 포위당하였다. 도로는 차단되었고, 모든 도로의 양면에는 중무장한 경관이, 한가운데에는 병정들이 네 줄로 서 있었다. 잠깐 동안 양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치하고 있었으나, 곧 병정의 전열에서 희게 빛나는 총검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였다. 맨 앞줄의 군중들은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나 뒷줄에서는 공포에 싸여 후퇴하였다. 이로써 국면을 잃고야 만 것이다. 거기엔 비탄의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병정들은 이 순간에 우리들을 큰 도로에서 내몰았고, 거기서 다른 분대가 우리를 다시금 몰아냈다.<sup>94)</sup>

고 한다. 아마도 종로와 황금정 방면에 있던 1개 소대는 프랑스 영사관, 즉 지금의 창덕여중 근처, 에서 동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총독부로 가던 조선 군중을 포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2차 대한문 진입을 시도했던 군중 역시 총독부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지금의 광화문 사거리쯤에서 폭력 진압이 시도되지 않았나 판단된다. 또한 본정거리로 간 1개 소대도 남대문 방향으로 움직였던 시위 군중을 상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저지른 폭력 행위는 끔찍했다.

청년의 흥분에 올라서서 군도로 그 신체를 난자하던 일

---

94) 이미륵, 2000, p. 165.

본 천황폐하의 순사는 청년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한 줄 알고 노(怒)하는 듯이 따라 내려와 주위에 선 일군(一群)을 향하여 청년의 열혈(熱血)에 젖은 칼을 내어 두른다. 그의 구두와 바지에는 청년의 피가 흐르고 그의 눈은 마치 독사와 같이 되었다. 이 독사는 독사의 혀와 같이 붉게 피 묻은 군도(軍刀)를 내어 두르면서 황단(荒壇) 앞으로 쫓기는 여학생의 일군을 따라 앞서고 말았다. 실로 인류의 역사에 두 번 보지 못할 광경이라.<sup>95)</sup>

포위망으로 달려들던 한 여학생은 유혈이 낭자하고 산발머리가 되어 붙잡혀갔다. 맨 앞줄의 군중은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나 무기조차 없는 청년들과 시민들은 계속해서 죽거나 붙잡혀 갔다. “제1진이 무너지면 제2진이 대기 중인 군대를 향하여 똑바로 전진했다. 오직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였다.” “노동자들은 폭풍우같이 운집하여 경찰서로 가서 체포당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가슴을 풀어헤치고 총검 앞으로 달려드는 것이다. 경찰은 찌르고 자르고 차고 죽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몰려들며 만세를 외치는 것이다. 이들 군중의 첫 번째 줄이 말을 탄 병력에 의해서 베어지고 짓밟혀진다. 그러면 다음 줄이 만세를 외치며 달려든다.” 말을 탄 군인들은 사람들을 둘러싸더니 그들을 밧줄로 묶은 다음 다시 다른 사람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말채찍 손잡이 끝으로 사람들을 후렷했다. 체포된 조선인들은 여전히 “조선독립만세!”, “일본인은 물러가라”, “조선은 조선사람의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것은 거의 평행선(平行線)을 잃은 버림받은 희망을 위한 하나의 장엄한 절망의 몸부림이었다.”<sup>96)</sup>

하지만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점차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

95) 『독립신문』, 1919년 9월 20일.

96)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편, 『三一運動: 韓國의 事情 韓國의 어린 殉國者』, (서울: 국가보훈처, 1991), p. 4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4)』,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4), p. 551;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70.

다. 조선 사람들은 도저히 일제 헌병 및 경찰들과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미쓰코시(지금의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의 다카기 구두점의 창문을 파괴하고, 돌을 던져 일본상점의 유리창을 부수는 등 그들 나름의 최선의 반항을 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sup>97)</sup> 하지만 본정거리는 길의 폭이 좁고 막혀 있어서 부인과 어린이는 달아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 골목마다는 참상이 이어졌다. 모두가 “시위하러 가자”고 했지만 “우리 집에서 만세를 부르면 왜 안되느냐?”고 한 할머니 때문에 집 안 감나무에 올라가 담장 너머로 “만세, 만세”를 외치던 꼬마는 긴 칼을 든 일본 군인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몇몇 남자들의 다리를 자르기도 했다. 거리는 아비규환, 완전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사람들이 물러나고 난 뒤 거리에는 짚신, 비녀, 그 외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뒹굴고 있어 ‘마치 화재가 발생한 뒤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군중이 해산되고 그날 밤이 되자 경무총감은 전 도에서 소집한 경찰들을 각 요소에 배치하고 군대 역시 해산시키지 않고 경계를 한

---

97) 이처럼 투석,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행위, 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만세운동 전반에 걸쳐 항상 벌어지던 일이었다. 한반도에서는 이전부터 석전(石戰)이라 불리던, “옛날 어느 임금이 백성들의 용맹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한 “일종의 스포츠이며 연례행사”가 있었다. 석전은 한 마디로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해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것이었다. 석전을 처음 본 외국인은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만세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을 지칭하던 말인 ‘폭도’, ‘폭민’과 느낌이 유사하다. 하지만 놀이나 행사처럼 여겨지던 ‘석전’이 만세운동 시 ‘투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실제로 투석을 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지 않는 한 명확하게 밝히기 힘들어 보인다. 추측하는 바로는, 의병전쟁을 겪으며 총 등 무기를 모두 빼앗긴 조선인에게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근대식 무기는 없었고 이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칼, 낫, 호미 등 일상 용품뿐이었다. 하지만 총검으로 무장한 일제에 대항하여 근접전보다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고 이에 그동안 놀이처럼 즐겨왔던 ‘석전’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석전을 하면서 간혹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대상자를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하며, 범죄혐의 없이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Oliver Avison, 황용수 역, 장의식 편,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 舊韓末 風景』,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6), p. 257.

층 엄격하게 했다. 서울 시내를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삼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바깥은 삼엄하였고 거의 행인이 없었다. 어두컴컴한 길 양편에는 기관총을 든 병정들이 서 있었으며 잇달아 검은 장갑차가 지나갔다.”<sup>98)</sup> 경무총감부에서는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県 伊三郎) 정무총감, 고지마 소지로(児島 惣次郎) 경무총감, 우사미 가쓰오(宇佐美 勝夫) 내무부장, 오노 도요시(大野 豊四) 군참모장, 무라타(村田 信乃) 총독부 무관, 시오자와 경무부장 등이 모여 선후책을 협의했는데, 이 회의는 2일 오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고종의 국장은 예정대로 거행하는 대신 경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국장 배관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오히려 소동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4. 3월 1일 이후

일본의 잔혹한 진압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인 2일에도 만세운동은 이어졌다. 전날 일제의 무력 탄압에 대한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덕수궁을 중심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며 만세를 외쳤다. 일본 신문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학생이었으며 불온한 문자가 적힌 깃발을 선두에 들고 다녔다. 아마도 ‘대한독립’ 등이 적힌 깃발이었을 것이다. 수십 명의 여학생들은 입에서 입으로 만세를 외쳤고 여전히 ‘대단한 기운’이 서울을 감돌았다. 하지만 만세 군중도 3일 국장일의 아침이 밝아오자 점차 퇴산하였다.

3월 3일 고종의 국장일에는 모두 장례를 배관했다. 아침 안개가 어슴푸레하고 북한산의 삼각 봉우리가 꿈처럼 보이는 이른 시각부터 서울의 공립·사립 소학교, 중학교, 각종 전문학교 학생들과 적십자 사원, 애국부인회원, 재향군인후원회원 등 눈에 띄는 사람들 외에도 열

---

98) 이미륵, 2000, p. 165.



핏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가 양측에 마치 병풍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만세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은 매우 정숙하게 행렬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서울뿐 아니라 조선 각지에서 국장을 배관하기 위해 모인 몇 만 명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 일제 당국은 이 날 모인 사람들이 약 50만 명이라고 추산했다.<sup>99)</sup>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아이고’ 통곡하자 귀가 멀 지경이었다. 전날까지 서울을 뒤흔들던 ‘만세’ 외침은 이제 ‘아이고’라는 통곡으로 대체된 듯 했다. 그 중에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비통함은 사방에 가득 찼다.

고종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떠나 자신들의 국왕이 떠나갔고 또한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많은 조선 사람들을 울렸다. 길거리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우울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추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내전에서는 친족 및 측근들이, 대한문 밖에서는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조선 민중이 각각 자리를 깔고 ‘아이고, 아이고’ 슬프게 부르짖고 대성통곡하며 밤을 새웠다. 통곡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다. 500명의 기생들도 상복을 입고 나와 오랫동안 통곡을 하였으며, 모두 장의까지 스스로 가무음곡을 중지하고 요리점 출장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통함이 온 서울 시내를 차지했다. 국장 기간 동안 경성의 모든 곳은 곡을 하는 장소였다. 이를 보며 김창준은 “언제나 우리도 남과 같이 독립국가의 낙(樂)을 누릴까 하는 것... 언제나 망국민이라는 치욕을 면할까 하는 생각이 합치되어 그 울분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비애는 대한문 앞에 가서 엮드려 한 번 크게 우는 것으로 치료를 받음이다”고 적어두었다.<sup>100)</sup>

국장일 이틀 후인 3월 5일이 되자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으로

99) 러시아 외무성 자료에는 약 30만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박종효,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서울: 선인, 2010), p. 49.

100) 윤소영 편, 2009(a), p. 20, 21, 23, 45, 85; 김창준, 2011, p. 99.

이동하며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과 남대문 근처에서 만세를 외치는 무리가 조금씩 나타났다. 남대문에서 대한문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붉은 천을 왼팔에 끼고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에 일본 경찰은 그들에게 소총사격을 가했다. 소총사격은 이전까지 총검을 휘두르거나 말채찍으로 후려치던 일제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조치였다. 우선 소총사격은 시위군중의 투석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투석을 하며 원거리에서 일제 헌병 및 경찰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소총사격을 가하면 그 파열음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일제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노렸을 것이다. 학생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당국의 짐승같은 잔인한 모습은 인민을 분개시켰다. 평화적인 시위의 조직자들이 조용하고 무저항적인 시위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진출을 ‘무릎꿇고 하는 폭동’으로 바꾸려는 그들의 시도에 평화적인 시위는 자연스럽게 봉기로 바뀌었다.”<sup>101)</sup>

6일이 되어도 조선 학생들은 아무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각 학교의 급장들은 학우들에게 매일 파고다 공원에 모이도록 권유하였고 졸업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설득했다. 월선의 조선 방문설, 고종의 독살설 등 ‘유언비어’가 다시 나돌기 시작했다.

7일 오전 11시 독립문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시각은 고종의 국장 의식이 종료된 시각이기도 하다. 이 날부터는 상인들의 철시와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었다. 상인들은 일제가 강요하여 마지못해 개점할 경우 그들이 사라지면 다시 문을 닫았고, 관청이나 경찰서에 불려가 개점을 강요당하면 개점을 하는 대신 구속된 자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국, 회사, 전차 운전사 등 노동자들도 일을 중단하고 파업을 외치며 만세운동에 참여했다.<sup>102)</sup> 어떤 사람들은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가 봉화를 올

101)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72.

리기도 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2만, 3만 명이 모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에 헌병들은 모여든 사람들을 마구 치거나 통행을 막고 자동차 위에서 총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찌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 5. 운동의 확산: 각 지역 만세운동의 모습

만세운동은 이미 3월 1일부터 서울 외 몇몇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었고 이후 점차 확산되어 갔다. 각 지방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은 지방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건·상황·주체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모종의 질서’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sup>102)</sup> 또한 초기에 만세운동 소식을 전달하고 주도한 사람들에 따라 운동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을 수 있다. 이정은은 당시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시가지 대로상의 만세시위, 시골 장터에서 행한 장터 만세시위, 야간 산상의 봉화시위, 한 장소에서의 1회성 만세시위,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거듭된 연속성 만세시위, 인근 지역을 찾아다니며 행한 만세꾼들에 의한 순회 시위, 지역과 지역이 태극기를 이어 받으며 행한 릴레이 시위, 일제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시신을 떠메고 행한 상여시위, 상점 문을 걸어

---

102) 노동자들의 파업은 3.1운동 이전부터 줄곧 벌어지던 일이었다. 1912년부터 1917년까지 36번의 파업이 있었고 1918년에는 한 해에만 50번의 파업이 일어났다. 만세운동을 벌이며 이들은 “독립을 요구합니다. 파업을 일으킵시다. 조세와 노예적인 임대료를 내지 맙시다. 일본 식민지 착취자들과 어떤 관계도 협력하지 맙시다. 그들의 대표자들의 위선된 약속을 믿지 맙시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을 강화합니다” 등의 뼈라를 유포시켰다.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64, 71.

103) 이정은, 2009, 참고.

잠근 상인들의 철시시위, 학생들의 동맹휴학 시위, 노동자들의 파업시위, 광부들의 순사주재소 습격시위, 어린이 시위, 거지들의 시위, 기생들의 시위<sup>104)</sup>

하지만 각 운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동원과 운동의 진행과정은 상당히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두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3월 어느 날, 그러니까 독립선언서가 정주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오산학교 뒷마당에서 그들 나름의 집회를 갖기로 했어요. 이승훈 장로가 그 집회를 제안했지요... 그날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얀 새 옷을 입고 그 모임에 참가할 준비를 했지요... 우리는 각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었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연단으로 뛰어올라 나라 잃은 슬픔과 분노에 대해 큰 소리로 연설을 했지요... 함성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줄을 지어 학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정주역까지 행진을 했지요. 우리 모두는 목이 설 때까지 독립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 시위행렬이 막 철길을 건너려 할 때 기차 한 대가 우우웅 경적을 울리며 터널을 빠져나와 시위대 앞 건널목에 딱 멈춰서더군요. 갈색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일본 군인이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들은 시위대를 마주보고 일렬로 늘어서더니 배를 깔고 엎드려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탕, 탕, 탕! 워낙 총소리가 커서 우리는 무서움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런데 진짜 총알이 아니었어요. 공포탄을 쏘았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 정주에서는 독립을 위한 집회가 다시 열렸어요. 그러자 일본인들은 확고하고 가차 없는 방법으로 대응했어요. 그들은 진짜 총을 쏘았고 많

---

104) 이정은, 2009, p. 140.

은 사람들이 다쳤지요.<sup>105)</sup> [강조는 인용자]

동원하는 사람은 2천 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안 나 올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명단을 파악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내가 나오라면 다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영균 약방 앞 장터에서 4월 3일 정오에 모이게 합시다. 하루이틀 전에 미리 알려줘서 다른데 가거나 일하지 말고 대기해야 합니다. 바로 전날 밤과 당일날 아침에 회람을 돌리기로 합시다. 우리는 그날 대회식을 시작해서 내가 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영균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하고 낭독이 끝나면 전성렬의 선창으로 만세를 외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만세를 외치면서 도관리로 갑니다. 면사무소와 헌병분견소 출장소가 있는 곳이지요. 이 일은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비폭력 항거이기 때문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관리쯤 가면 헌병들이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만세만 외칠 것이니까 총을 쏘지 못할 것입니다. 헌병 해박야 보조원까지 해서 아홉 명이니까 2천명의 우리를 어찌지는 못할 것이고 춘천에서 헌병을 부르려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헌병분견소를 왕창 깎시다... **이제 조선은 지난날의 나태한 조선이 아니고 새로운 맥박이 한반도에 솟아났으며, 생기있는 민족주의의 각성이 일어났습니다.**<sup>106)</sup> [강조는 인용자]

이 두 만세운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 만세운동의 준비과정과 행적이 상당히 닮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만세운동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만세운동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들

---

105) 1910년 평안북도 출생 강병주(남)의 회고. Kang, 2011, pp. 106~108.

106) 정현웅, 『밧혀도 민들레꽃은 핀다』 (서울: JJ미디어그룹출판부, 2002), pp. 211~212. 독립운동가 김덕원 의사의 실명소설. 창작소설이지만 김덕원의 활동내용이 문헌과 증언을 통해 재구성 되었으며, 실제로 타 지역 운동의 진행과정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면들이 많다.

은 마을 사람들은 당일 모두 흰 옷을 입고 참가했다.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간혹 만세운동 계획이 헌병보조원 등을 통해 일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도로 수선 등 다른 일을 핑계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것마저도 조심스러웠던 사람들은 만세운동 계획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동네 장이 열리는 날, 시장으로 운동의 장소를 정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던 것이다. 모인 사람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졌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연단에 뛰어올라 나라 잃은 슬픔과 분노에 대해 큰 소리로 연설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책자, 격문 등을 나눠주었다. 한바탕 만세를 외치고 나서 사람들은 줄을 지어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은 주로 면사무소나 경찰관서쪽으로 향했다. 행진을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났고 그들 모두는 목이 설 때까지 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 일본 군인들이 나타나 공포탄을 쏘며 사람들의 해산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진짜 총을 남발하고 총검을 휘둘렀다. 조선 군중이 가진 것은 길가에 있는 돌맹이들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들 간 일정한 행동 양식이 관찰되는 것은 운동의 주동 세력이 각자의 만세운동을 준비할 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운동 소식을 듣고 이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계획하는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들과 동질성을 유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었다.<sup>107)</sup>

3.1운동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흰 옷’을 꺼내 입고 거리에 나서며 또 다른 방식으로 동질성 혹은 동일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생활

---

107) David Snow and Robert Benford,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ldon Morris and Carol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 133-155.

했었다고 알고 있지만, 개화의 물결 속에서 20세기 들어 조선의 복색은 상당히 다양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운동 현장의 ‘흰색 물결’은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넘어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VI장에서 좀 더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 Ⅲ. 3.1운동의 참가자: 민족 담론의 담지자들

이 장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만세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듯 담론의 형성 및 세력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부 지도 세력만이 아닌 모든 개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이뤄진다.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3.1운동 역시 그것이 확산되고 대중화되는 데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 1. 33인의 민족대표

3.1운동을 계획·조직했지만, 막상 3월 1일 당일에는 조선 군중이 모여 있던 파고다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제창한 민족대표들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신용하는 당시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아 민족대표들이 취한 비폭력적인 운동 방법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또한 현명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실질적으로 3.1운동을 계획·조직하였고 운동의 시작을 도모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연태·이운상·이지원은 민족대표들은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사상의 한계” 때문에 운동의 주도세력이 될 수 없었고, 또한 외세 의존적이고 타협적인 성격 때문에 민중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sup>108)</sup> 전상숙 역시 민족대표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인식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자주적인 입장에서 ‘불가능한 투쟁’을 하기보다는 서구열강에 의지하고 일제와 ‘평화적 방식으로 공존’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그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

108) 신용하, “3.1운동의 재평가,” 안병직 외, 『變革時代의 韓國史: 開港부터 4·19까지』 (서울: 東平社, 1979); 정연태·이운상·이지원,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한국역사연구회,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서울: 청년사, 1989).



논하였다.<sup>109)</sup> 이에 반해 이정은은 민족대표들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및 학생층을 연대하도록 하여 독립운동의 일원화를 가져왔으며 운동의 3원칙을 내세운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만세운동의 날짜를 국장일 전으로 선택했고, 독립선언서를 2만 매 이상 인쇄하여 각 지방으로 배포하였으며, 가두시위와 같은 비폭력 노선을 제안하여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한 점을 지목하였다.<sup>110)</sup>

신용하와 이정은의 주장처럼 3.1운동을 일으킨 민족대표의 의의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몇몇 소극적인 모습들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커트 랑과 글래디스 랑(Kurt Lang and Gladys Lang)은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사회운동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이지만 불충분한(necessary but insufficient) 요인임을 주장했다. 버트 클랜더먼스(Bert Klandermans)는 사회적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운동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sup>111)</sup> 즉, 당시 조선 사회는 일제의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 등 어떠한 집합적 행동을 야기할 만한 사회구조적 요인 및 불만이 팽배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실행에 옮길 지도세력이 없었다면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도 세력은 그들이 추진하는 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규정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행동에 대한 지침과 예시를 제공하는 등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민족대표처럼 종교인들이 사회운동을 이끌 경우 도덕적 정당성(moral legitimacy)도 확

109) 전상숙,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3.1운동기 심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개념과 소통』, Vol. 2, No. 2 (2009), pp. 35~61.

110) 이정은, 2009, pp. 136~139.

111) Kurt Lang and Gladys Lang, *Collective Dynamics* (New York: Crowell, 1961), pp. 517~524; Bert Klandermans, “The Demand and Supply of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Correlates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in David Snow, Sarah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Malden, MA: Blackwell Pub., 2004), pp. 360~379.

보할 수 있다.<sup>112)</sup>

그런데 민족대표들은 만세운동의 비폭력 전개 원칙 제시했다고 하여 독립을 지향함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이에 대해 김용직은 민족대표들이 비폭력 노선을 취한 것은 그들이 가진 계몽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서구의 자유, 평등, 정의, 합리, 인도주의, 비폭력 개념을 만세운동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sup>113)</sup> 하지만 비폭력 노선은 민족대표들의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제임스 룰(James Rule)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집합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참여 한계점(threshold), 즉 거부감, 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sup>114)</sup> 주도세력에 의해 운동이 이뤄지면, 대중은 이를 보거나 얘기를 전해 듣고 운동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때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要)한다면, 참여 한계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족대표들이 내세운 비폭력 노선, 즉 만세를 부르고 시가를 행진하는 행동, 은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참여 한계점은 낮았다. 즉, 민족대표들은 3.1운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종교계와 학생층의 일원화를 이뤄냈으며, 만세운동 시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국장일 근처로 정하여 초기 대중 동원에 성공하였다. 또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의 행동 예시를 제시하여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

112) Robert Leiman and Rober Wuthnow, *The New Christian Right: Mobilization and Legitimation* (New York: Aldine, 1983).

113) 김용직, “3.1운동의 政治思想,” 『동양정치사상사』, Vol. 4, No. 1 (2005), pp. 47~66.

114) James Rule, *Theories of Collective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ill and Rothschild, 1988), p. 193.

둘째, 피터 아이싱어(Peter Eisinger)가 주장하였듯,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이를 저지하려는 국가와 같은 권위세력은 이들을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처럼 폭력적인 행동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운동이 공격적·폭력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려 한다. 폭력은 행하기는 쉽지만 이에 대한 역압을 정당화시킴으로서 운동의 목적을 잃을뿐만 아니라 더 많은 희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폭력의 힘은 그것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있다.<sup>115)</sup>

또한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식민주의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제로는 식민주의가 내세우는 가치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sup>116)</sup> 난디 역시 식민지 폭력에 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식민지 지배자들이 세워놓은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고, 이에 원래의 민족주의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기 쉽다는 주장을 했다. 즉,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지배자의 규칙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은 피지배자들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영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규칙에 기반을 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지배자들의 허점을 공략하고 상황을 피지배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형성하며 식민 지배자들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117)</sup>

만세 군중의 비폭력 운동은 일제 당국에게 상당히 난감함을 안겨주는 행동이었다. 조선인이 폭력을 사용해야 이를 진압할 텐데, 조선인이 비폭력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그들을 탄압할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다소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

115) Peter Eisinger,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No. 1 (March 1973), pp. 11~28.

116) Robert J. C. Young, *Postcoloni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602.

117) Nandy, 1983, p. 18.

체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교묘하게 이를 알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왠지 기분 나쁠 정도로 그들은 온건한 운동을 행하고 있었다,” “특별히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므로 병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결국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sup>118)</sup>라는 일제 군경의 불평은 민족대표가 내세웠던 비폭력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셋째, 비폭력 시위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audience)을 염두에 두는 행동이다. 로버트 영(Robert Young)은 폭력에 반대한 간디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폭력이 일상적으로 현존하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sup>119)</sup> 이를 두고 최정운은 폭력 행사를 바라보고 그 광경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불의와 사악함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전술”이었다고 평가했다.<sup>120)</sup>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항상 현장에서 운동의 추이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있었음은 이미 II장에서 밝혔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내세운 평화적인 시위를 외국인들이 보고 본국에 알려 독립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세계의 모든 신문이 우리의 대규모 대중시위를 보도할 것이다. 열강들이 베르사유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선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양심이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들려주었다. 만일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해서 그의 입장을 강화해주기만 한다면 윌슨 대통령은 파리평화회의에서 조선을 편들 것이다.<sup>121)</sup>

---

118) 윤소영 편, 2009(a), p. 118, 148, 149.

119) Young, 2003, p. 567.

120) 최정운, 1999, pp. 159~160.

121) Wales, 2005, p. 87.

당시 운동의 주도 세력은 “우리의 집회가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월슨 대통령과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한 열강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sup>122)</sup> 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폭력 노선을 따르도록 종용하고 있었다. 비폭력 운동 노선을 추구하며 당시 세계사적 흐름인 평화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연설은 비폭력의 힘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사띠야그라하(Satyagraha)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봉인하는 것이 될 겁니다.”<sup>123)</sup>

정리하자면, 민족대표들은 3.1운동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과 더불어 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가능하게 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민족대표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소극적이었다는 다소 모순적인 평가를 내리곤 한다. 이는 민족대표들이 내세운 비폭력 운동 노선을 폭력은 적극적, 비폭력은 소극적이라는 이분법적인 규정과 함께 민족대표들은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판단한 결과라 생각한다. 살펴본 것처럼

---

122) Wales, 2005, pp. 86~87. “그들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월슨 대통령은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위해 싸우고 있고 모든 나라와 모든 인민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다. 대통령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국민이 버티고 서 있다. 일본이 조선을 노예화하는 것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독립과 민주주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무기를 든다거나 폭력을 써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거부될 수가 없다. 조선독립 만세!” 이 인용문은 당시 비폭력 노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운동의 비폭력 노선을 견지한다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정당성을 갖을 수 있고 조선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3) 1930년 3월 17일 아난드에서의 연설. 재인용: Chatterjee, 1993, p. 235.

럼 민족대표들이 내세운 비폭력 만세운동은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고 일제의 탄압을 저지하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운동이 시작되고 난 뒤의 주도 세력의 역할을 두고 흡스봄은 어떠한 조직을 갖춘 주도자가 없다면 대중운동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와해된다고 주장한 반면, 프랜시스 피븐과 리차드 클로워드(Frances Piven and Richard Cloward)는 이런 주도 세력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동원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이 가진 핵심적인 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sup>124)</sup>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떠나 3.1운동은 민족대표들이 운동의 유일한 주도자가 아니었다. 이에 3.1운동은 그 핵심적인 힘을 잃지 않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었다.

## 2. 지식인층과 학생

흔히 일제 통치에 대한 불만은 민중만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가 규정한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은 지식인층, 즉 인텔리겐차(Intelligentia) 내에서도 상당했다.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에서는 “조선 인텔리겐차는 출생신분에 따르면 상당히 귀족계급에 속하였어도, 사회신분에 따르면 소부르조아지에 속하였다”고 논하였다. 일제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실력과 능력에 맞는 지위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는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던 까다로운 근무 조항들이 있었다. 조선인 의사들은 3류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고, 개인 병원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도시 외곽에서 조선인 빈민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조선인 변호사들은 사회 문제와 관련이

---

124) Eric Hobsbawn, *Primitive Rebels: Studies in Archaic Forms of Social Movement in the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ies* (Manchester, Englan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9); Frances Piven and Richard Cloward, *Poor People's Movements: Why They Succeed, How They Fail* (New York: Vintage Books, 1979).

없는 소송만을 다룰 수 있었다. 조선인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고, 근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비교하여 임금 차이도 현저했는데, 예를 들어 “조선인 선생은 일본인 선생보다 2배나 적게, 거의 학교의 무식한 일본인 기술 노동자들이 버는 정도를 받았다.” 이에 상당수의 조선 지식인들은 망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고, 현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sup>125)</sup>

II장에서도 보았듯, 학생들은 3.1운동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후 운동의 참여와 확산에 이르기까지 운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1919년 당시 학생들의 총 수는 약 12만 명으로 그 중 약 8만 명은 보통학교, 나머지 약 4만 명은 보통학교 이상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와 학생층 규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보통학교는 570개로 관립보통학교 2개, 공립보통학교 535개, 사립보통학교 33개였다. 당시 총 학생수는 관립 285명, 공립 76,918명, 사립 3,295명으로 총 80,632명이었다. 일제의 교육정책은 조선인들에게 보통학교 이상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학교들 중 사립학교의 수가 적었던 반면,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였다.<sup>126)</sup> 총 799개의 보통학교 이상 학교들 중 관

125)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50.

126) 일제는 보통학교는 “상급학교의 예비학교가 아니며,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보통학교를 졸업하여 대체로 교육을 완료하는 체제”라고 말했다. 오성철,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 21.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들이 보통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에만 부정적이었을 뿐 보통학교에 들어와 일정기간 일본식 교육을 받는 것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인들에게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고 두려운 것이었다. 다음의 회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숨어라 숨어라! 순검 잡으러 올라!> 순사나 헌병 보조원들의 제 키 만이나 한 장검이 동리 밖계만 번쩍여도 이런 탐보가 각 서당에 짝 퍼진다... 장검을 앞세운 면서기, 구장, 군청 고원가튼 사람들이 시시로 서당을 습격하여 잡히는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까닭이다. 머리깎기는 죽기보다 실코 학교에 다니면 나중 일본 병정으로 뽑혀간다는 바람에 학교라면 금방 병풍을 하얏다.” 『동아일보』,

공립 학교들은 관립남자고등보통학교 5개,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2개를 포함해 총 109개뿐이었다. 보통학교 이상에 다니던 학생들은 약 40,000명 정도였는데 이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약 35,000명이었다. 사립남자고등보통학교는 총 7개가 있었는데 서울에 4개, 개성에 1개, 동래에 1개, 평양에 1개가 있었다. 그 중 서울의 휘문고등보통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2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립여자보통고등학교는 총 4개가 있었는데 서울에 3개, 개성에 1개가 있었다. 사립학교의 상당수는 종교단체와 연관된 것들이 많았는데 총 260개 학교에 14,896명의 학생이 있었다.<sup>127)</sup>

각종 사립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약 50명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교사의 91%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휘문의숙, 서북학회부속학교, 봉명학교, 양정의숙, 보성전문학교 등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거의 매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공부해야 한다. 국권흥복(國權興復)은 너희들의 힘에 달렸다. 부디 공부하거라. 일본은 한국을 망하게 했다. 즉, 정부를 장악하고 관직을 빼앗았으며 토지를 약탈하였다. 실로 일본은 이천만 동포의 원수이다. 반드시 타살(打殺)한다고 각오해야만 한다. 너희들은 이를 잊지 말고 깊이 머릿속에 새기면서 공부하거라”고 말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스스로도 일본을 ‘원수’라고 부르고, 일본인이 적은 북부지역에서는 아주 어린아이들까지도 길 위에서 일본인과 이야기하는 조선인을 보면 ‘저놈도 원수놈이니 모두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사립학교는 마치 배일사상양성소”라고도 불리었다.<sup>128)</sup>

1910년 공업전습소 학생들이 운동회를 했을 때의 일화도 전해

---

1930년 4월 2일. 재인용: 이정은, 2009, p.103. 이처럼 일제는 향촌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서당교육을 제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통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서당 교육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1년 서당수는 16,540개였는데 1919년에는 24,030개로, 학생수는 141,604명에서 275,920명으로 거의 배가 증가하였다. 이정은, 2009, p. 102.

127) 이정은, 2009, pp. 104~108.

128) 국사편찬위원회 편, 『통감부문서(1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0), pp. 571~572.



진다. 당시 2년급 반장이었던 성흥석은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각각 다른 업무에서 착실히 공부할 것이나, 이 시대의 시세를 본즉 통곡하고 한탄함을 견디지 못할지라. 우리나라의 앞길을 두 어깨에 짊어진 우리 청년은 그 학과에만 힘쓰지 말고 일의 늦고 빠름에 따라 우리 대한독립을 기약하고 아무쪼록 분발하여 나랏일을 하자”며 연설을 했다. 이에 학생들 모두가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대한제국 만세를 세 번 불렀다고 한다.<sup>129)</sup> 이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와 그 미래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으며 독립을 이루고자 함을 서로 확인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독립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던 학생들은 1919년이 되자 일단의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YMCA 학생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sup>130)</sup> YMCA 학생 조직은 1910년대 유일한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1899년 가을 관립 외국어학교 등에 다니던 150명의 학생들이 구성하여, 1901년에 공식화 되었다. 이후 여름마다 열렸던 연합수련회인 ‘하령회’를 개최하면서 점차 조직을 확장했다. 이 단체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박희도와 이갑성이 속해 있었는데 이갑성은 1919년 1월 중퇴할 때까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학생이었고 박희도는 당시 YMCA 학생운동의 지도자였다.

1919년 1월 22일 고종의 급서 발표가 있는 뒤, 1월 27일 박희도는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등의 대표급 학생들 10명을 중국음식점 대관원으로 불러 모았다. 당시 YMCA 최우부 위원으로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연희전문학교 김원벽과 경성의학전문학교 한위건, 김형기 등이 모임이 성사될 수 있도록

129)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9일.

130) YMCA 학생 조직과 이후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장규식, “YMCA 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 20 (2002), pp. 108~140;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서울: 개벽사, 2002), p. 701.

도왔다. 이들은 모임 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지금은 세계정세가 변하였으니 우리도 독립운동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독립운동을 함께 하기를 확인했다.

이후 이승훈으로부터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 독립운동 추진 소식을 들은 이갑성이 2월 12일 자신의 집에 YMCA 학생들을 불러모아 이 소식을 알리며 독립운동 추진을 제시하였으나, 2월 23일 박희도가 학생 단독의 독립운동 계획을 보류하고 민족대표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제안하였고 그렇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때부터 YMCA 학생들은 각자의 인맥을 활용하여 다른 청년조직인 서북학생친목회, 교남학생친목회 등과 연합을 이뤘다. 또한 경신학교, 휘문고보, 경성고보, 중앙고보, 선린상업, 보성고보 등 다른 학교학생들과도 접촉하여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2월 28일 밤 강기덕과 한위건은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기 위해 중등 이상 학교 대표자들을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의 집으로 불렀다. 둘은 이갑성이 세브란스의전 학생 김성국을 통해 승동교회로 보낸 1천 5백 부와 김문진이 정동교회로 직접 가져온 1천 부의 독립선언서를 학교별로 나눠주며 각각 배포할 장소와 일시를 정해줬다.

이처럼 각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독립에 대한 의식을 고취 받고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던 학생들은 3.1운동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YMCA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학생 및 지식인, 청년들 간의 연합을 이뤄내며 서로의 연계를 공고히 했다. II장에서 이미륵의 회고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일부 학생들은 독립운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이에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합은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추진된 면이 있다. 하지만 ‘민족’과 ‘우리나라’라는 이름하에 ‘전 민족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하나의 준거 틀(a frame of reference)이 마련되자 그들은 새롭게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고, 3.1운동의 주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었다.

### 3. 재탄생하고 있던 민중

사회운동에 있어서 민족대표와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중의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 서재필은 1884년 갑신정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민 의지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에 독립협회를 세운 직후부터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회, 토론회 개최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설회와 토론회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종종 몇 천 명의 군중이 모이기도 했다. 찬반을 다투는 토론회와 주장을 개진하는 연설회에서 지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논리는 함께 참여하고 있던 일반 민중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다.<sup>131)</sup>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일깨워진 민중의 모습은 1898년 말 만민공동회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과 같으면 청중에 불과하였을 소학교 학생(11세 장용남), 백정이 연단에 올라 정부의 조치를 반박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수구파처벌, 수구파관료 저택 공격, 조칙거부 등 기존에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과격한 내용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연설 뒤에는 종로 등 시내에서의 철야, 고등재판소에의 항의시위, 가두선전과 같은 실력행사가 이어졌다.<sup>132)</sup>

이처럼 당시 상황은 이미 독립협회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지도부는 만민공동회의 투쟁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태훈은 “이렇게 정치에 발언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자기의

---

131) 이정옥,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Vol. 43 (2010), pp. 175~197.

132) 윤치호, 2001. 1898년 11월 13일.

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하고, 그러한 양상을 다시 거대한 정치투쟁으로 연결시켰던 경험은 독립협회 해산과 별개로 그 공간에 참여하였던 존재들에게 다양한 기억을 남겼다. 우선 만민공동회를 통해 정치적 주체화의 경험을 갖게 된 수많은 무명의 인민들에게 공개연설회라는 열린 정치공간의 경험은 스스로를 의미있는 정치적 존재로 재인식하게 하는 순간이었다”<sup>133)</sup>고 평가하였다. [강조는 인용자]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였던 장응진(당시 영어학교 학생, 19세)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때까지 천백년 동안 제국 전제정치에 젖어, 관리 앞에서는 평민의 몸으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당황했던 것이 인민의 사상이었는데, 19세의 학생으로 십부대신을 앞에 놓고 정부의 매국적 행동을 여지없이 공격하여, 몇 만 명의 군중의 박수와 노호를 들은 경험은 일생일대 가슴 시원하고 핏줄기 들뛰는 경험이었다.<sup>134)</sup>

이처럼 집회나 연설은 대중에게 “오랫동안 엄격한 정부에 의해 박탈당한 흥분과 무언가에 참여하고 싶은 감정을 제공했다.”<sup>135)</sup>

이후에도 민중의 각성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정치적 입지가 미약하고 불안정했던 동학 역시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다.<sup>136)</sup> 윤시병, 염중모, 윤갑병 등 독립협회 출신들이 다수

133) 이태훈, “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No. 27 (2012), pp. 7~32.

134) 『별건곤』, 1929년 6월.

135) Henderson, 2000, p. 133.

136)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자강회의 경우 유식층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고, 지회도 부는 100명 이상, 군은 50명 이상의 회원 수를 확보해야만 설립이 허가되었다. 전재관,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오학회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Vol. 10 (1997), pp. 153~193. 계몽운동 단체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회를 열기 시작한 것은 일진회가 세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던 1905년 이후이다.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

포함되어 있던 일진회와 연합한 진보회, 즉 (통합)일진회는 처음부터 연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집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토론회와 연설회 같은 ‘지식 노출’은 민중을 깨어나도록 했다. 이태훈은 이들이 점차 “각종 연설회에서 들은 내용을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137)</sup>

하나의 예를 소개하자면, 1909년 일진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조영규는 황해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연설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황태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할 때는 청중의 호응을 얻었지만, 일본 보호에 의해서만이 한국민은 생존할 수 있으며 대한매일신보는 읽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같은 청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다.<sup>138)</sup> 조선 민중은 이제 지식인들의 연설을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수동적인 청중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파농은 연설을 하고 신문에 글을 쓰는 지식인층을 비롯한 민족운동 지도세력은 비록 식민지 지배세력을 완전히 타도해버리겠다는 의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민중은 현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도세력들의 언어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민족의 언어로 전유되고, “다시 한 번 꿈이 고취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sup>139)</sup> 이처럼 토론회와 연설회를 통해 깨어나던 조선 민중은 ‘매국노’와 ‘일제’를 비난하고 쫓아내는 ‘꿈’을 꿀 수 있는 하나의 인식 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크게 민족대표와 지식인 및 학생, 그리고 민중의 세 그룹으로 나눠 각자가 어떠한 방식

---

사상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 145~149.

137) 이태훈, 2012.

138) 1909년 10월 4일, 「<고비 제 5337-1> 조영규의 황해도 유세 보고건」, 재인용: 이태훈, 2012.

139) Fanon, 2004, p. 90.

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3.1운동에 나섰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물론 본 장에서 모든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논리를 빠짐없이 논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담론의 장(場)에는 모든 개인들이 포함되지만 이것이 곧 개인들 각각에 대한 합계(aggregat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슈츠는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세계 속에서 구성되고 조직화된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들은 권력의 담지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조화된 권력의 그물 속에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본 장에서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담론이 존재했으며, 이 담론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역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민족대표들은 3.1운동을 계획하고 시작하며 민족주의 담론을 공론화시켰다. 여기에 지식인과 학생, 그리고 민중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담론에 노출되었고, 이를 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고 재생산하였다.

지금까지 3.1운동과 민족 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앞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현하고 이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장들에서는 이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었으며, 3.1운동이란 사건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 IV.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사이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저항에 있어 주목할 만한 노력들로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현상이,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그 공통의 목표가 민족 자결과 독립이었던 결사체와 정당들이 창출하는 현상이 19세기의 알제리, 아일랜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무장 저항과 나란히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sup>140)</sup> 이와 같은 현상은 20세기 초 조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선에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민족 자결과 독립을 외친 결사체 혹은 정당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민족 자결과 독립을 외친 당시 조선의 결사체 혹은 정당으로 본 논문에서는 천도교를 그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보았듯 3.1운동은 민족대표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중 천도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천도교주 손병희를 주축으로 하여 권동진·오세창·최린은 3.1운동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최린의 주도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조직간 연합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 조직과의 연합도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독립선언문은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사에서 2만 1천매가 인쇄되었고, 그 외에 각종 운동 자금 조달 역시 천도교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동학·천도교는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지지했다가 다시 1919년엔 독립운동의 최선봉에 선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141)</sup>는 헨더슨의 지적처럼 상당히 모순적인 행보를 걸어온 집단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천도교의 역사적 행보를 검토하고, 어떻게 3.1운동을 계획·실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

140) Said, 1993, p. 8.

141) Henderson, 2000, p. 123.

민족주의 담론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빌헬름 시대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치노선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인 ‘부정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 논의를 동학·천도교에 적용하여 살펴보려 한다. ‘부정적 통합’은 하나의 집단이 세력을 확장하거나 공고히 하려고 할 때 자신과 동일한 성격이나 비슷한 노선을 추구하는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세력과 협력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sup>142)</sup> 물론 동학·천도교의 역사적 행보는 사민당의 정치노선 변화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사민당이 자신의 초기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제도에 ‘부정적으로 통합’되어 갔다면, 동학·천도교의 행보는 마치 도마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꼬리를 자절(自切, autotomy)하며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재생(再生)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과 같았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142) 1875년 설립된 사회민주당은 지배 세력에 의해 줄곧 ‘조국 없는 무리들(vaterlandlose Gesellen)’이라 불리며 정치공간에서 소외된 불법화된 정당(outlawed party)이었다. 사회민주당의 초기 목표는 국가 기관의 전복과 정치 투쟁을 통해 사회 개혁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정치 투쟁 대신 의회 공화제의 옹호자(defender of the parliamentary republic)가 되며 점진적인 개량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등 사회민주당 스스로 거부하였던 국가 안으로 통합되어 가는 행보를 보였다. 귄터 로스(Guenther Roth)는 사회민주당의 다양한 운동 노선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목적들을 추구하도록 하여 점차 혁명적인 자세를 잃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두고 로스는 사회민주당이 독일제국의 정치질서에 ‘부정적 통합되었다(negatively integrated)’고 묘사하며 처음으로 ‘부정적 통합’이라는 말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민주당이 국가 내 국가(a state-within-a-state)가 되며 혁명적인 노선에서 멀어져 갔다는 로버트 미헬스(Robert Michels)의 주장과 같은 논리라 볼 수 있다.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2005); Guenther Roth, *The Social Democrats in Imperial Germany: A Study in Working-Class Isol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Totowa, NJ: Bedminster Press, 1963); Robert Michels, trans. Eden and Cedar Paul,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Hearst's International Library Co., 1915).



### 1. 3.1운동 이전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

이미륵의 회고담이 담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보면 조선 농민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는 한 곳에 모여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번갈아 가며 읽는 소설 애기를 했다고 한다.

그 소설의 내용은 대부분 주인공이 **죄없이 구박받는** 구식 소설이었다. 남의 모함을 받고 쫓겨난 주인공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마침내 이곳 저곳으로 방황하며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엔 현명한 은자를 찾아가 그의 도움을 받게 된다. 나중에 이 주인공은 자기도 현자가 되어 임금에게 초빙되고 높은 세도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여 다시금 고향에 돌아와 다른 모든 사람의 부러움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다. 모든 소설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다. 그렇지만 농군들은 그러한 소설을 언제나 또다시 되풀이하여 읽곤 하였다. **그때마다 착하고 죄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불행에 흥분했다.** 그들은 소설을 아주 엄숙하고 신중히 읽었다. 구절과 내용에 따라 어느 때는 높게, 어느 때는 낮게 또는 슬프고 명랑하게 노래하듯이 읽었다. 밤이 조용해지면 조용할수록 이 낭독은 더 감정적으로 되어 멀리서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sup>143)</sup> [강조는 인용자]

1899년생인 이미륵의 어릴 적 회고이니 이는 아마도 1900년대 초반 조선의 모습이라 추측된다. 이처럼 당시 농민들은 한없이 비참한 현실에 슬퍼하고 분노에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꿈꾸고 있었다. 이에 이미륵은

---

143) 이미륵, 2000, pp. 121-122.

새 왕조가 이룩되기만 하면 다시 좋은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모든 농민들은 믿고 있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보다 더 화려한 앞날을 상상할 수가 없었지만 굳이 반대는 안 했다. 더욱이 내가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그분들에게 반대한다는 것은 불손하게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이다<sup>144)</sup>

라고 회고하였다. 이 회고를 두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 기존의 왕권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를 원했던 당시 조선의 정치사상을 반영한다는 등의 해석은 잠시 유보해 두려 한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농민들은 ‘다시 좋은 세상이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며, 하지만 ‘보다 더 화려한 앞날을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현실 속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계층을 떠나 모두가 살기 힘든 곳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이 국망 혹은 20세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나타났던 것이라면 어쩌면 조선 사람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동안 지속되어 왔다. 저상일월의 일기가 시작된 1834년 1월에도 이미 “걸인 부자(父子)가 길에서 서로 껴안고 ‘추워 추워’ 하다가 모두 얼어 죽었”고, “떼강도가 노상에서 사내아이를 죽이고 1냥(兩) 반을 빼앗아 달아”나고, “춘내면(春內面)에서 도적 세명이 집주인 형제를 죽이고 재산을 털어”가는가 하면 “장수원에 사는 이씨네 집에 화적(火賊) 30명이 들어 발을 판 돈 400냥을 고스란히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해의 왕조실록을 보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서울 거리에 시체가 낭자하다. 얼어 죽은 송장 1005구, 버려진 시체 806구”란 기록이 있는 가하면,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등 36읍역(邑驛)에 굶는 백성 51만 9094 구(口)”였다고 적혀있다.

---

144) 이미륵, 2000, p. 120.

이 당시 조선의 총 인구는 675만 정도였는데 그 중 경상도에서만 약 1/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것이다. 소도둑, 쌀도둑은 물론 노상에서 옷을 벗겨가는 옷 강도까지 있었다.<sup>145)</sup> 그리고 이러한 생활상의 어려움은 사회분열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저상일월의 일기를 쓴 주인공 박씨 집안은 누대의 선비요, 천석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소작인들의 행패에 항시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1838년 8월 17일 일기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간교하여 굶은 이삭만 바치고 좋은 곡식은 씨앗으로 놔두는 것이라 속인다. 그러니 소작 준 사람들은 모두 가진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46)</sup> 그동안 우리는 지주의 횡포에 당하고 살았던 상대적 약자인 소작농들의 애처로움만을 그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작농 중에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이 일기의 기록은 그것이 비단 일제 침탈 이후에 나타난 일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지주는 지주대로 소작농은 소작농대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회 분열은 더욱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빈곤과 함께 찾아온 사회 분열은 농촌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1839년 8월 서울에서 돌아온 저상일월의 글쓴이는 서울에서 여관의 주인이 못 먹여 주린 기색이 역력하였음을 보았고,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보니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만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적어두었다. 또한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들은 온통 두렵고 한숨만 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친구 정모(丁某)의 노자(路資) 1냥을 여관방 귀짝 속에 넣어 두었는데 자물쇠를 열어보기 없어졌다. 인심(人心)이 이러하니 매우 두렵다,”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 보니 거처할 방이 흙과 모래로 뒤덮여 있고 뱀과 도마뱀이 침노하여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없다. 그 누추함은 정말 어디다 비할 수

---

145) 박성수, 『渚上日月: 117년에 걸친 한국 근대생활사』 (서울: 민속원, 2003), pp. 22~23. 이 책은 1824년부터 1950년 초까지 박한광으로부터 시작해 6대에 걸쳐 기록된 일기를 박성수가 편집하여 모아둔 것이다.

146) 박성수, 2003, p. 27.

도 없다.”<sup>147)</sup>

또한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장에서는 ‘커닝’이 사사로이 일어났고, 그렇게 뽑힌 관리들은 모두 탐관오리가 되었다. 벼슬의 매 관매직은 빈번히 행해졌다.<sup>148)</sup> 1904년에는 명성황후 추모를 위해 장호원(長湖院)에다 궁을 신축한다는 명목 하에 전국 360개 고을에서 각 고을 당 3,500~4,000냥씩 모금이 강요되었다. 하지만 이는 국왕도 모르는 몇몇 대신들이 작당한 일이었고, 이를 시작한 자는 북도관찰사 윤헌(尹憲)이었다.<sup>149)</sup> 자신이 섬기는 황제를 속이고 그 속이는 수단에 황후의 추모를 삼으면서 그가 바란 것이 단지 돈이었다는 사실은 허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또한 더 이상 조선의 지배층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당시는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의 분열이 존재했다. 헨더슨은 조선은 “경제적으로는 파산상태였으며 나라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었다”고 평가했다.<sup>150)</sup>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지만 이후 조선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만민공동회가 열리는 등 민심은 더욱 동요했다. 사회질서는 더욱 와해되어 “도적을 맞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이 곳곳에 퍼져가고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 버리는 변고가 빈발”하였고 “행로(行路)에서 왕왕 사람을 죽이는 변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1900년에 들어 값비싼 공산품이 시골장터에서 거래되면서 다른 물건들의 물가도 덩달아 상승하여 ‘100가지 물가가 10배나 뛰어올라’ 농촌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의 현실 속에서 경제적 여유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유학을 떠났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골을 벗어나 서

---

147) 박성수, 2003, p. 36.

148) 1862년 4월 21일 일기에서는 “삼남(三南)의 43개 군 관원(官員)들이 모두 탐관오리라는 점에서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적혀있다. 1897년에 이르러서는 벼슬의 청탁을 피하거나 요구한 자들이 넘쳐났으며 “벼슬길이 몇 배나 값이 뛰었는데 도리어 김홍집(金弘集) 때가 그림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수, 2003, pp. 86, 237~238.

149) 박성수, 2003, p. 333.

150) Henderson, 2000, p. 119.

울로, 반대로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왔다갔다 생활을 했고, 이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조선땅을 떠나 만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1910년에는 10만 정도였던 간도의 인구는 1918년에는 60만 가까이 되었다.<sup>151)</sup>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회의 분열은 점차 가속화되었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라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명확한 대립 구도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내가 상대해야 할 ‘적(敵)’이 명확해지지 않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상정되었고 ‘아(我)’는 자기 자신 이외에는 규정될 수 없었다.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뒤, 많은 조선인들은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여 일본인들과 싸웠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독립군이라 불렀어요. 군자금 조달하기 위해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냈지요... 그들은 의병들이 돈을 가지러 올 것이니 미리 준비해놓으라며 욕박을 질렀어요. 그런데 돈을 내주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의 가장은 의병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한 푼도 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을 죽여버렸어요.<sup>152)</sup> [강조는 인용자]

독립운동을 내세우던 사람들은 부자 집의 문을 두드리며 “너희들의 소유재산은 장차 우리 손에 넘어올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땅살 돈이 있으면 독립운동비로 내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고 위협했다.<sup>153)</sup> 이처럼 나라를 빼앗은 일본과

---

151) 박성수, 2003, pp. 271, 295, 418~419.

152) Kang, 2011, p. 37.

153)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서울: 모시는사

의 대결이 조선인들 사이의 대결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일본이 시행한 조치들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권익을 누리게 된 조선인 지주 혹은 관리들은 종종 일본인들보다 더 교활하고 치밀하게 조선 민중을 괴롭혔다. 이에 일제와 싸우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독립군은 그 대결 이전에 현실적으로 자신을 더욱 괴롭히던 조선인들과의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또한 ‘돈을 내주고 싶지 않았던’ 조선 지주나 관리들에게 독립운동을 위해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병들 혹은 독립군들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한 푼도 내어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에게 돈을 내어주어 일제가 피해를 입고 그동안 시행해 오던 조치들에 변화가 생긴다면 자신들이 누려오던 권익은 사라질 수 있었고, 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피지배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 파농은 “원주민이 품속의 칼을 빼는 것은 다른 원주민이 그에게 조금이라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눈길을 보냈을 경우다. 원주민에게 최후의 수단은 형제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피적인 행동방식을 통해 피지배자들은 “식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게 전과 같다고” 스스로 위안을 갖는다는 것이다. 파농은 “마치 혈육상잔에 전념하는 것이 눈앞의 장애물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식민주의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문제와 관련된 불가피한 선택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위안을 갖도록 해준다고 역설했다.<sup>154)</sup>

살펴본 것처럼 당시 조선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붕괴와 내부적 갈등이 내재해 있었다. 이를 가속화 한 것은 일제가 실시한 연대보증 체제였다. 이는 주민 열 가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이들의 우두머리로 권력의 대리인을 세우는 제도였다. 일제 판단 하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리인뿐만이 아니라 이렇

---

람들, 2013), pp. 556~7.

154) Fanon, 2004, p. 74, 93.

게 하나의 단위로 묶여진 열 가구 모두 서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했다. 이들은 조세 납부 등 일제의 행정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견해와 사적 감정까지도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받았다. 때문에 모든 수상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일제 경찰에 보고해야 했다. 특히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사상적으로 위험한 것’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반국가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선 사람들의 단결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불신과 의심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단절된” 사회를 만들었다.<sup>155)</sup> 이와 더불어 조선인 가운데서 뽑힌 헌병보조원은 “이들의 기세(氣勢)가 일인(日人)보다 더 심하여 향중(鄉中)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봉변을 당하였으며 “조총(鳥銃)을 색출하고 재전(財錢)을 토색(討索)하는 폐단이 일인(日人)보다 더 심하”였다.<sup>156)</sup>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조선인들은 나의 한풀이 혹은 분풀이 대상이 조국을 빼앗은 일본인이 되어야 할지 내 주변에서 일본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더욱 악랄하게 괴롭히는 조선인이 되어야 할지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혼란을 해결하고 지도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었다.

국망과 함께 그동안 견지해오던 과거의 지식이 부정되며 이후 지속된 계몽운동은 종종 서구 문명을 ‘참다운 사람’ 됨의 기초로 제시하였다. 당시는 “개화 바람에 미쳐서 한국민까지도 나라가 망한 것은 구태의연한 서당교육 때문이었다고 곡해하던 때였다. 심지어는 유교 망국론(儒敎亡國論)을 공언하는 사람까지 나왔다.”<sup>157)</sup> 이미륵 역시 “그들은(서구) 자연과 우주에 관해서만 연구하였고 현자의 길만을 걸었다. 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참다운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55)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38.

156) 박성수, 2003, p. 383.

157) 박성수, 2003, pp. 359~360.

는 그곳에서만 공부를 하여야 할 것 같았다. 그곳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하며, 모든 학문을 연구해 낸 학자에게서 직접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sup>158)</sup> 이런 사상을 품은 조선인은 더 이상 전통적 질서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이는 1897년 복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부터 예견된 모습이었다.

나라에서 소매통이 넓은 광수의를(廣袖衣)를 입지 말라고 금지(禁止)했을 때에는 이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의복제도(衣服制度)를 입기 편한 대로 하라는 훈령(訓令)이 떨어진 뒤로는 거의가 다 좁은 소매에 작은 창의를(鑿衣)를 입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 탓인지 다시 광수의를(廣袖衣)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알 수 없는 일이다.<sup>159)</sup>

변복령이 내려졌던 1895년만 해도 이에 반발하며 크게 격분하였던 사람들이 1897년이 되자 경상북도 예천 시골에서도 모두 구식 두루마기가 아닌 소매통이 좁은 개화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는 알 수 없는 일이라 하였지만 조선에는 이미 개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로부터 제시되는 규칙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던 개화의 모습은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당시 법부(法部)에서는 “사람들이 개화의 뜻을 잘못 알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이를 엄히 다스리라

---

158) 이미륵, 2000, pp. 123-124. 이처럼 서구 문명에 대한 찬양은 가출한 이미륵을 회유하고 유학이 아닌 서울에서 공부하도록 종용하던 역무원에게서도 발견된다. “모든 우리 전문 학교도 유럽 전문 학교처럼 좋다.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새 문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공 건물은 유럽식으로 지어졌고, 3층이나 4층까지 있다. 교수들도 고상한 유럽 옷을 입고 있다.” 이미 조선의 전통 문화보다는 서구의 문화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지적·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륵, 2000, p. 129.

159) 박성수, 2003, p. 251.



고 전국에 포고(布告)하기도 했다.<sup>160)</sup>

‘보다 더 화려한 앞날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이 무엇을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 서구 문명에 대한 열망과 두려움이 공존하였고, 이에 배움을 행하던 지식인들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부재한 채 갈팡질팡했다. 그리고 민중은 자신들의 분노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의 단결은 심각하게 와해되었고, 혼란스러움과 함께 찾아온 불안함과 분노는 쌓여가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3.1운동은 조선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보았듯 당시 조선 상황에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폭발은 항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 2. 동학과 일진회의 합동(合同): 동학의 부정적 통합

### 1) 동학의 역사적 행보

1860년 최제우(崔濟愚)는 민심의 동요를 ‘오도(吾道)’<sup>161)</sup>의 수양을 통해 극복하고자 자신의 출신 지역인 경상도 경주에서 동학(東學)을 창도했다. 동학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학에는 서학(西學)에 맞서 동쪽 나라인 조선의 도와 학문을 세운다는 뜻이 담겨 있다.<sup>162)</sup> 최제우는 동학에 들어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

---

160) 박성수, 2003, p. 252.

161) 여기서 ‘오도’란 유학이라는 큰 그릇에 불가와 선가의 전통은 물론 서학까지 회통한 ‘동도(東道)’를 의미한다.

162) 박맹수는 최제우가 세운 동학은 서학과 도(道)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학을 그저 서학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성립된 사상이라고 보는 세간의 이해는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동학농민혁명과

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 주문을 외우고, 궁을(弓乙)이라는 글자가 적힌 영부를 불에 태워 마시고, 성경신(誠敬信)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면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sup>163)</sup> 동학이 내세운 가치에 민중이 크게 호응하여 포교 3년째인 1862년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15개 군현에 동학의 접(接)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대중을 선동하는 외부 집단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동학을 좌도(左道)로 간주하였고, 최제우는 1863년 12월 경주에서 체포되어 1864년 3월 좌도혹민(左道惑民)이라는 죄명 하에 처형당했다.<sup>164)</sup>

2대 교주 최시형은 정부의 탄압에 의해 한동안 몇몇 교도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정선 일대에서 숨어 지내는 은신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상당기간 동학은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지방, 충청도 지방의 산간지대에서 지하 조직 형태로 유지되었다.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동학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다.<sup>165)</sup>

확대된 교세를 발판으로 동학은 1892년 10월부터 ‘최제우의 신원, 민중에 대한 불법 수탈 금지, 일본과 서양 배척’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sup>166)</sup> 동학교도들은

---

제국 일본』(서울 : 모시는 사람들, 2011), p. 59. 오도(吾道)의 뜻에도 서학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동학의 근본 의식과 향후 활동을 고려하였을 때 외세 세력인 서학과 대항하는 관념이 담겨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163) 박맹수, 2011, p. 43.

164) 박맹수, 2011, p. 44.

165) 박맹수, 2011, pp. 93, 97~98.

166) 당시 동학교도들은 국내의 기독교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라고 협박했고, 서양인과 일본인에게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19)』(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4), p. 4. 박맹수는 ‘일본과 서양 배척’ 요구가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충청도 보은취회에서 처음 제시된 것처럼 보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며 이는 동학의 역할을 오로지 민중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운동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기술할 때 복절을 대표하는 최시형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편향된 시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맹수, 2011, p. 115.

1892년 10월 충청도 공주취회와 11월 전라도 삼례취회를 통해 충청 감사 조병식과 전라 감사 이경직으로부터 민중에 대한 부당한 수탈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중의 동학 입교는 가속화 되었다.<sup>167)</sup>

이렇게 확대된 기반에도 불구하고 1894년 3월, 전라도 무장, 충청도 청산, 경상도 진주 등지에서 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내세우며 일어난 동학농민혁명<sup>168)</sup>은 월등히 우월한 화력을 가진 일본군에 의해 처참히 실패했다. 대포와 소총 등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서 동학군은 힘조차 쓸 수 없었고 단 이틀 만에 1만 명이 살해당했다.<sup>169)</sup>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도 정부는 동학을 계속 동비(東匪)라 칭하며 탄압을 그치지 않았다.<sup>170)</sup>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등 소위 남접의 핵심지도부는 체포 또는 처형되었다. 이에 동학은 북접 세력을 중심으로 점차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고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의 서북지역이 교단의 중심지가 되었다.<sup>171)</sup>

동학농민혁명 이후 강원도 산간지대에서 은신하던 최시형이 1898년 처형당하자, 최시형의 뒤를 이을 제3대 교주 자리를 놓고 경쟁이 일어났다.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이 그 후보였는데 1900년 8월 손천민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1901년 6월 김연국 역시 체포됨에 따라 자연스레 동학은 손병희를 중심으로 교단이 이어지게 되었다.

손병희는 최시형이 체포되던 시기를 즈음하여 서울에서 몇몇 개화파 사람들과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손병희는 외유를 내세우며 1901년 3월 손병흠, 이용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그

---

167) 박맹수, 2011, pp. 485~486.

168) 박맹수는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3월 5일 발표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894년의 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이라 부르겠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명명법(命名法)을 따르려 한다. 박맹수, 2011, pp. 239~240.

169) 이영호, “농민전쟁 이후 농민운동조직의 동향,”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연구(4)』 (서울: 역사비평사, 1995); 박성수, 2003, p. 198.

170) 『황성신문』, 1904년 4월 12일, 6월 2일.

171)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서울: 천도교 중앙종리원, 1933), pp. 28~29.

해 9월에 다시 귀국하였고, 1902년 3월 정광조 등 유학생 24명을 이끌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 박맹수는 손병희의 외유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탄압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실제 의도는 근대 문명을 학습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sup>172)</sup> 하지만 서울에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였던 점과 1901년 6월 김연국이 체포된 후 바로 귀국한 점으로 보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김연국에 비해 교단 내 세력이 약했던 손병희가 제3대 교주 경쟁에서 밀린 뒤 일본에서 개화파 세력과 교류하며 자신의 힘을 키우려 하다 김연국의 체포로 상황이 급변하자 귀국하여 교단을 수습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sup>173)</sup>

## 2) 동학의 교정일치(敎政一致)와 일진회와의 합동

손병희의 정치활동은 대한제국 정부에 국정채신을 요구하는 상소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손병희는 1903년 동학 지도부 이인숙(李仁淑)을 통해 의정대신 윤용선(尹容善)과 법무대신 이윤용(李允用) 앞으로 ‘국회를 설립하고, 종교를 반포하며, 재정을 정리하고, 정치를 개선하며, 유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상헌이라는 가명으로 위장하여 일본에서 망명중이던 권동진·오세창·박영효 등과 조우하였다. 또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본 군

172) 박맹수, 2011, p. 505.

173) 체포 전 김연국은 충남의 동학교도가 모두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장담할 만큼 당시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동학교도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체로 상부로는 김연국과 연결되었다고 한다.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서울: 혜안, 2004), p. 297. 손병희는 이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김연국과 김연국계를 포섭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음이 확인된다. 손병희는 천도교를 창건한 뒤 김연국을 대도주 바로 아래 직위인 성도사에 임명했고, 시천교가 이탈한 후에는 김연국에게 대도주직을 전수했다. 『종령』 제7호, 1906년 2월10일; 『종령』 제76호, 1907년 7월 26일.

부와 연계하여 조선의 친러정권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참모본부 차장 다무라 이요조(田村 怡与造)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뤄지지 못했다.<sup>174)</sup>

이는 동학의 정부 공인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지만

귀국(일본)은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한마디도 민간에 전달한 일 없이, 또한 고시문을 내는 일도 없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 야반에 왕궁으로 쳐들어가 국왕을 놀라게 했다. 그 때문에 세간의 일반 서민들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의군(義軍)을 모아 일본인과 싸우고자 한 것이다.<sup>175)</sup>

라고 최후 진술한 전봉준의 말처럼 1894년 ‘척왜양창의’를 내세웠던 종래의 동학교단의 행보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이 시기 이전 동학이 반일 투쟁 노선을 견지했다면 어느덧 손병희는 서울과 일본에서 개화파와 조우하며 나아가 일본 군부와 일종의 모의를 세우는 등 일본과의 연합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손병희는 보국안민의 책(策)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혁명을 일으켜 폐혼입명(廢昏立明)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악(惡) 정부를 청소하고 신(新)정부를 조직하는 것이며, 셋째는 일노(日露)전쟁에 참여하여 그 우승을 고득(估得)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자금 만 원을 승리국으로 예상하였던 일본의 육군성에 주었다. 또한 손병희는

---

174) 손병희는 3.1운동 때까지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 어떤 체제의 국가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p. 64.

175) 國史編纂委員會, 『東學亂記錄(下)』(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9), p. 529. 재인용: 박맹수, 2011, p. 649.

일노전(日露戰)은 만한(滿韓)을 위한 전쟁인 고로 일본이 승리하나 노국이 승리하나 한이 이에 좇아 망할 것이 명약관화한즉 이 때에 있어서 우리 도인 수 10만이 발기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보면 일본이 위급존망의 추(秋)에 당하여 반드시 밀(謐)을 내외에 요구할지니 내 이때에 있어 일본 당국과 한정개혁의 밀약을 굳게 맺은 뒤에 일본을 위하여 노(露)를 치고 일변 국권을 잡은 뒤에 제정을 혁신하면 이에 한국의 재생의 길이 있을 뿐이라<sup>176)</sup>

라고 주장하며 국내의 신도들을 모아 민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시천주 사상을 내세우며 민중을 기반으로 한 동학의 초기 목적은 반봉건·반외세였지만 정부의 지독한 탄압과 교권 내 정통성 경쟁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동학은 점차 문명개화적이고 외세의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동학의 목적은 여전히 자신들과 민중을 괴롭혀 온 대한제국 정부의 국정쇄신, 정치개선, 좀 더 극단적으로는 혁명을 일으켜 친러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정쇄신 등 정부변혁을 요구하면서도 더 이상 자주적인 수단이 아닌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는 동학 초기의 혁명적인 모습을 상당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는 곧 동학의 ‘부정적 통합’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동학은 반봉건·반외세에서 ‘반외세’라는 ‘꼬리’를 잘라내고 이 자리를 ‘친일’로 채워 넣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선의 변화는 당내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잘려나간 꼬리’인 김연국 등 보수계열 등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었다.

친러정권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1903년초부터 동학이 진행했던 일련의 거사들은 연이어 실패했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1904년 9월 20일과 22일 동학의 금지와 집회해산에 관한 조칙을 받는 등<sup>177)</sup> 더

---

176) 이돈화, 1933, p. 43.

욱 심한 정부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정일치(敎政一致)’를 내세우며 동학(진보회)과 일진회는 1904년 12월 2일 공식적으로 ‘합동(合同)’하였다.

일진회는 송병준을 중심으로 과거 독립협회원이었던 윤시병, 염중모, 윤갑병, 유학주, 홍근섭 등이 1904년 초 일본인 사세를 고문으로 하여 대한독립당을 조직했지만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자 8월 18일 유신회(維新會)로 명칭을 바꾸고, 8월 20일에 일진회로 바꾸게 된 단체이다. 일진회의 창설자인 송병준은 일본에서 노다 헤이지로라는 일본 이름을 쓰며 일본인 행세를 하며 지내다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 통역관의 신분으로 귀국했다. 그는 일진회를 창설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모두 “단발하고 쇠뚫모자(소위 도리우치 모자)를 쓰고 팔에는 완장을 차게 만들었다.”<sup>178)</sup>

박맹수는 진보회의 단발령이 일진회와 진보회의 합동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179)</sup> 합동 직전 진보회는 ‘문학은 국문화로, 백의(白衣)는 생활상 색의(色衣)로, 장발은 위생상 단발로, 부모상은 3년 복제대신 105일 해쇠(解衰)하고, 각종 공장을 설립할 것’이란 통문을 전국의 신도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1904년 10월 8일에는 전국 360곳에서 30만 명의 신도들이 색옷입기와 단발을 단행했다.

1895년 11월 15일에 내려졌던 단발령은 전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시행하던 정부에 ‘이를 갈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황현은 “단발령이 내리자 곡성(哭聲)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에 못 이겨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고 했고 저상일월에서도 “이날 개화파(開化派)와 왜인(倭人) 몇 명이 대궐에 들어가서 상감을 강제로 삭발(削髮)시키고 양복(洋服)으로 갈아입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장안성중(長安城中)에 곡성(哭聲)이 하늘을 찔렀다. 아! 천년문물(千年文物)이 이제야 끊기는구나, 통곡하고 통

---

177) 『구한국관보』, 1904년 9월 22일, 9월 24일, 11월 1일.

178) 박성수, 2003, p. 335.

179) 박맹수, 2011, pp. 499-500.

곡할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80)</sup>

이처럼 당시 조선 사회에서 단발령은 단순히 머리를 짧게 한다는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 지켜오던 역사와 전통을 절단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다.<sup>181)</sup> 실제로 “상투를 잘라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존재였다. 그런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 꼬마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댔다.”<sup>182)</sup> 그런 일을 이제는 ‘척왜양창의’를 내세웠던 동학 스스로가 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학이 개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더 이상 반일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 육군성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 은밀하게 일본 세력과 ‘부정적 통합’을 시도하던 동학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통합을 추구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강요로 시행되었다가 전 조선인을 분개시켰고 의병을 일으키게 한 단발령을 이제는 반일을 외치던 동학 스스로 교인들에게 강요하며 자신의 노선 변화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를 단순히 진보회와 일진회 간 합동 촉진 요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동학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조선의 전통과 역사도 버릴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형상을 두고 파놓은 피지배자들은 식민지 지배자들을 적대하고 경멸하지만, 동시에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이주민이

---

180) 박성수, 2003, p. 211.

181) 이 시기보다는 나중의 기록이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 단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대용산(大龍山) 안진사(安進士)라는 자(者)가 면장(面長)이 되었다. 관(官)으로부터 단발령(斷髮令)이 있자 다른 면장(面長)들은 모두 숨어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안진사(安進士)만이 머리를 깎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안진사(安進士)의 아내가 아연 실색을 하여 말하기를 ‘나는 안진사(安進士)의 아내입니다. 안진사(安進士)는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저는 맹세코 왜인(倭人)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하면서 며칠간이나 단식을 한 끝에 죽어버렸다.” 박성수, 2003, p. 382. 이 일화가 보여주듯 당시 조선 사회에서 단발은 단순히 신체일부인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는’, 즉 죽음과도 같은 행위였다. 단발은 곧 조선인으로서 생을 다하고 왜인으로 태어남을 의미했다.

182) Wales, 2005, p. 72.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바람이다.”<sup>183)</sup>

### 3. 진보회와 일진회의 분리: 부정적 통합의 해체

당시 일진회는 “송병준, 윤시병, 이용구가 지도자로 일본 군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친일 매국단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sup>184)</sup> (합동)일진회는 1905년 11월 5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하여야 한다는 일진회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어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에 동조하였다. 이를 두고 기존 연구에서는 손병희가 (합동)일진회에 대한 반감이 동학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일 천도교를 창건하고 일진회와의 분리를 선언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즉, 진보회가 일진회에 휘말려 나라를 팔아먹는 일진회의 수족이 되었다는 치명적인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함으로써 동학에 붙어있는 나쁜 인상과 낙인을 떨쳐내고자 했다는 것이다.<sup>185)</sup>

하지만 천도교 공표 이후 1906년 1월 손병희가 귀국했을 때 이용구와 송병준은 각각 부산과 대전으로 가서 직접 그를 맞이했고, 일진회원 5,000명은 남대문역에서 손병희의 귀국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손병희 역시 귀국 직후 일진회에 1,000원을 기부하고 천도교 중앙총부를 조직할 때 이용구와 송병준을 주요 관직인 현기사 고문과 직원에 임명했다. 2월 14일 천도교가 개최한 연회에 다녀온 대한매일신보 기자는 천도교가 곧 “전날 동학당파와 지금 일진회민으로 설립된, 새로 칭한 이름”이라고 규정한 후 본 연회에 하야시 곤스케(林 權助) 공사 등 다수 일본 유명인들이 참석하였음을 밝혔다.<sup>186)</sup> 이는 손

---

183) Fanon, 2004, p. 73.

184) 박종효,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p. 107.

185) 『신인간』, 1973년 11월.

186)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서울: 경문사, 1977), 1906년 1월 23일, 1월

병희가 천도교를 창건하고 일진회와의 분리를 선언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천도교의 창건 목적은 일진회와의 분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조선에서 영향력이 증대한 이용구에 대한 견제를 하며 교단 내 단속을 시도한 손병희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조선 내 자신의 대리인이었던 이용구가 (통합)일진회의 수장으로 추대를 받으며 실질적인 동학의 지도자로 부상하자 손병희는 교단 내 자신의 입지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병희는 이용구와 송병준을 요직에 앉히는 한편 자신과 교권 경쟁을 벌였던 김연국을 대도주 바로 아래 직위인 성도사에 임명하여 김연국계를 포섭하고자 했다. 나아가 1906년 6월에는 이용구를 전제관장에, 송병준을 고문실 고문에 각각 임명하였고, 7월에 송병준을 다시 재정을 담당하는 중책인 금융관장에 임명하였다.<sup>187)</sup> 이는 귀국과 동시에 당내를 규합하고 단속하려고 했던 손병희의 의중이 엿보이는 처사이다.

일진회와의 분리는 그 이후 좀 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1905년 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 정부에게 있어 일진회의 효용가치는 떨어졌다. 더구나 일본 외무성과 주한 일본 공사관측은 일진회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대륙낭인 또한 일진회의 변심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일진회가 지금은 일본 천황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친일주의를 버리고, 배일파가 되어 폭도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sup>188)</sup> 이러한 인식은 통감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 통감은 일진회 등이 정부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경찰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이토는 “각 방면으로 얻은 보고를 종합해보면 지방관 중에는 부정을 행하는 자도 적지 않지만 또한 인민 중

---

26일, 1월 28일, 2월 2일; 『종령』 제8호, 1906년 2월 10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2월 14일.

187) 『종령』 제7호, 1906년 2월 10일; 제28호, 1906년 6월 14일; 제32호, 1906년 7월 24일.

188)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하)』 (동경: 원서방, 1966), pp. 552~555.

예를 들어 일진회원과 같은 자는 몹시 지방관을 괴롭히고 있다고 들은 고로 일률적으로 지방관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sup>189)</sup>고 말했다. 1906년 6월이 되자 일본헌병들은 풍기군수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일진회원들을 체포했고, 7월에는 그들의 간악한 행패와 약탈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 하에 “일진회원들을 붙잡아 결박해 놓고 맹장(猛杖)을 쳐서 죽도록 고문”했다. 8월 23일에는 이일식(李逸植) 은닉죄로 송병준과 윤갑병(尹甲炳)을 경무청에 투옥시켰다.<sup>190)</sup> 손병희가 송병준을 금융원장에서 해임시킨 날은 바로 이로부터 5일 뒤인 8월 28일이었다.<sup>191)</sup> 더 이상 일진회는 일본 세력과의 연계망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손병희는 일진회와의 선긋기를 본격화했다. 9월 6일 이용구를 전제관장에서 해임하였고, 9월 20일에는 일진회 간부 62명을 출교시켰으며, 「만세보」를 통해 천도교는 곧 일진회요, 일진회는 곧 천도교라고 알고 있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다.<sup>192)</sup> 그리고 1907년 11월 대한자강회를 모체로 결성된 대한협회를 통해 일진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sup>193)</sup> 대한협회는 일진회를 매국당이라 칭하며 송병준의 비리를 공개하고, 나아가 일진회의 지도자들을 군수에 등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일진회에 대한 비판으로 대한협회는 배일파 혹은 배일당으로 인식되면서 독립운동계열의 지지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천도교 자체에서도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합방반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손병희의 외유와 진보회·일진회

189)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6,상)』 (국학자료원, 1933), 1906년 3월 25일.

190) 박성수, 2003, p. 359;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상)』 (동경: 원서방, 1966), p. 25.

191) 『종령』 제28호, 1906년 8월 27일.

192) 『종령』 제42호, 1906년 9월 6일; 제44호, 1906년 9월 17일; 오지영, 1940, p. 200; 『황성신문』, 1906년 9월 21일; 『만세보』, 1906년 9월 25일.

193) 이태훈, “韓末 大韓協會 主導層의 國家認識과 資本主義 近代化論,” 『學林』, Vol. 21 (2000), pp. 89~122.

합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들어왔던 친일적·매국적이라는 색채를 지워가고 있었다.<sup>194)</sup>

이제 천도교는 일진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교단 내외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동학의 ‘부정적 통합’의 해체이자 다시 행한 자절(自切)이라 볼 수 있다. 손병희의 개인적 권력 유지와 동학·천도교의 생존을 위해 교세 축소라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일진회’라는 꼬리를 잘라낸 것이다. 일진회와의 합동은 동학의 유지와 목적을 위해 단발령이라는 조선 전통과 역사와의 단절을 스스로 행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었지만, 더 이상 품고 있기에는 동학의 생존 자체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진회와의 선긋기가 일제에게 전면적으로 항거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천도교는

문명이 야만을 통치하고 선정이 악정을 개량하는 것은 인민의 복이다. 우리가 천황폐하의 신민이 된 이래 학정을 일삼은 관리와 더러운 정치가 사라지고 좋은 제도와 법이 생겨나니 우리 교인은 그 은택에 감사하는 선량한 백성이라

는 종령을 반포하는가 하면 메이지 신궁 건축비로 1,000원을 기부했다.<sup>195)</sup> 이를 두고 김정인은 손병희와 몇몇 천도교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을 통해 절대독립과 국권회복을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지배 하에서 자치 혹은 보호국 체제 하에서 간접 지배를 원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만약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조선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정치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sup>196)</sup> 즉, 아직까지 천도교

---

194) 『천도교회월보』, 1932년 11월; 『신한민보』, 1910년 5월 11일; 일진회의 한 일합병성명발표후의 의주지방 동정에 관한 보고 건, 1909년 12월 9일. 재인용: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파주: 한울, 2009), p. 82.

195) 『종령』 제100호, 1912년 11월 7일; 『천도교회월보』, 1916년 7월.

196) 김정인, 2009, pp. 111~112.

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의지하고 체화했던 일본의 세력과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동학은 창도 초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일종의 변신(變身, metamorphosis)이 일어난 것이다. 동학이 추구해 오던 목적 중 반외세는 스스로 자절했고, 그동안 자신과 민중을 괴롭히던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천도교로 새로운 모습을 갖춘 동학은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한 동안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두고 파놓은 식민주의는 피지배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negation)이며 그들의 “인간적 속성 전부를 부인하는 광포한 결단이기 때문에, 피지배 민중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자답하도록 강요한다”고 역설하였다.<sup>197)</sup> 천도교는 교단을 단속하며 정통성을 확립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전신(前身)인 동학을 찾고 나서야 새로운 정체성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

#### 4. 천도교의 독립운동 추진

##### 1) 천도교의 교단 단속과 동학에 대한 회고(回顧)

천도교는 점차 확산되고 대규모화 되어갔지만, 1916년 기도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내 연원! 네 연원! 따지면서 일단을 이루지 못하니 개탄할 일이다. 이래도 천도교인들은 일치단결하였다고 할 것인가. 앞으로 시각이 급박하니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보국안민이 되지 못하면 연원을 해서 무

---

197) Fanon, 2004, pp. 281~282.

엇하겠는가. 내가 몇 해 전 어느 날 꿈에 어디를 가니까 한 신선이 금과 옥으로 만든 소반을 가지고 오는데 농부 백여 명이 길가에 모여서 독립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꿈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냐?<sup>198)</sup>

라고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완벽한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손병희는 교단 조직을 정비함과 더불어 교도들의 단속에도 상당히 노력했다. 손병희는 양한묵이 최제우의 사상을 ‘인내천’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1910년대 초반 교리강습소와 연성기도식, 공동전수심법식 등을 통해 ‘인내천’을 천도교의 교리로 확정했다.<sup>199)</sup> 또한 손병희는 1년에 3회 교도 전체에게 49일 때로는 150일 동안 육류와 술, 담배를 엄금하는 수행을 명령했다. 그리고 시일(侍日)이라고 하여 하늘에 절하는 3대 제일(祭日), 기념일, 그리고 대기도일에 지방에 있는 다수의 신도들을 서울 중앙총부에 불렀다.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내걸고 49일 혹은 150일 동안 서울 화계사에 모여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간 이런 난행(難行)을 거친 뒤 일정한 기준에 통과한 자들에게 한하여 참룡(參籠)을 명하였다.

이 연성수련회는 1912년 4월 15일부터 1914년까지 7차례가 열렸다. 신도들이 모였을 때 한번은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갔다고 한다.

[문] 대신사님(수운 최제우)께서 다시 출세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 성령(性靈)으로 출세하실지 육신(肉身)으로 출세하실지 알 수 없으나 다시 출세하실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 그러면 누구나 그분을 뵈올 수 있을까요?

[답] 정성이 지극하면 뵈올 수 있습니다.

[문]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

198) 1916년 12월 20일 기도회.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128.

199) 이돈화, 1933, pp. 44~70: 『천도교회월보』, 1911년 7월.

[답] 이번 49일 기도를 마치는 날쯤에 출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다시 출세하는 것은 천하에 없는 일이니 설사 육신으로 출세할지라도 여러분의 수련이 부족하면 대신사를 뵈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사의 출세 여부는 여러분의 수련이 독실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sup>200)</sup>

이는 인내천 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이자 천도교의 수행법이라 주창한 ‘이신환성’, 즉 몸을 성령으로 바꾼다, 을 실제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201)</sup> 이처럼 진행된 연성수련회가 1914년 4월에 끝나고 난 뒤, 주요 교구장 74인을 손병희의 자택으로 불러서 “수운대신사님께서 처음으로 출세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다 대신사가 되었으니 대신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성령 속에 출세하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님이 될 하늘님이니 어찌 성령이 없다 하겠는가”라고 쓴 법문을 나눠 주면서 “각기 돌아가서 3백만 신도들에게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하시오”라고 명하였다.<sup>202)</sup> 즉, 연성수련회를 거쳐 믿음이 가는 신도들을 추린 후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천도교도의 단합을 꾀하였던 것이다.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당성과 일체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그룹과 강한 동질감을 느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주도세력은 현재와 과거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등 역사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사람들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sup>203)</sup> 이를 위해 손병희가 취한 방식은 계속

---

200) 1913년 1월 1일 제3회 수련연성회.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123.

201) 조극훈, “의암 손병희의 ‘이신환성’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 『동학학보』 Vol. 24 (2012), pp. 275-306.

202)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p. 121~128.

203) Stuart Hill and Donald Rothschild, “The Impact of Regime on the

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인 동학의 제1대 교주 최제우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손병희 자신은 교주로서의 정통성을 각인시키는 한편, 동학과의 연계를 이어가 현재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교인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여 교단 내 화합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동학에 대한 회고(回顧)가 일어나자 천도교는 그동안 그들이 생존과 권익을 위해 잊고 혹은 스스로 자절(自切)했던 ‘척왜양창의’라는 동학 본래의 목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동학의 제1대 교주인 최제우를 명시하며 천도교는 그동안 상실했던 동학 초기의 목적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 2) 독립운동 분위기의 확산

1910년대 중후반 국내외로는 점차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1911년 이후 상해로 망명한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은 조선사회당을 만들었다. 그들은 1917년 8월경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만국사회당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하고, 독립의 당위성과 일제의 한국 불법점령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무효를 선언하는 선전책자도 만들었다. 같은 해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족대회의의 소집을 제의한 대동단결선언을 발기했다.<sup>204)</sup>

---

Diffusion of Political Conflict,” in Manus Midlarsky (e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munal Strif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pp. 189~206; Tarrow, 2011, pp. 18; Aldon Morris and Suzanne Staggenberg, “Leadership in Social Movements,” in Snow, Soule, and Kriesi, 2004, pp. 171~196; Leoni Huddy,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1 (March 2001), pp. 127~156; James Jasper,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nd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Vol. 13, No. 3 (September 1998), pp. 397~424.

204)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한국학술정보, 2002); 독립운동사편찬위원



천도교 교단 내에서도 독립운동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16년 9월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희(崔東曦)는 손병희에게 “천도교 내부를 개혁할 것, 시천교와 통합할 것, 갑오년 혁명 당시 산화한 영혼을 생각해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 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205)</sup> 또한 이종일이 조직한 천도구국단은 민중봉기를 계획하였고, 1914년 11월 26일 이종일과 장효근이 손병희를 찾아가 독립을 위한 민중봉기를 제시하였으나 손병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sup>206)</sup>

그러나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전후처리 원칙인 윌슨의 14개조 원칙 발표는 일부 지식인 층과 지도 세력들이 형성했던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조선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14개조 원칙 중 제5조를 ‘민족자결의 원칙’이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송지예가 지적하였듯 실제 윌슨의 14개조 원칙에서는 ‘민족자결’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self-determina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즉, 한국의 독립을 위해 윌슨의 원칙을 ‘민족자결주의’라고 규정하며, 그 의미를 변용하고 확장시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207)</sup>

민족자결주의는 지식인층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이란 말이 신문지상을 통해 선전되고

---

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8); 조동걸,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Vol. 9 (1987), pp. 123~172.

205) 이준식, “천도교와 코민테른: 최동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제62회 연구발표회, 1998).

206) 배성사(拜聖師) 협의민중봉기(協議民衆蜂起) 연불답(然不答) 기새지사(氣塞之事). 이현희, “張孝根日記의 民族思想史的 檢討: 憲兵警察時代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Vol. 17 (1977), pp. 115~133.

207) 제5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free, open-minded, and absolutely impartial adjustment of all colonial claims, based upon a strict observance of the principle that in determining all such of sovereignty the interests of the populations concerned must have equal weight with the equitable claims of the government whose title is to be determined.” 송지예, “‘민족자결’의 수용과 2.8 독립운동,” 『동양정치사상사』, Vol. 11, No. 1 (2012), pp. 179~209.

이에 대한 정객·학자들의 비평·논설 등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자, 평소에는 온건했던 지식계급까지 이에 귀를 기울였다. 당시 적지 않은 선비들은 월슨이 민족자결주의란 말을 민족자살(民族自殺)하라는 말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남 장흥군의 백성흙, 충북 보은의 류신영, 전남 곡성의 김기순 등 몇몇 선비들은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 또한 학생들은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오려내어 그것을 지방에 있는 부모에게 보내, 이것이 조선민족에게도 적용되어 곧 독립이 될 것이라 전했다.<sup>208)</sup>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장해온 것처럼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3.1운동의 외부적 요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술한 것처럼 민족자결주의란 말은 조선 내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규정되었고 이를 접한 지식인들이 이를 조선의 독립과 연관 지으며 대중에게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듣고 “너무나 의외인 것 같이 생각되어 도리어 어리둥절한 심정”이었지만 이내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민족의 장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고 다시 마음을 먹었다.<sup>209)</sup> 이는 곧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던 바를 ‘월슨’이란 강력한 권위자의 입을 빌려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더 많은 황당한 이야기들, 즉 ‘유언비어’로 이어졌다. “미국 대통령이 이번 조선학생단의 독립운동이 매우 성적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내왔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또한 미국 비행기가 폭탄을 가득 싣고 와서 투하하여 일본군을 물리칠 것이라는 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일도 제쳐두고 아침부터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월슨이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북한산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208) 『독립운동사자료집(6)』, p. 496, 473.

209) 하지만 최승만은 1918년 8월초 민족자결주의와 이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얘기되기 시작할 때는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이 때에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성공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 최승만, 『나의 回顧錄』 (인천: 仁荷大學校 出版部, 1985), p. 79.

월슨에게 어디가 북한산인지 알리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표식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과 북한산 위만 바라보며 월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sup>210)</sup>

이 얘기는 좀 더 나아가 “한국은 이미 독립했다,” “파리강화회담에 한국 독립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외한국인 수 명이 강화회의 위원으로 파견되었다,” “미국대통령은 한국독립에 다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을 찬동하고 있어 우리 동포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소리 높이 열국의 동정에 호소하면 격려 후원할 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민족자결주의, 월슨, 파리강화회담이 함께 얘기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고종 승하 때부터 계속 떠돌던 고종 독살설과도 이어졌다. 고종의 옥체에 붉은 반점이 가득했고 시신이 이상하게도 너무 빨리 부패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조선 사람들은 “이것은 반드시 일본인들의 소행이다. 해아밀사 사건의 전례가 다시 발생하면 저들이 행한 10년간의 학정이 폭로될까 두려워” 한 행동이라고 얘기했었다.<sup>211)</sup> 이미 명성황후의 죽음을 겪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의 고종 독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서울에서부터 “광무황제가 독살 당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독립을 위한 밀사를 파견하다가 독살당했다,” “조선민족이 독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친서에 도장 찍기를 거절하다가 황제가 근신에게 시해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sup>212)</sup> 즉, 일제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문서에 고종이 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황실의 전의(典醫) 한상학과 종친 윤덕영이 식혜에 뭔가를 타서 고종을 독살했다는 것이다. 고종 독살설과 파리강화회의, 민족자결이 한꺼번에 제시되는 이와 같은 유언비어는 일본

---

210) 윤소영 편, 2009(a), p. 138, 166; 이충호 편, 『조선통치 비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2), p. 53.

211) 김진봉, 2000, p. 189.

212)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p. 552~553.

사람들도 익히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신문은 “조선의 이번 소요는 실로 미신에서 일어난 것이다. 소위 국왕의 죽음에 임하여 무언가 변괴가 일어난다는 예언적 미신에 편승...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 등의 말이 나온 것을 빙자”했다고 보도했다.<sup>213)</sup>

그동안 우리는 ‘일손의 민족자결주의’는 외부적 요인, ‘고종의 독살설’은 내부적 요인이라 규정하며 어느 것이 만세운동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더 영향을 주었나에만 몰두하여 있었다. 하지만 살펴보았듯 이는 명확히 내·외부적 요인이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유언비어’처럼 당시의 조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민중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이었다. 즉, 이는 내·외부적 요인이란 분류에 앞서 당시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이와 더불어 조선 사람들이 품고 있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신문의 한 사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요의 원인에 관해서는 금일까지 많은 관척이 내려졌고 선교사의 선동설이 단정적으로 보도되었지만 내가 관측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을 전혀 그 진상을 밝힐 수 없는 일종의 억측적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폭도 가운데에 흑자는 선교사와 소요에 관해서 교섭한 것은 관계당국의 조사로 알 수 있지만 선교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원조하고 또는 선동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튼 일반에서 양성되고 있었다. 어떤 종료의 불평의... 소위 민족자결이라고 하는 신사상이 대두했다고 해서 결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다.<sup>214)</sup> [강조는 인용자]

---

213) 윤소영 편, 2009(a), p. 120.

214) 윤소영 편, 2009(a), p. 267.

### 3) 천도교의 3.1운동 계획과 추진

이렇게 확산된 독립운동의 분위기는 1918년 말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무오독립선언과 동경의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졌다. 1919년 1월 상순 재일유학생 송계백은 조선으로 와서 그의 선배인 중앙학교 교사 현상운을 만나 일본 유학생들이 작성한 독립선언문 초안을 보여주었다. 현상운은 “동경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하기로 하고 그 밀사로 송계백군이 동성으로 나와 나를 내견하고 모자 내피속에 넣어가지고 온 선언서의 초본을 보여주었다... 나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최린씨에게 보인즉 최씨는 다시 권, 오양씨와 손병희씨에게 보였다.” 이에 손병희는 “젊은 학생들이 이가치 의거를 감행하려 하는 이때에 우리 선배들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고 응했다고 한다.<sup>215)</sup>

즉, 손병희는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확산되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 요구에 응해야만 했다. 또한 1916년 9월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희가 천도교 내부 단속과 항일운동을 전면적으로 제의하자마자, 손병희는 동년 12월 20일 기도회에서 천도교인들의 일치단결과 곧 벌어질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손병희는 천도교 내부로부터의 압력이 증대되던 상황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로우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에게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어떠한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ies)가 주어진다면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집단이 가진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이미 행해지던 수단을 반복(repertoires of contention)하거나 새로운 수단을 고안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919년 초반의 상황은 분명 이러한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sup>216)</sup>

---

215) 『신천지』 1946년 3월.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기를 늦출 수 없었고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3월 초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함태영이 국장일인 3월 3일을 피해 3월 4일을 제안했으나 만일 국장일에 폭동이 발생하면 독립운동 계획에 차질이 생겨 안 된다고 하여 국장일 이후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3월 2일은 일요일이라 기독교 민족대표들이 반대하여 결국 3월 1일로 만세운동 일자가 정해지게 되었다.<sup>217)</sup> 2월 28일 밤 손병희의 집에서 민족대표들이 화합했을 때, 이갑성은 “내일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들이 독립 선언을 발표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공·사립학교 학생 전부가 응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동진은 “그것은 큰일이다. 현재 국장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경하고 있는 중이므로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며 독립선언서는 배포하면 지장이 없으므로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선언서의 발표 장소는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정해졌다.<sup>218)</sup>

## 5.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이전 절들을 통해 혼란스러움과 불만이 팽배해 있던 3.1운동 이전 조선 사회 현실과 이러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변신

---

216) Tarrow, 2011, pp. 1~6. McAdam이 지적하였듯 ‘정치적 기회’라는 용어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Doug McAdam,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in Doug McAdam, John McCarthy, and Mayer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23-40. 하지만 월슨의 14개조 원칙 발표, 2.8독립운동, 고종의 승하 등 1919년대 초반 국내외적 상황은 일종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7) 이병헌, 2002, p. 648.

218) 윤치호, 2001, p. 140.

(變身)을 거듭하여 살아남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 흔들리던 동학·천도교라는 당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정치 집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학·천도교는 자신의 전신(前身)인 동학에 대한 회고가 이뤄지자 강력한 독립의지를 견지한 독립운동의 최선봉에 선 단체가 되었고 3.1운동을 실질적으로 계획·조직했다. 일진회의 총무와 평의원을 지냈던 전협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회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전협)가 처음 일진회에 가입했던 당시, 일진회가 친일 매국 단체를 표방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다. 유신회라는 명칭 하에 출발한 이 단체는 개혁과 개화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면 역적 송병준이 일본의 교사를 받아 처음부터 이 조직을 조종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이 집단에 참가한 사람의 대부분은 오히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일진회는 이내 친일적 성격을 나타냈으며, 매국집단으로 변모하였다. 일진회를 발판으로 해서 30 미만의 나이에 이미 군수직을 오른 전협이 그 일진회를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쨌든 그는 일진회와의 관계를 끊고 당시 많은 지사들이 그랬듯이 만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결심을 하였다.<sup>219)</sup>

이 회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동학·천도교의 노선 변화와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의중을 잘 보여준다. 자신의 첫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점차 친일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전에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권력의 지위를 놓지 못하는, 하지만 상황이 변화하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자 적극적

---

219) 정정화, 『長江日記: 양자강 푸른 물결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 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서울: 학민사, 1998), p. 31.

인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일진회의 한일합방성명과 이후 일진회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sup>220)</sup> 한일합방성명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순식간에 ‘조선인’에서 ‘일본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자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제야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오던 권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1910년 국망에 이르자 한국들에게 특히 지식인에게는 처변삼사(處變三事)라고 하여 “자정(自靖, 자결 또는 자숙)과 부해(浮海, 망명), 그리고 거의(舉義, 의병이 되어 싸우는 일)의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sup>221)</sup> 즉, 자결 또는 망명을 통해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선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싸우는 일’뿐이었다.

옛날부터 개관논정(蓋棺論定)이란 말이 있다. 일생을 훌륭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더럽힌 사람은 영영 매장되는 법이다. 반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깨닫고 옳게 행동했을 때는 그 전과를 씻을 수 있다. 항일 투쟁에도 한때의 잘못을 깨닫고 참여한 분들이 내가 알기에도 많이 있다.<sup>222)</sup>

이는 마치 3.1운동을 진두지휘하던 천도교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리며 그들의 전과를 이렇게나마 씻어주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천도교인만이 겪은 변화는 아니었다. 1919년

---

220) 친일하는 사람, 친일파에 대한 혐오는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선 사회 내에서 지속되었던 것 같다. 1919년생인 한 회고자는 자신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일본인 학생을 친구로 두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랬다가는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혀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지요” 라고 밝혔다. Kang, 2011, p. 99.

221) 박성수, 2003, p. 412.

222) 정정화, 1998, p. 31.



3월 13일 배포된 조선독립신문 제5호에는 “철원군수는 3월 10일 오전 10시 스스로 태극기를 들고 군중의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을 하였으니 모범 군수이다”라는 문장이 실려 있었다.<sup>223)</sup> 주지 하듯 당시 조선인 관리는 ‘친일하는 사람’만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조선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예로, 김규현(金奎鉉)은 성주(星州) 군수로 가서 지사(志士) 장동연(張東淵)을 면장(面長)으로 임명하고 그의 머리를 깎아 버렸다. 장동연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김규현은 순검을 시켜서 장동연의 마고자에 ‘일본충신 김규현, 망국사인(亡國士人) 장동연’이라 써 붙였다.<sup>224)</sup>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일본인이라 주장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일제에 대항하여 직접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은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그 역시 ‘개관논정’하여 자신의 전과를 씻기 위해 독립의 최전선에 섰던 것이다.

이처럼 ‘적(敵)’에 대한 규정과 ‘아(我)’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며 지식인층에 제시한 ‘아’는 바로 ‘민족’이었다. 조선독립신문 제9호 부록에서는

우리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을 한 이래 용감하게 죽은 몇 천의 동포와 옥중에서 형을 받으며 신음하는 몇 만의 동포는 누구를 위해서인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이다... 마른 나무나 불타버린 재가 아닌만큼, 장 속의 새나 솔 속의 물고기가 아닌 동포는 전체 생명의 박살을 앉아서 감수할 것인가. 아니다! 조국을 위하여 선진을 위로하고 후생을 교도하여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결사의 각오로써 주저하지 말고 맹진 노력하여 필생의 관문에 도착하라<sup>225)</sup> [강조는 인용자]

---

2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4), p. 167.

224) 박성수, 2003, p. 417.

225) 『독립운동사자료집(5)』, p. 167.

며 불타버린 재가 아니고 갇혀있는 동물이 아닌 ‘동포’들이 ‘우리 동족’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조국을 위해서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노력하여 ‘필생의 관문’에 도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우리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을 시작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포’와는 달리 ‘동족’과 ‘민족’ 앞에는 ‘우리’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위해 결사의 각오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가는 바로 ‘우리 동족’과 ‘우리 민족’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대회의 격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오호 통재(痛哉)라. 아(我) 이천만 동포여. 아(我) 대행태 상황제폐하(大行太上皇帝陛下)가 돌아가신 원인을 아느냐 모르느냐. 평소 건강하셨고 아프시다는 환보(患報)가 없었으나 야밤 중 침전(寢殿)에서 창졸히 돌아가셨다. 이 어찌 이것을 상리(常理)라 하겠는가. 목하 파리강화회의에 있어서 민족의 독립을 제창한 데 대하여 저들 일인이 교활하게 꾸미기를 ‘한족은 일본의 정치에 열복(悅服)하여 분립(分立)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만국의 이목을 속이려 하였다.<sup>226)</sup> [강조는 인용자]

당시의 우리는 ‘동포’라고 불리었지만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제창할 이름은 ‘민족’과 ‘한족’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미륵이 받아들인 선언문에서도 “일본에 의한 한국 민족의 합병은 부당하며 앞으로 효력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한국인은 자유로운 민족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소유하였으니, 그 권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sup>227)</sup>고 ‘민족’이란 단어가 쓰여 있었다. 또한 대한독립선언서에

226) 재인용: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93.

227) 이미륵, 2000, p. 166.

서부터 민족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2.8독립선언서에서는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정당화했다. 3.1독립선언서에도 ‘조선민족 대표,’ ‘민족의 자유발전,’ ‘민족적’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sup>228)</sup>

강동국은 백동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인종,’ ‘국민,’ ‘민족’ 간의 경쟁 속에서 망국 이후 ‘민족’ 개념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229)</sup> 1905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종과 국민 개념은 ‘대한제국 국민이자 동아시아의 황인종’처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일전쟁,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드러남에 따라 인종 개념이 제국주의의 논리로 받아들여졌고, 국민 개념과 인종 개념의 조화는 깨지게 되었다. 이에 인종 개념에 대항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민족 개념이었다.

민족 개념은 양계초(梁啓超)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는 1899년 동적월단(東籍月旦)에서 nation의 일본어역인 민족을 도입했다. 민족 개념은 이후 1900년대 초반 청이 처한 국내외적 정치 상황 속에서 재구성되어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고, 이 의미를 지닌 채 조선으로 전파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러일 전쟁 이후에는 국민과 민족 개념이 인종 개념에 대항하여 공존하면서 종종 혼란을 가져왔다. 1907년까지는 오히려 국민 개념이 민족 개념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30)</sup>

228) 김동택, “한국근대국가형성과 3.1운동,” 『大東文化研究』, Vol. 67 (2009), pp. 403~434.

229)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Vol. 10 (2001), pp. 149~179; 강동국, “근대한국의 국민·인종·민족개념,” 『동양정치사상사』, Vol. 5, No. 1 (2006) 참조.

230) 1907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은 당시 국민과 민족이라는 언어 사용의 혼란을 보여주며, 민족 개념보다는 국민 개념의 우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국민이라는 명목이 민족 두 글자와는 구별이 있거늘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혼합하여 말하니 이것은 옳지 아니함이 심하도다. 고로 이제 이것을 약간 변론하노라. 민족이라는 것은 다만 같은 조상의 자손에 메인 자이며 같은 지방에 사는 자이며 같은 역사를 가진 자이며 같은 종교를 받드는 자이며

1908년에 이르러 종족적 혹은 문화적 독자성을 지닌 민족 개념이 등장하며 민족이란 단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1909년 12월 4일 일진회의 한일합방 성명서가 나오자 이에 대항하여 열린 연설회가 ‘국민대연설회’였고 대한협회가 발기한 대회가 ‘국민대회’였던 점으로 보아 여전히 국민 개념도 조선 지식인에게 상당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국망 이후 일제가 조선인들을 제국신민으로 칭하면서부터 국민 개념은 바로 일제의 국민이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국민 개념은 쇠퇴하고 민족 개념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포’와 ‘민족’ 중 ‘민족’이 택해진 이유는 이미륵의 회고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미륵이 학교 면접을 갔을 때 일본 선생은 그에게 “네가 우리 나라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까지 통틀어 말하고, 우리 동포라고 할 때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에 있는 전 국민을 말한다”<sup>231)</sup> [강조는 인용자] 고 말했다. 다른 이유들이 존재했었겠지만 우리가 ‘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을 내세우기에는 이처럼 일제로부터 강요받은 역사의 기억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장에서 지적했던 조선독립신문과 독립선언서에서 사용된 단기 표기 방식은 ‘우리 민족’을 찾으려던 지식인의 또 다른 노력이라 볼

---

같은 말을 쓰는 자가 곧 민족이라 칭하는 바이거니와 국민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해석하면 불가한지라. 대저 한 조상과 역사와 거주와 종교와 언어가 같은 것이 국민의 근본은 아닌 것이 아니지만 다만 이것과 같다고 하여 문득 국민이라 할 수 없나니 비유하면 근골과 맥락이 진실로 동물이 되는 근본이라 할 것이지만, 허다히 버려져 있는 근골맥락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것을 생기 있는 동물이라고 역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저 별과 같이 헤어져 있고 모래같이 모여사는 민족을 가리켜 국민이라 함이 어찌 가하겠는가. 국민이란 자는 그 조상과 역사와 거주와 종교와 언어가 같은 외에 또 반드시 같은 정신을 가지며 같은 이해를 취하며 같은 행동을 지어서 그 내부에 조직됨에 한 몸의 근골과 같으며 밖을 대하는 정신은 영문에 군대같이 하여야 이것을 국민이라 하느니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30일.

231) 이미륵, 2000, pp. 142~143.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천만 민중’을 선대와 후손 사이에 위치시키며, 이를 모두 합하여 ‘우리민족(我民族)’이라 지칭하며 역사성을 강조했다. 단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경부터였다. 정영훈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조선독립과 관련한 16개의 선언서에서 연호내역이 불분명한 3개를 제외한 13개를 두고 보면, 단기를 이용한 것이 7개이고,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것이 4개, 서기를 쓴 것은 단 2개 뿐이었다. 정영훈은 연호는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자신을 어떠한 세계와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는지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이처럼 단기를 쓰는 것은 ‘단국민족주의’, 즉 “단군의 건국을 자기 집단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집단(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 토대하여 집단적(민족적) 결속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식과 사상·운동”이라는 사상적 흐름이 강하게 담겨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처럼 독립을 추구하던 지식인들이 단군을 민족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의식 하에 다른 민족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을 갖게 함과 더불어 조선 민족을 신분과 지역을 뛰어넘는 ‘공동운명체’로 결속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232)</sup>

이렇게 지식인층에 의해 제시된 ‘아’를 정의하는 민족 개념은 정치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이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행동의 의미를 규정해주는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당시 존재했던 무수한 경쟁 담론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

232) 정영훈, 2012, pp. 63~90.

## V. 대중의 3.1운동 참여

이전 장에서는 자절과 재생의 과정을 반복하여 3.1운동을 이끄는 독립투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신문과 소설 같은 문화적 형식을 기반으로 민족이라는 근대적 상상물이 전파된다는 앤더슨의 주장과는 달리 지식인에 의해 선언문과 신문을 통해 제시된 민족이란 개념은 사실 민중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항일 운동이자 전국적 만세운동인 3.1운동에 나서게 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동기들을 검토하며, 그들에게 3.1운동이란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즉, 이들에게 만세운동을 하러 나서는 것은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 1.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불만의 증대

#### 1)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조선에서는 ‘연필도로’라는 말이 유행했다. 일본인이 지도에다 연필로 선을 긋기만 하면 그 땅은 신작로가 된다는 얘기를 풍자한 것이다.<sup>233)</sup> 1919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7만 7천 298정보의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 선동, 공갈, 기만 등 갖은 수단을 다 사용하여 강탈한 것이었다. 일제는 헐값에 토지를 팔도록 협박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땅으로 가는 물줄기를 금지하는 등 조선 농민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sup>234)</sup>

---

233) 박성수, 2003, p. 421.

일제는 경작지의 소유지 변경과 함께 방대한 면적의 미간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당시 조선 민중의 민유 미간지 소유는 사문기(私文記)로 증명되어 왔고 관문기(官文記)를 갖춘 것은 많지 않았다. 즉, 문서상 토지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하던 사람들이 상당수였던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유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일순간에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또한 조선을 일본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 상품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건설을 대규모로 진행하면서<sup>235)</sup> 일제는 1911년 4월 ‘토지수용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철도와 도로 건설 등으로 관(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인의 토지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단순히 일제가 조선 사람들의 토지를 강탈해갔다고만 파악한다면 다른 중요한 현상을 놓치게 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의 토지 강탈은 사실상 조선인 지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인이 강탈한 토지는 대부분 가난한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의 토지였다. 이에 1914년과 1919년 조선 농촌에서의 토지소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1914년과 1919년 조선 농촌에서의 토지소유

경제	1914년		1919년	
	호수	%	호수	%
지주	46,576	1.8	90,386	3.4
농민	2,546,483	98.2	2,574,439	96.6
자작농	569,517	22.0	525,830	19.7
자소작농	1,065,705	41.1	1,045,606	39.3

234)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p. 41~42.

235) 1914년까지 경부선, 마산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철도가 완공되었고 함경선 공사 역시 진행중이었다. 또한 1907부터 1910년까지 1,993km, 1911년부터 1916년까지 34개 노선 2,690km, 1917년부터 1922년까지 26개 노선 2,308km의 도로가 개수되었다. 이정은, 2009, pp. 44~45.

소작농	911,261	35.1	1,003,003	37.6
전체	2,593,059	100	2,664,825	100

출처: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43.

5년 동안 지주 수는 43,810호가 증가한 반면, 자작농은 43,687호, 자소작농은 20,099호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소작농은 91,742호 증가했다. 농민의 증가분이 27,956호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감소는 곧 소작농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소작농들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236)</sup>

이들 중 상당수는 적자로 한 해를 마무리했고, 때문에 건설, 산림채벌, 목재수송 등 추가 돈벌이를 찾아나서야 했다. 농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각종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던 일본인들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들을 무시워하고 혐오하였지만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렸다.” 조선인 노동자와 모집자 간 계약은 몇 년 단위로 이뤄졌고, 선불 방식으로 계약금이 각 가정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팔리듯이 노동 현장에 투입된 조선 노동자들이 계약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모두 노동자의 몫으로 돌렸고, 보잘 것 없이 책정된 임금을 받던 조선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어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sup>237)</sup> 이런 식으로 늘

236)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43. 그런데 자작농 역시 토지만 갖고 있을 뿐 소작농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1900년대 후반 김산의 집은 “자작농이었지만 아주 가난했고 언제나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다.” Wales, 2005, p. 71.

237) “조선방직회사에서의 노동계약은 6~10년 동안 체결되었고, 노동에 대한 댓가로 이 가정에 10~18엔을 지불하였다. 첫 2년간은 무임으로 일하였고, 나중에 하루에 20전 정도의 임금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은 ‘빚을’ 탕감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52.



어난 노동자는 1912년에는 약 34만 명이었고, 1917년에 이르면 45만 명을 헤아렸다.<sup>238)</sup>

노동자의 삶 역시 매우 처량했다. 동일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약 40~60% 밖에 받지 못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반 이상 임금이 적었다. 즉, 일본인 노동자가 350전을 받는다고 하면 조선인 남자는 150전, 조선인 여자는 고작 50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임금은 70전을 넘지 않았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17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하루 최저 생활비가 약 100전으로 추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하루 급여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sup>239)</sup> 이런 생활 속에서 조선 노동자들은 “실제로 개인의 자유를 상실하였다. 서울과 기타 도시들에서의 그들의 집단거주지는 감옥을 연상하게 하였다. 도시에서 나가는 것은 감독의 동반 하에서만 허락되었다.”<sup>240)</sup>

토지조사사업은 단순히 소작농의 수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철저히 문서에 기반을 두는 지주제를 확정함으로써 소작농들이 전통적으로 향유해 오던 많은 관습과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반하여 지주들에게는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일제와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토록 했다.

한정된 경작지에서 소작농의 수만 늘어나자, 그들은 점차 누구와도 대체 가능한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했다. 지주들은 매년 소작농을 바꾸면서 종종 그에 상응하여 해당 토지의 소작료를 올렸고, 종종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작료는 수확한 것의 30%에서 많으면 90%까지 내야했고, 법적으로는 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지세도 대부분 소작농이 해결해야 했다.<sup>241)</sup> 이는 그동안 향촌 공동체에서 전

---

238)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45.

239) 『조선경제연구』 (서울, 1929), p. 512. 재인용: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52.

240)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52.

241) Carter Eckert, 주익중 옮김, 『제국의 후예: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서울: 푸른역사, 2008), pp. 53~55, 121.

통적으로 유지되던 소작농들의 권리를 박탈함과 더불어 공동체 사회 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농민들은 지주에게 소작료와 세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간 관리 소작농들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원했다.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종 지주들의 집을 습격하여 노예적인 소작료계약과 차용서류를 폐기하기도 했다. 그들은 “우리는 등을 펴지 않고 일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모든 수확을 지주에게 바치지만 그는 항상 우리를 빗쟁이로 여긴다”라고 말하곤 했다.<sup>242)</sup>

조선 농촌 공동체 사회의 와해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가 노린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었다. 조선의 각 지방은 각자만의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일제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힘을 동학 및 의병과의 전쟁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향촌사회를 해체하고 중앙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토지조사사업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것이다.<sup>243)</sup>

## 2) 납세

1914년 공포된 시장규칙의 주요 내용은 공영제였다. 공영제란 바로 시장을 경영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단체 등의 국가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는 기존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 등을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총독부가 시장세를 더욱 철저하게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시장세는 시장 내에서 행해지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무조건 판매가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하도록 했다. 농민들이 자가생산한 물품들도 예외가 아니었다.<sup>244)</sup>

---

242)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75.

243) 이정은, 2009, pp. 70~75.

조선인들은 세금의 액수가 많은 것보다는 그 종류와 납세하는 횟수가 너무 많고, 납세의 방법이 복잡하고 번잡한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1912년에는 52개의 조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 직접세는 11개나 되었다.<sup>245)</sup> 이미륵은 자신의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새 규칙과 세금에 관해 점령군과 통역을 통해 매일같이 흥정한 후에는 고단”해 했다고 회고했다.<sup>246)</sup>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247)</sup> 만장면 인원리에는 인가가 4집뿐이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 단체로 충청남도 계룡산으로 이사하기로 하자 동리 이장이 아직 내지 못한 호세를 내라고 독촉했다. 이에 무리 중 원태호라는 자가 길이 두 자가 넘는 칼로 이장을 찔렀다. 평안남도 순천에서는 민중 500~600명이 ‘일본인을 죄다 죽여라, 찢어 죽여라’ 외치며 일본관민 30여 명을 포위하여 그 중 5명을 죽였다. 또한 관아에 불을 질러 문서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우편취급소장을 때려죽인 후 그의 얼굴겍질을 벗기고 시체를 태워버렸다.

이정은은 3.1운동 당시 만세 군중이 주재소나 면사무소 등 일제의 관공소를 부수고, 문서를 소각하고, 회의를 열어 공동체의 일을 보았다는 기록을 두고, 민중이 3.1운동을 통해 자치와 자급의 삶을 꿈꾸었다고 주장했다.<sup>248)</sup>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간 일제가 정리하고 집행하며 자신들을 괴롭히던 각종 납세 서류들이 없어졌

244) 허영란, “일제시기 '市場'政策과 在來市場商業의 변화,” 『韓國史論』, Vol. 31 (1994), pp. 261~327.

245)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45.

246) 이미륵, 2000, p. 105.

247) 『매일신보』, 1918년 3월 21일, 3월23일, 6월 13일, 8월 10일, 8월 15일, 8월 14일, 9월 4일; 박경식,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서울: 청아출판사, 1986), p. 135; 이정은, 2009, pp. 125~127;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일; 황현, 『梅泉野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 p. 522; 허영란, 2009; 김도형, “경남 함안지역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학논총』, Vol. 34 (2010), pp. 1027-1054.

248) 이정은, 2009, p. 153.

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생각한다.

### 3) 솟구치던 쌀값

개방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주의가 유행하며 농민 인구가 점차 줄어들었다. 쌀의 공급이 줄어들자 이는 곧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자국 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쌀을 조선에서 본국으로 유입해갔다.<sup>249)</sup> 일본으로 수출되던 쌀은 관세조차 부과되지 않았다. 조선으로부터 쌀 유입이 지속되었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붐으로 인해 일본의 쌀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1920년 일본의 쌀값은 1914년에 비해 거의 세 배가 올라 있었다. 일본으로 상당한 양의 쌀이 계속해서 넘어감에 따라 조선에서의 쌀값은 폭등했다. 조선 사람들은 점차 쌀밥을 포기하고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1917년에는 조선 사람들의 구미에는 맞지 않는 저품질인 월남 쌀이라도 수입하여 쌀값의 하락을 유도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1917년 5월 이미 조선 민중은 “쌀값이 너무 올라 못 살겠소”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쌀값이 올랐다. 1917년 4월까지 1석당 15원대였던 쌀값은 동년 10월에는 24원 14전으로 올랐다. 쌀값은 점점 더 올라 1918년 초에는 26~28원, 동년 하반기에는 38~39원으로 오르더니 1919년 1월에는 40원대를 넘어섰다. 1919년 2월에는 43원 57전이 되었으며 언론에서는 “사람을 죽일” 시세라는 말이 나왔다.<sup>250)</sup>

상술한 것처럼 조선의 쌀을 강매하다시피 가져간 일본의 사정 역시 크게 나이지지 않아 1918년 7월부터 약 석 달간 일본 전 지역

---

249) 일본으로 유입된 조선 쌀의 양은 1912년에는 50만석이었는데 1919년에 이르면 288만 2천 석으로 증가했다.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49.

250) Eckert, 2008, pp. 45~47; 『매일신보』, 1917년 10월 8일, 1919년 2월 4일.

에서 쌀값 인하 요구가 제기되었고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곳은 전국 3부 43현 1동 가운데 불과 4개 현 뿐이었다. 마쓰오 다카요시(松尾 尊兌)는 민중이 쌀소동을 통해 무단적 통치를 주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 正毅) 내각을 타도한 것은 독립을 지향하는 조선인들에게 권력이 내포하고 있는 취약성을 인식시킨 한편 민중이 일으키는 운동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마쓰오는 그 근거로 2.8독립선언 이후 염상섭이 도쿄대학 신인회 기관지에 실은 ‘조야 제공에서 호소함’이라는 글을 들었다. 염상섭은 이 글에 “쌀소동과 유학생의 행동은 그 지향은 다를지라도 그 생존의 보장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내면적 요구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다”고 기술했다.<sup>251)</sup>

일본 내 쌀 소동의 영향력이 없었더라도, 쌀 부족 현상과 함께 급등하는 쌀값 때문에 조선 민중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쌀 유입으로 인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쌀 소동이 일어났는데, 쌀을 빼앗긴 조선에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1917년 8월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면 비석등리 주민들은 관내의 쌀을 빼내고 있던 무곡상을 밟아 죽이려 했고, 1917년 11월 29일 강원도 이천·평강에서는 주민 45명이 쌀을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들과 맹렬히 싸웠다. 이 소란은 일군경이 사격을 가하고 주민들을 체포하면서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 쌀값 인상은 고정적인 봉급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다. 노동자들은 1918년에만 총 50건의 동맹파업을 벌였고, 이에 총 4,443명이 동참했다. 1918년 8월 5일에는 운송업 종사자 300~400명이 부한역에 모여 크게 시위를 벌이며 동맹파업에 들어갔고, 8월 13일 경성전기회사의 운전자들도 들고 일어났다.<sup>252)</sup>

251) 마쓰오 다카요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3.1독립운동,” 김희곤, 2010.

252) 『매일신보』, 1918년 3월 21일, 3월 23일, 6월 13일, 8월 10일, 8월 15일, 8월 14일, 9월 4일; 박경식, 1986, p. 135; 이정은, 2009, pp. 125~127.

자국 본토에서 쌀 소동을 이미 경험했던 일제는 구제회를 통해 조선 민중을 다스리려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1918년 8월 28일 경성구제회 종로소학교 판매소에서는 쌀을 받기 위해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렸는데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준비된 쌀이 다 동이 나 계원과 경찰들은 남아 있는 200~300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당시 54세의 한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그 여성을 떠밀었고 쓰러진 그녀는 기절했다. 그러자 쌀을 못 받고 남아 있던 나머지 군중이 흥분하여 그 경찰을 에워싸며 위협하였다. 다른 경찰들이 이를 말리면서 군중과 경찰 사이에는 일대 다툼이 벌어졌다. 경찰관이 진파되어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시 몰려들어 금세 1천 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 가운데 한성기독교 청년회원 3명은 단상에 올라가 열띤 연설을 펼쳤고, 사람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했다. 그들은 학교 담장을 무너뜨려 흙과 돌을 경찰들과 학교 건물을 향해 던졌다. 이날 밤 거리는 인파로 인해 꽉 막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낮에 있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와 같은 쌀 소동은 도처에서 일어났고 부산, 서울, 원산 등지에서는 대중의 궂기를 호소하는 전단이 뿌려지기도 했다.<sup>253)</sup>

이 때 조선 군중이 일제에 맞서던 모습은 3.1운동 당시 각 지방에서 벌어지던 만세운동 양상과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일제의 폭력 사용을 목격한 사람들의 흥분, 사건의 소식을 듣고 모여 드는 사람들, 군경과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사건이 끝나고도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궂기를 호소하는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간만 달리하면 3.1운동 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운동의 방법(know-how)이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253) 『매일신보』 1918년 8월 31일, 8월 30일, 9월 6일.

#### 4) 경제적 수탈에 따른 만세운동 참여?

경제적 수탈과 민중의 만세운동 참여와의 관계에서 다소 엇갈리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한 쪽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중의 반감과 울분이 폭발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무력을 통해 민중이 소규모로 경영하던 광산과 온천까지 빼앗았으며, 이에 일제에 대한 조선 민중의 반감이 극에 달해 만세운동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sup>254)</sup> 김상환은 일본인들이 부산과 마산 등에 대거 이주하여 토지·어장·상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침탈을 가해 조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sup>255)</sup> 신용하 역시 일제의 극악한 식민 통치, 헌병과 경찰력의 무력탄압, 경제적 수탈로 독립운동은 불씨만 당기면 폭발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sup>256)</sup> 이처럼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민중의 적극적인 만세운동 참여를 야기함’이라는 하나의 인과관계가 제시된다.

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오히려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평안도 지방에서는 농민층 중 자작농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취적인 민족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이다.<sup>257)</sup> 이정은 역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향촌 공동체가 유지되어 만세운동에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sup>258)</sup> 이는 토지조사사업

---

254) 김진봉, 2000, pp. 153~154.

255) 실제로 3.1운동 직전 부산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인 32,846명, 일본인 28,012명으로 일본인은 거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Vol. 29 (2011), pp. 327~357.

256) 신용하, “3.1운동 발발의 경위,” 윤병석·신용하·안병직, 『韓國近代史論(2)』, (서울: 知識産業社, 1979).

257) 김진봉, 2000, pp. 141. 이처럼 같은 책(김진봉, 2000) 안에서도 사뭇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을 통해 일제가 노린 목적은 기존의 향촌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조선 민중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주장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민중의 적극적인 만세운동 참여를 야기함’ 혹은 그 반대와 같은 획일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침탈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만세운동의 대중 참여를 설명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에드워드 톰슨(Edward Thompson)의 주장을 일부 확인한 것이다. 톰슨은 그동안 민중이 봉기하는 모든 원인을 경제적 침탈이라고 규정하는 경제환원론적 설명 방식과 민중은 외부 압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주체라는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sup>259)</sup> 이는 결국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요인만으로 대중의 3.1운동 참여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면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 2. 의병전쟁에 대한 복수

### 1) 의병전쟁과 ‘전시적(demonstrative) 폭력’<sup>260)</sup>

일본의 경찰과 헌병은 의병들을 거의 말살시키려 했다. 일제는 1908년 5월부터는 조선 주둔군 1개 사단, 1개 여단, 기병파견대, 2천

---

258) 이정은, 2009.

259) Edward P. Thomp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No. 50 (February 1971), pp. 76~136.

260) 전시적 폭력 개념은 최정운, 1999, p. 71 참고. 최정운은 5.18 당시 공수부대의 데모진압 방식이 ‘전시적 폭력’이었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불잡힌 사람에게 사정없이 폭력을 가하여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다시는 데모는커녕 얼씬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공수부대의 폭력은 당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전시적 폭력을 통해 ‘폭력 극장’을 연출하는 것이다.



여 헌병, 4천여 헌병보조원, 5천여 경찰대를 총 동원하여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다.<sup>261)</sup> 그 결과 일제측이 발표한 1907년 10월부터 1908년 8월까지 사살된 의병의 수는 12,000명에 달하는 반면 일본군의 희생자는 단 83명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일본측 통계에 의하면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총 2,862회의 전투가 벌어졌고, 141,185명의 의병 중 사망자 17,697명, 부상자 3,706명, 체포된 자는 11,994명이었다.<sup>262)</sup>

의병전쟁 당시 일제의 탄압은 단지 의병에게만 가해졌던 것은 아니었다.<sup>263)</sup> 일본군은 강원도 고성군 한 마을에서 동리 사람들에게 의병의 종적을 물어보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무작위로 7명을 골라 참수하여 그 머리들을 들고 저자거리를 활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의병을 찾다 실패한 일본군은 그 마을 사람들 두 명을 사살하고 시체를 끌고 다니다가 시중 가마솥에 넣어 삶았고, 익혀진 뼈와 살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다. 강원도 원주군에서는 의병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수 명을 체포하여 나뭇가지에 결박한 뒤, 그들의 배를 베어 가족을 벗기고는 통쾌하다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어느 지방에서는 양민 한 명을 잡아 땅에 쓰러뜨려 놓고는 냉수관을 입에 물게 한 뒤 물을 퍼 넣었다. 점점 배가 팽창하자 나무판자로 그 배를 치고 나서는 배 위에 뛰어올라 양민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깔깔대며 큰 웃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의병을 추격하다 놓치자 그 화를 풀기 위해 주민 수백 명을 포박하여 벽지로 끌고 가서 큰 갹(坑) 수삼 척을 파서 주민을 갹 속에 처넣고 반을 묻은 다음, 각자 예리한 칼을 잡고 풀을 베듯 참수하고 난 뒤 크게 웃어댔다. 제천군

---

261) 이정은, 2009, p. 50.

262) 러시아 자료는 박종효의 책을 일본측 통계는 하승우의 연구를 참조. 박종효, 2002, p. 120, 122; 하승우, “식민지 시대의 아나키즘과 농민공동체,” 『OUGHTOPIA』, Vol. 25, No. 3 (2010).

263) 아래 일제의 폭력에 관한 기록들은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p. 221~222 참조.

에서도 의병을 수색하다 찾아내지 못하자 그 분노를 주민에게 돌려 전곡(錢穀)을 토색질했고 부녀를 겁탈하고 가옥을 불태웠다.

이처럼 일본군은 의병들만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전시적 폭력’을 가했으며 이는 상부로부터 묵인되고 있었다. 문의군 동계산에는 신씨 마을이란 곳이 있었다. 당시 신씨란 성을 가진 사람이 의병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의병을 일으키자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한다. 일본군은 신씨가 속한 마을이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마을에 들어와 이곳저곳에서 총을 난사하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자 각 집에 들어가 금전과 가벼운 장식품을 수취하고 방화하여 사묘·낭우·서적·가구·가축·원림이 모두 불탔다. 이 불이 얼마나 크게 났던지 이는 이웃 마을로 번져 10여일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다. 또한 일본군은 괴일촌에 이르러서는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이 신씨란 이유만으로 사살했고, 다른 집에 침입하여 잉태한 부인을 겁탈하려 했는데 거부하자 사살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황해도 평산군에서는 의병을 수색한다는 명목 하에 민가를 모두 불태웠고, 남녀 수백 명을 잡아 옷을 벗기고 엄동설한에 얼음 위에서 종일 서 있도록 하여 얼어 죽게 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일본군이 거리를 통과할 때 이를 보고 한 아이가 도망치자 일본군이 추격하며 난사했다. 도망치던 어린 아이는 바로 죽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다쳤다. 한 일본 병사가 부대장에게 “이곳은 의병의 종적도 없는데 어찌 무고한 사람을 살해함이 여기에까지 이르러도 대장님께서 방치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느냐”고 묻자 부대장은 “이를 빙자해서 한국민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면 감히 폭동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통감부로부터 이에 대해 묵인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의병 탄압만이 아니라 조선인을 그들 나름대로 길들여보겠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조선인은 더 이상 일제에게 사람이 아니라 사냥의 대상이자 길들임의 대상인 동물처럼 여겨지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의 일제 탄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징벌대의 진압은 중세의 냉혹한 심문이 자아내는 공포를 초월하는 엄청난 잔인함으로 유명하였다. 약 70종류의 고문이 가해졌다. 칼로 조선인들의 혀와 양 입술을 베어 버렸고, 배를 갈라 버렸고 총검으로 몸을 잘라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형에 처해졌다. 서울에서는 부인들의 머리와 양 다리를 여러 말들에 묶고 능지처참을 했다. 평양에서는 헌병대들이 여학생들을 강간하고 달구어진 쇠로 그들의 몸을 지쳐서 열십자 그림을 그렸다. 경기 진위 마을에서는 마치 설교를 하려는 것같이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일본군인이 사살되었던 것 때문에 그들에게 끔찍한 징벌을 고안해 내었다. 약 30명이 모였던 교회에 석유를 뿌리고 군인들이 교회를 불태워 버렸다. 3명이 살아 남았다. 아이들이 포함한 나머지 사람은 사로잡혀 죽었다. 그 군의 8개 읍에서 군인들은 15개 마을을 불태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 땀에 죽었다... 조선은 교수대로 뒤덮였다. 감옥들은 체포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다. 공장, 교회와 다른 건물들이 급속하게 감옥에 적합하도록 개조되었다. 도시와 농촌 마을에 군인들은 기관총을 설치하였고, 도처에 군인과 경찰들이 순시하였다.<sup>264)</sup>

## 2) 일제의 '전시적 폭력'이 남긴 기억

일제의 폭력은 그 수단이나 잔혹함만으로도 대중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 충분했다. 자칫 잘못 하였다가는 일제의 총검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취한 '전시적 폭력'

---

264)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p. 77~78.

은 충분히 그에 대한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다. 일제에 수긍하고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은 언제 어디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당당하게 독립운동이나 한 번 벌여보자는 다짐을 불러올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었던 의병 잔존 세력들의 항일 활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웅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귀에도 이따금씩 가까운 만주 국경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사건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다. “이틀 전에 10인조가 들어와서 왜놈을 여섯 놈이나 죽였대. 우리 편은 한 명 밖에 안 죽였대. 나머지는 국경을 넘어 멀리 사라져버렸대.”...“우리 형도 지난주에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지냈어. 다른 투사 다섯명과 함께 돌아와서 평양 근처에서 왜놈 보초들에게 총을 쏘았어.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눈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왜놈들에게 붙들리지 않았다.” 영웅에 대한 존경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독립군에 가담해서 침략자 왜놈들을 기습공격하기 위해 공격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오겠다고 새로이 결의를 다지곤 했다.<sup>265)</sup>

박성수는 “어디서 패전했던 간에 동학혁명군과 의병군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의병정신이 불타 있었고 그것이 3.1운동과 청산리 대첩으로 이어져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다.<sup>266)</sup> 충청도 지방에서는 의병으로 활동했던 장병들이 3.1운동 시 충청도 각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267)</sup> 일제의 의병 탄압은 끔찍한 살상이었고 이는 조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하지만

---

265) Wales, 2005, pp. 76~77. 김산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3월 10일에 태어났다고 밝혔고 이 일화는 그가 일곱 살 때 겪은 것이라고 회상했다. Wales, 2005, p. 70.

266)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96.

267) 김진봉, 2000, pp. 146~158.

일제가 행했던 ‘전시적 폭력’은 오히려 대중으로 하여금 만세운동에 동참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조선 사람들을 탄압하여 길들이겠다는 명목 하에 어차피 일제는 운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가리지 않고 탄압하려 들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이 가질 수 있었던 상반된 생각은 만세운동의 참여 원인으로 의병전쟁을 거론하는 기존 연구들의 양분된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의병전쟁 복수를 위한 만세운동 참여?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대중의 만세운동 참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병전쟁의 경험과 그 기억이 조선 대중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는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다. 의병전쟁을 경험하며 성장한 항일정신으로 인해 민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의병전쟁을 경험한 지역에서는 만세운동이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박찬승은 전남 지방에서는 한말 의병에 참여했던 유생과 농민들이 다수 체포되거나 전사함으로써 이 지방의 투쟁역량이 크게 손실되어 3.1운동이 미약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같은 사례를 두고 김기주는 박찬승의 지적은 잘못된 판단이며 오히려 의병의 피해가 컸다면 그로 인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이 더 깊이 각인되어 만세운동에 더욱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268)</sup> 이정은은 박찬승과 같은 입장에서 전라도는 학생 수가 적은데 반해 이들이 3.1운동의 주동 세력이 되었다는 점을 지목하며, 이는 동학과 의병전쟁으로 입은 피해와 일제의 경제적 침투가 커서 지역공동체의 해체가 심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3.1운동은 동학이나 의병전쟁 때 피해를 입지 않고 역

---

268) 박찬승, “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학연구』, Vol. 9 (1995), pp. 383~406; 김기주, “3.1독립운동에서 호남인의 참여도 검토,” 『역사학연구』, Vol. 37 (2009), pp. 69~108.

량을 보존해온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은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경상북도 영덕군 내에서 북부지역은 공세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난데 반해 남부지역은 비교적 온건한 만세운동으로 진행된 차이를 토착 유림층의 존재 여부로 설명했다. 즉, 토착 유림층이 주도했던 북부지역의 운동은 공격적이었던 반면, 토착세력이 약한 남부지역의 운동은 평화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그의 주장은 다소 엇갈린다. 종족마을이자 토착세력이 강한 안동지역에서는 의병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었는데, 이후 3.1운동 때에는 의병전쟁으로 인한 혹심한 피해로 인해 종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자제하는 쪽과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의병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토착 세력의 존재 여부가 3.1운동의 양상을 결정했다고 상기 제기한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군과 함안 양 지역은 일본인의 이주가 적어 종족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하지만 합천군은 의병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가 적어 지역의 역량이 보존되어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한 반면, 함안은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전통과 의식을 계승하여 치열한 3.1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sup>269)</sup>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전국에서 벌어진 모든 만세운동을 한 가지 요인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내세워 설명하려고 시도한 데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 3. 인간 존엄성의 회복

#### 1) 조선 사람들을 대하던 일제의 방식

---

269) 이정은, 2009, pp. 165~169, 205, 208~212, 217~218, 265~266. 물론 이정은이 명시한 함안의 의병운동은 임진왜란 당시 일어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험과 의식이 3.1운동으로만 이어지고 이전 한말 의병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논리상 매끄럽지 않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신문들에서조차 그간 일제가 행해왔던 조선인에 대한 대우가 심했다는 자기반성적 의견이 대두되었다.

조선인 중에 범죄인이 있을 때, 이를 수사하러 간 헌병이 범인의 아내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곤 했다. 선민(鮮民)은 이 폭행에 대해 구제를 요구받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검사도 헌병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범죄인을 검거할 수 없으니 헌병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병합 이래 거의 9년에 걸친 무단통치는 우리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지나쳤다. 일본 통치에 비분의 감정을 느끼는 자가 적지 않다. 일본인은 주둔장병은 물론이요 대소 관리로부터 보통학교 훈도에 이르기까지 철컹철컹 장검을 차고 시가를 활보하고 있다. 이에 아무리 무지한 야만인일지라도 어찌 내심 유쾌할 수 있겠는가.<sup>270)</sup>

이러한 반성이 제기될 만큼 식민지하 일제의 탄압은 단지 조선인을 경제적 혹은 물리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해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을 끌어내어 “여자와 남자의 옷을 벗겨 나체로 둘씩 나무에 묶어 놓고 희롱”<sup>271)</sup>하는 등의 일은 그마나 나은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을 단순히 무시하고 그들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같은 동격의 인간이 아닌 억압하고 겁을 줘야 말을 듣는 동물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다. 님 웨일즈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이 1912년에 겪은 일화를 살펴보면, 일제 군인과 경찰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폭력을 마음껏 휘둘렀다.

---

270) 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No. 62 (역사문제연구소, 2003), pp. 263~286.

271) 박성수, 2003, p. 410.

순사 두 명이 우리집에 와서는 어머니 얼굴에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마침내 어머니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왔다....“왜 그놈들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왜놈들이 억지로 예방주사를 놓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가서 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왜놈들 기분이 상한 거란다. 오늘은 집안일이 많아서 내일 틀림없이 예방 주사를 맞겠다고 했더니 그놈들이 화를 낸 거란다.” 어머니는 목 메인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다. “그놈들은 여인네를 업신여긴단다. 하지만 너는 절대로 그놈들의 신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sup>272)</sup>

일제의 비인륜적인 행동은 비단 일시적인 폭력에 의해서만 나 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것처럼 많은 성벽을 부숴고, 명예로운 건물을 옮겨 세웠으며, 오래된 묘를 파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악질인 것은, 묘에서 사자에게 공양한 고귀한 도자기를 훔쳐낸 것이다... 도로 건축을 한답시고 야만인들은 낡고 낡은 묘지를 많이 발굴하여 모독했다. 사람들이 산 밑을 걷고 있노라면, 종종 사람의 뼈다귀가 머리 위로 떨어지곤 했다... 나도 하늘이 인간의 그런 비행을 복수하리라고 믿었다.<sup>273)</sup>

동래(東來)에서는 “철도공사 중에 철로부지 안에 있는 산소(山所)는 모조리 파서 그 해골을 모아 태워” 버렸다. 또한 일제는 조선 사람들에게 분묘(墳墓)를 파가라고 독촉했는데 그 수는 50여만 기나 되었으며, 정한 날짜까지 이장(移葬)하지 않으면 시신을 파내어 불태워 버린다고 했다. 경상남도 밀양군 부내면 사문동에서는 일본인들이

---

272) Wales, 2009, pp. 72~73.

273) 이미륵, 2000, p. 132.



농상공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묘지 수백 곳을 파헤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 조상의 백골이 겉으로 드러난 채 방치되자 묘 자리의 가족들은 여러 번 관청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이기지 못하여” 일본인들을 죽이고 싶어 했다.<sup>274)</sup>

## 2) 만세운동에 대한 탄압

3.1운동 때 평양 숙명여중의 한 여학생은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시위행렬에 참가했었다. 일본 기마경찰이 그녀의 오른손을 베어버리자 여학생은 왼손으로 국기를 주워들고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에 경찰은 다시 칼을 휘둘러 그녀의 왼손마저 베어버렸다. 4월 2일 충청도 진천군에서는 총탄에 맞아 쓰러진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역시 총탄에 맞아 죽은 참변도 발생하였다. 천안군에서는 일본 헌병에 항의하다 총탄에 맞고 쓰러진 자를 헌병이 달려들어 머리를 박살내고 총검으로 마구 찔러 죽였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보고 쓰러지자 일본군은 그 어머니 또한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sup>275)</sup> 이희승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 “일제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순경이나 헌병이 아니라 일본인 ‘고가다 패’를 동원하여 불시 습격을 감행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몽둥이에 못을 몇 개씩 박아 그것으로 마구 후려 갈겼다. 그리하여 이 몽둥이에 얻어 맞기만 하면 골통이건 어깨건 팔뚝이든지 등덜미든

274) 박성수, 2003, pp. 298~299, 337;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2일. 1912년 6월 결국 일제는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을 공포하여 철로와 도로 등으로 지정되면 무덤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강요했다. 박성수, 2003, p. 429.

275) 유기석, 임원빈 번역, 최기영 해제, 『三十年放浪記: 유기석 회고록』(서울: 國家報勳處, 2010), p. 7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pp. 67~71.

지 못에 찢려서 큰 상처가 생기곤 하였다.”<sup>276)</sup> 이는 애초에 일제는 군경에 의해 조선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는 일본 군경이나 총독부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조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3월 4일 서울 연합신학대학 재학생은 일본 민간인이 한국 소녀의 머리채를 끌고 가며 심하게 구타하는 모습을 보았다. 일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단지 그 소녀가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기 때문이었다.<sup>277)</sup>

젊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독립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거리를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기차역으로 향하던 군중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만났다. 그들은 태극기를 잡아채기도 하고 총검으로 사람들을 내려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뭇잎처럼 쓰러져갔는데,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이 짓밟히면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일본 군인들은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곤죽이 되도록 패기만 하였다.<sup>278)</sup>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행진을 하던 만세 군중에게 일본 헌병과 경찰들은 소총과 총검을 사용했고 ‘곤죽이 되도록’ 때렸다.

또한 일제는 처음부터 만세 군중을 ‘폭도’라 불렀다. ‘폭도’란 “표면적으로 폭력적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과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을 지칭한다.”<sup>279)</sup> 일본신문과 공문서에서는 “폭도가 구한국기를 내걸고 정거장에 몰려와서 만세를 외치고... 1만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와

---

276) 이희승, 1989.

277) 김진봉, 2000, p. 225.

278) Kang, 2011, p. 53.

279) 최정운, 1999, p. 63.

돌을 던졌다”는 식으로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폭도라 기록되어 있다.<sup>280)</sup> 이처럼 글로 남겨진 기록은 분명 당시 조선 사람들을 부르던 일제의 말의 기록일 것이다. 일제가 ‘폭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한 것은 “평소에 가진 뿌리 깊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이 기회를 틈타 폭력과 방화 등으로 표출”했다는 식의 3.1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다.<sup>281)</sup> 그러나 일제는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게 선전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이 ‘폭도’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조선 사람들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에 자신의 군사적 대응은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일제의 총검에 맞서 돌맹이를 든 조선인들이 과연 폭도라고 불려야 했던 존재였을까는 의문스럽다.

물론 서북지방과 경기도 남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조직과 향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관공서 직원들을 몰아내고, 완전 독립을 내세웠던 다소 과격한 운동도 있었다. 하지만 이도 관공서나 헌병분소를 찾아가서 요구사항을 호소하거나 다소 과격해지면 면사무소나 경찰관 주재소에 돌맹이를 던지는 것이 전부였다. 만세운동이 진행될수록 조선 군중의 공격적인 모습이 좀 더 드러났다면 이는 이미 ‘폭도’, ‘폭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그 말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변형한 것인지도 모른다.<sup>282)</sup>

280) 윤소영 편, 2009(b), p. 292

281) 5.18에서 ‘폭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이유에 대해 최정운은 “‘폭도’라는 하나의 단어는 이미 5.18 전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운, 1999, p. 63.

282) 이에 대해 한기형은 ‘폭민’, ‘폭도’란 단어의 사용이 신문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잠재적인 죄수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심리적 공포를 불러일으켜 종종 사회적 좌절감과 제국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한기형,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민족문화사연구』, No. 40 (2009), pp. 191~229. 이는 그 논리가 일정 타당하나 실제 3.1운동의 진행과 종결 과정을

사실 만세군중은 일본 군대와 싸울 준비로 동리 산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을 뿐이니 총검을 든 일본인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sup>283)</sup> 그 예로, 평안남도 선천에서는 곤봉, 낫, 도끼 등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챙긴 약 200명의 군중이 헌병분대로 가서 유리창을 파괴했다. 이에 헌병대는 군중에게 발포를 하였다. 마산에서는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던 조선인들에게 일본 헌병이 더 이상 전진하면 발포하겠다고 위협을 했었다. 행진하던 사람들이 일본 헌병보조원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릴 때 보조원이 발사한 총에 맞아 김수동이 쓰러졌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변갑섭이 김수동이 들고 있던 태극기를 집어 들어 헌병의 머리를 쳤다. 그러자 그 헌병은 장검으로 변갑섭의 양어깨를 내리쳐서 그는 두 팔이 잘린 채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조선 군중은 길가의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sup>284)</sup>

신문과 재판 기록에는 만세운동을 벌이던 군중의 행동을 막기 위해 일본 경찰과 헌병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하며 총검과 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누가 먼저 무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누가 먼저 무력을 사용했나’라는 사실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지적하였듯 이는 누군가에 의해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앞뒤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헌병대 전부를 격살하자고 절규”한 군중들이 있었지만, 기록에는 헌병대의 부상자와 사망자 숫자는 명시되지 않았고 다만 절규한 ‘폭도’들에 대한 사살만 적혀 있는 것이다. 함경북도에서 약 1천명 이상의 ‘폭도’가 모여 ‘불온한 행동’을 했을 때도 조선인 사

---

염두에 두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한다. ‘폭민’, ‘폭도’란 단어는 운동의 시작과 함께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형의 논리로는 5월까지 지속되던 조선 대중의 만세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3.1운동의 종결은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일제의 증파에 따른 것이기에 일제에 대한 순응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83) 이정은, 2009, p. 142.

284) 『독립운동사(3)』, p. 247.

망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일본군의 피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285)</sup>

3.1운동 시기에도 일제는 ‘전시적 폭력’을 가했다. 수원 화수리에서는 만세를 부르던 수장 손찬호가 칼로 72군데나 난도질당했고, 마을에 있는 집들은 모두 불탔다. 또한 수촌리에서는 30명의 일본 수비대가 집집마다 불을 놓고는 뛰쳐나오는 주민들에게 총을 난사했다.<sup>286)</sup> 평안북도 정주군에서는 만세 군중이 3월 11일 면사무소를 습격했고, 31일에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의 주도로 4,000명의 군중이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시가행진을 했다. 일제는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칼과 쇠갈고리를 휘두르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4월 2일 새벽에는 천도교 정주교구당을 방화했고, 이날 밤에는 정주 용동 오산학교와, 기숙사, 용동교회를 방화했다. 방화의 시각은 어둡고 주변 사람들이 없을 때로 누군가의 소행인지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함경북도 성진군에서는 3월 10일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조직되어 일본군과 투석전이 벌어졌었다가 모두 해산되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일본인 소방대들은 도끼와 경찰용 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도끼로 찍고 총으로 쏘아 죽였다.<sup>287)</sup>

### 3)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만세운동의 참여?

파농은 식민지 지배자들은 오로지 무력으로써 피지배자들을 상대하며, 이러한 폭력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마치 윤리의식과 가치관

---

285) 윤소영 편, 2009(a), p. 108, 109, 119, 144.

286) 최홍규,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京畿 史學』, Vol. 6 (2002), pp. 267~297.

28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pp. 449~452, 762~769.

자체가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즉,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비인간화한다. 쉽게 말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피지배자들은 “자신이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인식하며, 인간성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무기를 버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비록 억압을 당할지언정 길 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는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되지만 자신의 열등함을 진심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자들의 “오만한 태도와 식민지 제도의 힘을 시험하려는 시도는 원주민에게 최후의 결전이 무한정 연기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시각각 일깨워준다.” 그리고 피지배자들은 “자신의 동포들이 마치 개처럼 죽어가는 순간부터는 오로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역설했다.<sup>288)</sup>

최정운 역시 5.18 당시 시민들이 공수부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차적인 근거는 ‘개 패듯 팬다’, ‘아무리 짐승에게라도 그렇게 잔인할 수 없다’고 하는 “폭력이 인간의 신체에 가해지는 모습”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큰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는 행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하며 5.18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그 가치는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성’이었다고 밝혔다.<sup>289)</sup>

위의 두 절에서 살펴보았듯 일제는 조선인을 경제적 혹은 물리적으로 괴롭힌 것만이 아니라 나체로 벗겨 희롱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력을 가하고,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등 심리적인 폭력을 가했다. 또한 3.1운동 때는 ‘고다기패’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마구 패고, ‘전시적 폭력’을 연출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던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은 ‘민족’과 ‘후손’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큰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며 만세운동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민족독

288) Fanon, 2004, p. 62, 74, 333.

289) 최정운, 1999, p. 162, 266.

립의 햇불을 들 때가 왔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개·돼지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후환을 끼치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항일독립전선을 펴고 꺾기할 때다”<sup>290)</sup> 라고 자신들이 역사 속에 존재함을 상기시키며, 이제 그들이 무엇을 위해 만세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만세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 모두가 투철한 독립투사이거나 어떠한 울분이나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 4. 수치심과 주위의 압력

일제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조선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지만 조선 민족의 의기를 드높여 위정자에게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만세운동을 하면 조선 민중의 뜻이 강화회의에 전달되어 독립을 할 수 있다. 셋째,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소외가 된다. 넷째,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에라도 독립이 되었을 때 학대당하여 세상에서 사람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독립이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만세를 외쳐야 한다.<sup>291)</sup> 이번 절에서는 이중 셋째와 넷째 동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 한다.

만세운동의 준비는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졌다.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서는 면사무소 서기인 이계성의 주도하에 만세운동이 준비되었다. 이계성은 자신의 지인인 해미보통학교 반장 출신인 김관용의 집으로 가서 “다른 학교에서 모두

290) 김봉렬, “마산 삼진의거의 3.1운동사적 고찰,”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총서』, Vol. 8 (2003), pp. 223~258.

291) 『독립운동사자료집(6)』, pp. 495~496; 종종 아무런 자신이나 자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김진봉, 2000, pp. 206~207 참조.

조선의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데도 우리 학교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만세운동을 할 것을 설득했다. 이에 김관용이 찬동하자 이 둘은 함께 다니며 해미보통학교 졸업생인 유세근, 김연택 등의 집에 가서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3월 24일 밤 7시경 해미보통학교 졸업생 환송회에서 김관용은 참석자들에게 이계성의 뜻을 전달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였고 밤 11시에 다시 모여 보현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 그리고는 읍내에 있는 면사무소와 소시장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조선 독립으로 각지에서 만세를 부르니, 자기들 동리에서 오늘 저녁 모여 일제히 만세를 부르자,” “다른 동리 사람들이 하니 우리 동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마을 단위로 연락을 취해 “오늘 면사무소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니 모여라,” “각 곳에서 만세를 부르므로 자기 동리에서도 부르지 않으면 면목이 없”다며 만세운동을 벌였다.<sup>292)</sup>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같은 조선인으로서 우리만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일종의 수치심은 만세운동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하는 이유들 중 하나였다.

유림인 김창숙은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다. 실로 나라가 망한 원인을 따져 보면 이 유교가 먼저 망하여 나라도 망한 것이다. 지금 광복운동을 선도하는 데 있어 3교의 대표가 주동을 하고 소위 유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세상에서 유교를 꾸짖어 오할한 선비·썩은 선비와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썼으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말하며 유림 세력의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삼남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란 격문이 나돌기도 했으며 충청남도 대호지면에서는 “현재 각 지방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있음에 서산군에서 부르지 않음은 다른 지방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니 우리도 고창해야 한다”는

292) 김상기, “瑞山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36 (2010), pp. 221-24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pp. 330~333; 『독립운동사자료집(5)』, p. 542.



것이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동기였다. 대전에서도 휘문의숙 재학생 김완수는 서울에서 독립선언서 등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원래 알고 지내던 상인을 만나 “3월 초 이후 각지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전에서는 그러하지 못함은 우리 조선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이 대전 장날을 이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제안을 받은 김창규 역시 안동시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조선이 독립되어 전국 각처에서 모두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때에 유독 대전만이 빠지고 있음은 큰 치욕이 아니냐”고 연설하며 사람들을 독려했다.<sup>293)</sup> 이처럼 일종의 수치심에 의해 만세운동은 민족대표들의 지역조직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독려하거나 혹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세운동 장소에 나오기도 했다. 또 일부는 혹시 독립만세운동이 성공해서 조선이 독립을 이룬다면 운동에 호응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로 구분되어 자신이 소외될 것이 두려워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sup>294)</sup> 즉,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받거나 나중에 독립이 되면 두고 보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우선은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장소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일제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운동의 주동자들은 “부민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독립한 뒤 가차 없이 살해할 것이다,” “독립운동 현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집집마다 3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군함이 이미 인천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후일 목이 달아날 것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17세였던 장석

---

293) 김남석, “대호지 3.1운동의 전개와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35 (2010), pp. 235~272; 김진호, “대전지역 3.1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 『충청문화연구』, Vol. 2 (2009), pp. 1~21.

294) 『독립운동사자료집(6)』, pp. 495~498.

달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각 마을별 연락원이 집들을 방문하여 1집당 1명 이상씩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하였고, 만약 참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가회면에서는 주민동원을 위해 만세운동 주동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락 단위로 나온 사람 이름 적는다,” “빠진 사람 여기 못살게 한다,” “집을 두드려 부순다”며 전 주민을 참여케 했다고 한다.<sup>295)</sup>

## 5. 소결

서울에서 3.1운동을 도모했던 학생·종교 조직에 의해 만세운동의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고, 이에 경제적 수탈과 일제의 억압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민중이 ‘당연하게’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서술은 그동안 3.1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우리의 시각을 단순화시켜왔다. 이는 민족주의의 확산을 하나의 요인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모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근대론 민족주의의 무비판적 적용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가 민중을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운동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 그들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민중이 “나는 독립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남들이 만세를 부르니까 불렀을 뿐이다”라고 한 일제 사법기관의 진술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II장에서도 살펴보았듯 민중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불만과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로 여겨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들은 동학과 의병전쟁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는 또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벌였을 때 어떠한 대가를 받을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해봤다’는 말은 만세운동

---

295)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556, 178; 이정은, 2009, p. 231.

초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서나 나올법한 얘기이다. 이후의 만세운동에서는 자신들이 만세운동을 했을 때 일제의 총검과 소총에 의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그들은 것처럼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만세운동의 대중적 참여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함과 함께 그들의 행동 논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토지조사사업 등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민중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통적 농촌 공동체를 와해시켰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민중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에 민중은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거나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켰고, 민중은 만세운동의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확실적인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즉, 경제적 침탈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만세운동의 대중 참여를 설명하는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의병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토착 세력의 존재 여부가 3.1운동의 양상을 결정했다는 논리 역시 모든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장에서는 파농과 최정운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하나의 참여 동기로 제시하였다.<sup>296)</sup>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신문들에서조차 그간 일제가 행해왔던 조선인에 대한 대우가 심했다는 자기반성적 의견이 대두될 만큼, 식민지하 일제의 탄압은 단지 조선인을 경제적 혹은 물리적으로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영향을 미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해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이 마치 개처럼 죽어가는 순간부터’ 조선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으려고 하였고, 이에 당시 항일투쟁인 만세운동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만세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 모두가 투철한 독립투사이거나 어떠한 울분이나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종종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안

---

296) Fanon, 2004; 최정운, 1999.

된다’는 일종의 수치심 혹은 무언의 압력에 의해 만세운동에 나섰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독려하거나 혹은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했다.

상당한 양의 지면을 할애하며 본 장에서는 ‘사람들은 왜 만세운동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이는 식민지에서 피지배자들은 수탈당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어 특정한 상황이 형성되면 ‘당연하게’ 운동에 참여한다는 기존 연구 시각에 대한 회의(懷疑)에 따른 것이었다. 태로울을 비롯한 몇몇 사회운동 이론가들은 박탈과 결핍은 대중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들로 하여금 사회운동에 나서게 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오리어리는 대중은 단순히 지도 세력으로부터 제시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님을 지적하며, 대중의 행동 논리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했다.<sup>297)</sup>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필자가 얼마나 당시 현실에 좀 더 접근하였으며 또한 모든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에 충실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유로 인해 만세운동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참여 동기가 무엇이었던 이들이 만세운동 장소에 나섰다는 것은 3.1 운동을 계획·조직하고 이끈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담론의 장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담론의 형성에는 모든 개인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그 ‘권력의 그물’ 안에서 경험을 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그 그물을 변화시킨다. 즉, 각자의 참여 동기가 무엇이었던 사람들은 3.1운동이라는 ‘민족 담론’의 틀 안으로 들어와 이제 그 의미를 재생산하게 된 것이다.<sup>298)</sup>

---

297) Tarrow, 2011; O’Leary, 2001.

298) 최정운은 5.18 시위 현장 자체가 정치교육의 장이며 “개개인은 각자 다른 동기에서 참여하며 투쟁의 와중에 또는 그 이후에 투쟁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해석을 통해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최정운, 1999, p. 109~110.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각기 다른 동기로 인해 모여든 사람들이 그 현상에서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항일 독립운동인 3.1운동의 경우 이미 운동을 주

## VI. 3.1운동의 영향

이전 장들을 통해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민족 자결과 독립을 외치고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지식인을 비롯한 3.1운동 주도 세력의 등장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이들이 형성해 놓은 민족주의 담론의 장(場)에 들어온 대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만세운동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경험은 민족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지식인들이 주도하여 선언문과 신문을 통해 제시된 민족이란 개념은 사실 민중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즉, 민중은 선언문과 신문의 글이 아닌 실제로 만세운동을 하는 현장에서 민족의 의미를 깨우치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1. ‘민족’ 담론의 재생산

몇몇 지도층을 제외한 조선 사람들에게 3.1운동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오늘은 만세를 부르는 날이다”라고 하며 장터에 나왔다. 이곳에서 어린 아이들은 태극기라는 것을 처음 보고 그것이 너무 예뻐 흥분하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독립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너도 나도 정신없이 그들을 따라 춤을 추었다. 또한 횃불을 들고 거리를 따라 행진하기도 했다. 이때 거리에는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온통 ‘하얀색 물결’이었다.<sup>299)</sup>

---

도한 사람들에 의해 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이후 참여자들에게 의해 재생산되었다고 보는 바이다.

299) Kang, 2011, p. 50, 53.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처럼 당시 조선은 흰 옷을 입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인들은 대개 아래 위로 흰 옷을 입는다. 논에서 쟁기질하는 농부는 흰 수건을 동여매고, 흰 적삼과 헐렁한 바지를 입고는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린다....고급 비단조끼 저고리와 긴 두루마기며 발목을 대님으로 맵시 있게 동여맨 바지 등 모두가 흰색이다. 여자들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흰 천으로 지은 짧은 저고리와 긴 주름치마를 입는다.<sup>300)</sup>

하지만 실제로는 평민들의 옷에도 과거 왕적이나 관리들의 옷에만 쓰이던 밝은 색상들이 자주 사용됐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은 항상 현란한 색의 옷을 입었는데 이는 서양인들의 눈에는 상당히 이상한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한 자주색과 연분홍, 초록, 빨강, 노랑 등은 갈색 흙벽의 우중충한 작은 집을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며, “여러 가지 색깔의 줄무늬로 소매를 꾸민 아이들의 옷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옷과 비슷하다”고도 평하였다. 1900년에 이르자 서울 사람들의 옷차림은 더욱 화려해졌고 서울은 “양복쟁이가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되었다.<sup>301)</sup>

이처럼 복색의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에 만세운동 현장에서 ‘하얀색 물결’을 이룬 것은 단순히 조선은 ‘흰 옷을 입는 나라’였기에 그러했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장 당시 백립(白笠) 관용자(冠用者)는 주민의 약 반수에 달했다. 이해령은 이들 표조자(表弔者)는 조선이나 고종에 대해 어떠한 미련이나 충성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단지 “이 기회에 평소에 품고 있던 배일사상, 적어도 구한국을 회상하여 불평과 단념할 수 없는 관념을 표조에 의하여 자위(自慰)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

---

300) Avison, 2006, p. 227.

301) Avison, 2006, pp. 227~228; 박성수, 2003, pp. 294~295.

은 점차 조선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 국장 당시 백립 관용자가 약 반 정도였던 것이 비하여 마칠 때는 거의 전부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진정을 규지(窺知)”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장에 걸맞게 의관을 차려입을 수도 있었지만 조선 전통 복식인 흰옷을 입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sup>302)</sup> 이에 전국 포목상(布木商)에 백목(白木)이 동이 났고 백립을 쓰지 못한 사람은 감히 길에 나다니지 못했다. 그래도 굶이 나가야 할 사람은 검은 갓에 흰 종이를 둘러 상복 차림을 대신하기도 했다.<sup>303)</sup>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디는 민족운동을 이끌며 ‘복장의 정치’를 수행했다. “간디는 복식 기호학의 달인이었다. 그는 복식을 칼이나 총보다 더 능란하게 구사했다... 그의 복장은 그가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서구의 형식을 거부하고 인도의 형식을 지향한다는 것을... 그것은 또한 그가 농민과 일체화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었다. 영국인에게 간디의 옷차림은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또한 중요하게는 정치권의 규범들에 대한 거부의 신호였고, 영국의 가치들을 흡수했던 교육받은 한 인도 엘리트가 지금껏 동의해 왔던 협력을 거부하겠다는 신호였다... 간디에게 그 전술은 완벽하게 볼 거리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sup>304)</sup> 간디의 ‘복장의 정치’는 식민지 지배 당국에도 영향을 줄 만큼 파급력이 큰 것이었다. 간디의 복장을 본 윈스턴 처칠은 “반(半)벌거숭이 수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폐하의 대표들과 교섭을 하기 위해 총독궁의 계단을 오르는 험오스러운 광경”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sup>305)</sup>

조선에서도 간디의 ‘복장의 정치’와 비슷한 현상이 3.1운동 당시 나타났던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의미와 의도를 갖고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만세운동이 있는 날이면 으레

302) 『독립운동사자료집(6)』, pp. 481~482; 이혜령, 2009.

303) 박성수, 2003, p. 91.

304) Young, 2003, p. 574.

305) Young, 2003, p. 574.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얀 새 옷을 입고 그 모임에 참가할 준비를 했다.”<sup>306)</sup>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흰옷을 입기는 했지만 그 옷이 깨끗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수 개월간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한 벌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 입는 옷과 외출복의 개념도 없이 일할 때나 잘 때나 놀 때나 항상 같은 옷을 입었다.<sup>307)</sup> 그런데 만세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하얀 새 옷’을 꺼내 입었다. ‘서구의 형식을 거부하고 인도의 형식을 지향한’ 간디의 복장 정치와 같이, 흰 옷을 꺼내 입은 조선인들은 복색의 변화가 나타난 현재의 형식을 거부하고 조선인의 오래된 정체성(identity)인 흰색 옷을 지향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흰 옷을 챙겨 입었다는 것을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하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이 간디의 옷차림을 보고 자신들이 세워 놓은 정치적 규범들에 대한 거부이자 더 이상의 협력을 거부하겠다는 신호로 여긴 것처럼, 일제는 조선인들이 흰 옷을 입는 것을 자신의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로 여겼을 것이다. 때문에 일제는 만세운동 현장에서 이렇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조선인들을 향해 ‘검은’ 물감을 뿌렸다. 일제의 이런 만행은 국망 전에도 행했던 것이었다. 1905년 조선인들이 을사조약을 철회하라는 상소운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일제 헌병들은 “상소하러 올라온 유생들을 만나면 등에다 먹으로 개 ‘犬’ 자(字)”를 써 붙였고, 흑의(黑衣)를 입으라는 훈령(訓令)을 내려 흰 옷을 입고 상경한 사람들은 성내(城內)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다.<sup>308)</sup> 이는 곧 ‘흰옷’으로 대표되는 조선인의 민족적 색채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이 행한 민족운동에 대한 저술들을 남긴 간디와는 달리 민

---

306) Kang, 2011, pp. 106~108. 지방민의 증언에 따르면 만세운동 시 물걸리 입구 장마당에 수천 명의 흰 옷 입은 농민들이 운집하였다.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p. 179.

307) Avison, 2006, p. 228.

308) 박성수, 2003, p. 354.



족대표 등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만세운동에 대한 자신의 사상적 혹은 정치적 견해를 따로 밝혀두지 않았다. 따라서 엄밀하게 논증할 수는 없지만, 3.1운동은 간디가 주도한 민족운동처럼 시각적인 효과를 상당부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Ⅲ장에서 지적했듯이 민족대표가 내세운 비폭력 노선, 즉 만세를 부르고 시가를 행진하는 행동, 은 누구나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비폭력 운동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을 염두에 둔, 즉 상대방의 시선에 예리하게 대응한 것이었다. 둘째, 3.1운동은 만세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여기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으레 모두 만세를 외쳤다. 그런데 이 만세는 단순히 목청을 높여 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 즉, 만세라고 외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전체적인 외형(silhouette)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세를 외치면 멀리서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만세를 못 알아듣는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민족주의의 전파에 있어 신문 등 인쇄 매체물의 중요성을 지적한 앤더슨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와 같이 만세를 외치는 동작이나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등이 사진으로 찍혀 전파된다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컸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조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이들에게 가해지는 일제의 탄압과 폭력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흰 색 옷에 검은 물감이 뿌려지거나, 총검과 소총에 의해 다쳐 피가 스며들면, 이는 어떤 사람이 보아도 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 모인 장소에서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일차적으로 인식되었을 민족적 동질감은 실제로 만세운동을 벌이며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 민족주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정의하는 민족에 대한 개념적 차이를 떠나 민족의 형성에 있어 민족적 상징, 의식, 역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3.1운동에서도 운동의 주도자들은 모여 있는 조선 군중을 향해 “민족독립의 횃불을 들 때가 왔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개·돼지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후환을 끼치는 것이니, 지금

이야말로 항일독립전선을 펴고 쫓아갈 때다”라고 자신들이 역사 속에 존재함을 상기시키며, 이제 그들이 무엇을 위해 만세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또한 “너희들은 여러 해 조선인을 멸시하여 왔으나 조선인은 이미 병합 당시의 조선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지난날의 모습과는 다른 새롭게 각성되고 태어난 자신의 모습을 설정하며 스스로를 확인하였다.<sup>309)</sup> 이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다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 설혹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의 후손들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sup>310)</sup>라며 자신들의 행동의 목적을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질서 및 공동체와 선을 굽고 타인을 지독하게 감시하며 개인적 권익을 찾으려 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조선 민족이라는 의식 하에 자신과 후손 간의 연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세운동을 하던 조선 사람들은 무언가 가슴이 벅차고 피가 끓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던 일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 ‘재산도, 농사일도, 일신상의 안전’을 잊은 현실 세계의 모든 걱정을 뛰어넘은 ‘초현실(超現實, surreal)’<sup>311)</sup>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집요하게 지키려고 했던 권익 혹은 빈곤과 탄압을 겪으며 쌓였던 불만 등은 ‘애국열의 물결 속’에서 잊혀져갔다.

309) 김봉렬, 2003;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556.

310)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p. 557.

311) 상술하였듯 이해령은 3.1운동을 “‘생업’을 손에서 놓아버린 것에서뿐만 아니라 아예 삶 그 자체를 넘어서고자 했던 초(超)일탈의 경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해령, 2009. 아마도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정도가 상상 이상인 상황을 묘사하고 강조하고자 ‘초일탈’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 하지만 ‘일탈’은 어떠한 규범적·윤리적 판단이 들어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超)’는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거나 영역 밖에 있음을 의미하기에 어떤 정해진 영역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일탈’과 함께 쓰인다면 의미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현실 세계에서 가지는 모든 걱정을 뛰어넘은 상태 혹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초현실(超現實, surreal)’이란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나는 흥분한 나머지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3월 1일에 끼니를 잊은 조선인이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독립선언문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 듣고 있자니 **피가 끓어올랐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자유를 위한 열혈을 땅에 흘릴 것이니’란 대목에서 특히 그랬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에 그만큼 강한 이상주의적인 희망도 있었던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된다... **재산도, 농사일도, 일신상의 안전도 애국열의 물결 속에서 모조리 잊어버렸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특이한 운동이었다.<sup>312)</sup>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며 ‘속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나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의식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다. 대중운동의 힘이 내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나 자신의 영혼에 불을 지른 저 장려한 대목을 열광적으로 쓰고 또 썼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내 정치경력은 3.1운동으로 시작되었다.”<sup>313)</sup> [강조는 인용자]

‘속눈’이 떠지고 나자 “민족 전체가 명실여일(名實如一)하게 1인도 빠지 않고 일치 단결되며 동심 협력하여 독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전 민족이 국가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죽음을 기뻐하였던고... 그 때 2천만 동포는 주의도 계급도 모른다. 다만 불타는 애국심, 조국의 자유를 사모할 뿐이었다”<sup>314)</sup>라는 김창준의 회고처럼 이제 조선인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일치단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 의식은 V장에서 살펴보았듯 만세운동 장소에서 행해지던 일제의 폭력을 목격하며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일제 헌병이 순검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일본 시민은 ‘부역칼’을 들고 조선인들을 마구

312) Wales, 2005, p. 90, 94.

313) Wales, 2005, p. 91, 99.

314) 김창준, 2011, p. 100.

찢렸다.<sup>315)</sup> 조선 사람들은 겁을 줘야 말을 듣는 동물처럼 여겨졌고 일제는 ‘전시적 폭력’을 빈번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폭력이 행해지는 장소를 목격하며 조선 사람들은 분노와 울분을 느꼈다. “기독교 여신도들이 거리에 모여서 찬송가나 민족독립가를 부르고 있을 때 일본군들이 그네들을 향하여 발포하는 것을 몇 차례나 목격하였다. 일본군은 대검으로 찌르기도 했다... 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주먹이 근질거렸다.”<sup>316)</sup> 이때 느낀 분노, 울분, 복수심은 이전까지 자신에게 가해지던 고난에 의한 것이 아닌 ‘민족’이 당하던 치욕에 대한 감정이었다.

지식인들과 민족대표 등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민족주의 담론은 이렇게 3.1운동 현장에서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론에서 정의하였듯 담론은 주변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인해 3.1운동에 참여했다. 투철한 독립의지를 지녔던 사람, 친일적 과거를 뉘우치고 ‘개관논정’하려던 사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현재의 삶에 불만을 느꼈던 사람, 일제의 만행에 복수를 하려던 사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던 사람, 주위의 회유와 압력에 못 이겨 나온 사람, 별 다른 생각 없이 만세운동 자체가 흥미로워 보였던 사람 등등 그 이유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하지만 만세운동을 하러 나온 장소에서 사람들은 흰 옷 물결의 가시적인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했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와 행동에 ‘속 눈’이 떠지고 민족 담론이란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주변 이들에게 가해지던 일제의 폭력을 목격하며 사람들은 민족 담론을 재생산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이처럼 3.1운동을 통해 재생산 과정을 거친 민족 담론이 하나의 일상적인 담론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민족 담론이

315) 『독립운동사자료집(5)』, pp. 165~166, 151~153.

316) Wales, 2005, pp. 91~92.

일상적인 담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다른 정체성보다 민족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민족 담론이 삶의 특정한 방식이나 생각을 지배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패권(hegemony)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정치적 상황을 맞이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 담론이 1919년 3월, 조선 사회 내 유일한 담론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포스트 식민 접근법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떠한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바바가 주장하였고 이전 장들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것처럼,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조선인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일 수도 또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된 서사가 형성될 수도 없다. 민족은 이질성(heterogeneous)을 내재하고 있고 반식민 민족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정치적 실체들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장은 이와 같은 민족의 이질성과 반식민 운동에서 민족 담론 이외의 다른 담론들이 부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3.1운동이 일제하 최대의 항일 항쟁이었고 사회 각계·각층이 두루 참가한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2천만 동포’ 모두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민족 담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생산했다고도 여길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본고의 주장은 이렇듯 상이한 정체성과 담론이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각지는 물론 해외 조선인 거주 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친 3.1운동이라는 사건을 통해 민족 담론이 대두되었고 일정 순간 패권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3.1운동이 진행되던 당시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럽고 추후에 비난받을 일이 되었다. 어느 여학생 한 명은 “학교의 허락을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기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외쳤더니, 그 어머니 또한 함께 가서 둘 다 나라를 위해 죽자고

하였다.”<sup>317)</sup> 이처럼 사람들은 ‘조국’과 ‘민족’이라는 담론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지적처럼 민족담론의 패권은 하나의 영원한 지배 구조로 이어질 수는 없다.<sup>318)</sup> 이후 절들에서는 이렇게 일순간 패권적 지위를 차지했던 민족담론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 2. 3.1운동이 일제에 미친 영향

사토오(Sato)는 “일본의 식민지배는 사실상의 다민족, 혹은 다종족 제국을 동질적인 ‘민족국가’로 바꾸려는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sup>319)</sup> 옴은 오히려 일본은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을 ‘조센징’이라는 열등한 민족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sup>320)</sup> 일제의 식민지배 목적이 무엇이었던 그것은 조선인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위치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불가피하게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한쪽의 행동은 상대방이 가지는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멤미의 주장처럼, 일본이 3.1운동을 겪으며 느낀 감정은 남달랐으리라 생각한다.<sup>321)</sup> 3.1운동 초기 일본 총독부는 출판기관에서 3.1운동에 대한 보도를 최대한 왜곡해서 하기를 종용했다. 조선 사람들은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들

---

317) 『독립운동사자료집(4)』, p. 706.

318) Williams, 1977.

319) Shigeki Sato, *The Politics of Nationhood in Germany and Japan*, Pd.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98, p. 325. 재인용: 신기욱, 2009, p. 81.

320) ‘조센징’은 “성, 출신지역, 계급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관료주의적이고 경멸적인 분류”였다. Em, 1999, p. 353.

321) Memmi, 1968.

이 ‘만세’를 외치도록 조선인들에게 일당을 지불하였고, 소리꾼들은 헌병이 사격하기 시작하였을 정도로 헌병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장사꾼들은 음모자들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한 달 내내 상점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쓰라고 강요했다.<sup>322)</sup> 하지만 당시 “왜놈들은 매우 당황했다. 놈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정도의 운동이 평화리에 진행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격렬함에도 놀랐다”<sup>323)</sup>는 증언으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의 상황은 일제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었다. 마쓰무라(松村)는 당시의 상황을

만세소요가 있는 직후 전 조선이 온통 배일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은 직접·간접, 유형·무형의 압박을 받게 되어 안심하고 일에 열중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에서 산업을 조장시키는 행정이 배일 장벽에 가로막혀 권업정령(勸業政令)이 철저히 침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당국은 그저 수수방관한 상태에서 광란이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산업계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숨막히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일본인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독하고 집요한 배일사상을 박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총독부가 조선인들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와 같은 비상시에는 강력한 탄압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경론이 반동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sup>324)</sup>

라고 회고하였다. 일본 신문 역시

---

322)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90, p. 77.

323) Wales, 2005, p. 95.

324) 이충호 편, 2012, pp. 282~283.

내지인은 조선인이 일반적으로 무교육에 열등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날 조선 청년은 오히려 내지인 이상으로 신지식을 흡수하고 그 사상의 경우도 조선에 사는 내지인을 능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룰 수 없는 사실로 위정자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325)</sup>

고 밝히고 있었다. 3.1운동에 대한 다음 사설은 조선에서 형성된 민족 담론이 일본인들에게도 인식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무릇 옛날부터 어떤 민족일지라도 타민족의 속국이 되는 것을 유쾌하게 여겼던 적은 없다. 선인(鮮人)은 하나의 민족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수한 언어를 갖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그들의 독립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일본 속국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선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인은 독립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통치에 계속 반항할 것이다. 또한 일본 통치하에서 어떤 선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결코 만족할 까닭이 없다. 그들은 독립자치를 얻을 때까지 결코 반항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sup>326)</sup>

이처럼 조선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향후 일본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난디는 식민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327)</sup> “그놈(일제)들은 우리 국민에 대해 새로이 존경심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놈들의 보복행위는 그 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회고는

---

325) 윤소영 편, 2009(b), p. 324.

326) 『동양경제신보』 5월 15일. 재인용: 이규수, 2003.

327) Nandy, 1983.



3.1운동을 통해 조선 민족의 저력을 체험한 일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sup>328)</sup>

일제는 또 다른 독립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항시 노심초사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몇 년이 지나서도 일본 경찰들은 종종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을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뒤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했다. 어떤 이는 “여러 번 항소를 하고 고문후유증 치료에 70섬지기의 가산을 전부 탕진하여 살림살이는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은 무한한 고초를 겪었다. 석방 후에도 늘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해보려해도 인가나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못하고 극히 한미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곤장 90대를 다 맞고 실신하였는데, 향문이 빠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 것에 실려 방면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매독이 너무 심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 여인은 “태극기 한 장 그린 것이 발각되야 악형을 받다가 옥사하여” 두 딸을 데리고 살면서 방물장사 등을 하며 전전하기도 했다.<sup>329)</sup>

또한 일제는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였는지를 기억해 끈질기게 찾아다녔다. 조선인들은 경찰들의 수색을 피해 산속에 숨기도 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일본 경찰에게 잡히면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날마다 감시를 받았다. “그들은 항상 집 근처에 있었으며 가족들이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물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며칠 안에 틀림없이 일본 경찰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감시받고, 쫓겨 다니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반복하던 조선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다.<sup>330)</sup>

이렇게 끈질기고 지독한 탄압을 받았지만 3.1운동이 일으킨 열

---

328) Wales, 2005, p. 99.

329) 『동아일보』, 1925년 1월 28일. 재인용: 박환, “용인지역의 3.1운동,”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Vol. 42 (2005), pp. 399-431.

330) Kang, 2011, pp. 57-59, 102-104.

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1920년 8월 24일 50여 명의 미국의원  
은 조선을 찾았고, YMCA회관에서 700여 명의 조선 군중을 상대로  
연설회를 가졌다. 헐스맨 의원은 ‘정의인도(正義人道)를 향해 매진하  
자’고 말했고 군중은 이에 크게 호응했다. 이 당시 서울역에서부터 미  
국의원들이 묵고 있는 조선호텔까지 이르는 거리에는 1만여 명의 군  
중이 모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만세시위는 의주, 광산, 안주, 평  
양, 개성, 장단, 금촌 등지에서도 연달아 일어났다.<sup>331)</sup>

또한 1920년 동경의 조선 유학생 1천명은 동맹휴학을 벌였고,  
3월 1일에는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당일 오후 4시 히비야  
공원에는 1년 전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이때를 회고하며 최태영은 “그런데 막상 몇 학교에서는 만세  
운동 한 조선 학생들을 당장 제명 처분하는 등 나쁘게 취급하지는 않  
았다... 실제 보복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1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참혹하게 학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sup>332)</sup>

1923년 9월 1일 정오 동경에서는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했  
다. 동경 주변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마침 점심때라 취사용 가스  
불이 주변의 많은 목조 건물들에 옮겨 붙어 대화재가 일어나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재민만 약 340만 명이었다고 전해진다. 하  
지만 이날 오후부터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조선 사  
람들이 지진의 혼란을 틈타 폭행과 약탈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조선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일본 군인과 경찰의 주도로  
조선인이면 누구든지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어린이나 임산  
부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일본인들은 죽창·몽둥이·총칼 등을 마구 휘  
둘렀으며 조선인들을 강물에 던지거나 불에 태우기도 했다. 당시 학  
살된 정확한 인원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6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sup>333)</sup> 특기할 점은 이 때 일본 경찰 책임

---

331) 박성수, 2003, p. 454.

332) 최태영, 『인간 단군을 찾아서: 최태영 회고록』 (서울: 학교재, 2000), p. 74.

333) 당시 조선인 사망자 수는 1만 명 혹은 수만 명이라는 설이 있는 반면, 조선

자들이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 鍊太郎)와 경시청 아카이케 아쓰시(赤池 濃)였다는 점이다. 이 둘은 3.1운동 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경무국장을 지내면서 3.1운동 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 본국에 와서 출세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재일조선인을 무조건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적시(敵視)하던 자들이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조선인폭동설과 우물독약투입설에 의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이에 죽창 혹은 기관총으로 조선인들을 죽이고 동경 시내 강물 하수장에 버리는 참상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이 둘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다.<sup>334)</sup> 이들은 3.1운동 당시 외국인들의 시선에 의해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지 못한 분함 때문에 일본에 돌아와서도 조선인만 보면 무시하고 원수와 같은 생각을 했고,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제야 이 분노를 본국에서 한 번 마음껏 풀어보자는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조선인 학살은 만주 지역에서는 더 일찍부터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심극추는 당시 연변에서

일본군 기병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늘 말하는 ‘경신년(1920년)토벌’이다. 공포의 소식이 도처에서 마을에 날아들었다. 왜놈들이 어느 고장에서 많은 청년을 생매장했고 어느 촌은 불을 질러 평지가 되고 어디에서 짧은 머리 청년을 모두 독립군으로 인정하고 머리를 잘랐다는 등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름끼치게 하였다... 그 해 겨울에 온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폭 자본 적이 없었다. 모두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누워있다가도 밤중에라도 왜놈들이 불을 지른다면 문을 차고 밖으로 나와 목숨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토벌은 약 1년이나 지속되었다. 전반 연변지구는 승냥이 우리 속 같

---

총독부는 사망자가 단 2명 뿐이라고 발표했다. 김흥식, “관동대진재와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29 (2009), pp. 175-220.

334) 박성수, 2003, p. 471.

았으며 불행한 조선족 농민들 3천여명이 도살당했다<sup>335)</sup>

고 회고하였다. 이는 중국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1920년 11월 1일 새벽 기관총과 여전포를 휴대한 일본군 500명은 동창태에 이르러 한국인 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동쪽으로 몇 리쯤 끌고 가서 죄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사형시켰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었고, 어떤 사람은 흉부에 상처를 입었다. 일본군은 같은 날 한국인 교회를 소각했고 며칠 후에는 다른 교회 하나를 추가로 소각했다. 신문에서 밝히길 그 참상은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고, 살해당한 사람들의 신원을 알아보니 그들은 한국독립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정치적 주장도 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었다.<sup>336)</sup>

그들이 당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어떠했는지는 12월 8일자 기사에서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면서 밀짚을 소각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서 나와 집합하라고 명령하였다. 일본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무조건 사격을 단행했다. 그 중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불이 붙은 밀짚을 덮어주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불더미 속에서 뛰어일어나 사방으로 도망치려 했다. 이때면 피가 사방으로 튀겨 나갔다... 그들의 아내나 어머니 혹은 딸을 벽에 세워놓고 두 눈을 흰히 뜨고 보게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잔혹하게 사람을 살육하는 장면을 구경하게 했다. 이에 이어 온 마을에 불을 질러 불바다로 변하게 했다. 일본군은 다른 촌으로 가서 또 그곳의 기독교 주택을

---

335) 심여추·심극추, 『20세기 중국조선족 력사자료선집』 (서울: 중국조선민족문화 예술출판사, 2002), pp. 83, 91~92.

336)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석원화, 심민화, 패민강 역음, 김승일 옮김, 『(중국언론, 신보에 그려진)한국근현대사』, (서울: 역사공간, 2004), pp. 161-162.

소각했다. 산골짜기에서 큰길까지 분포되어 있는 마을은 모두 다 이 봉변을 면하지 못했다.<sup>337)</sup>

3.1운동 때 일제가 행했던 ‘전시적 폭력’이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아니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서 어찌면 그 폭력은 더욱 잔인했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끈질기게 탄압하면서도 일본은 한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민간에서 소리만 좀 크게 질러도 만세나 부르지 아니하였는가 하여 눈을 크게 뜨고... 너나 할 것 없이 신경이 과민하여 지는 것은 사실”인 것이 1920년대 3월을 맞는 당시의 정서였다. “시내 각 경찰에서는 년례에 의하여 이월 그믐날 밤에는 당번 비번 할 것 없이 혹은 사복 혹은 정복으로 총출동하여 각처에 대경계를 하였다. 기마경관대도 전부 출동하여 밤이 깊도록 시내 각처에는 말굽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특별경계니 수색이니 집회금지니 무슨 일이 났는가 알아보니 금일이 3월 1일 10주년인 까닭이라고 경찰의 기억력도 풍부한 모양”이라 총평한 1929년 신문 사설은 당시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일종의 히스테리(Hysterie)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sup>338)</sup>

일제는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민족 담론’의 권력의 담지자는 아니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지배 권력을 행사하던 주체로서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또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3.1운동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이를 통해 확대된 ‘민족 담론’의 등장으로 일제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그동안 일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조선에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조선에 대한 그들의 담론에 변화를 가

---

337)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2004, p. 164.

338) 『조선일보』, 1923년 3월 2일, 1925년 3월 1일; 『동아일보』 1929년 3월 1일. 1927년 3월 1일 신문에서도 “금일이 3월 1일 전례대로 특별 경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재인용: 류시현, “1920년대 삼일운동에 관한 기억: 시간, 장소 그리고 ‘민족/민중,’” 『역사와 현실』, No. 74 (2009).

져오도록 했다.

### 3. 3.1운동이 남긴 기억

매년 3.1운동 기념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다시 읽고, 독립운동 이야기와 그 이후의 애국적 테러 활동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사람들은 연설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공을 빌었다. 단지 이날 하루를 위해 경찰은 조선에 있는 모든 시·읍을 포위하고 ‘위험 사상’ 용의자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어느 감옥소에서나 수인들이 모두 독립을 이루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했다.<sup>339)</sup>

류시현은 3.1운동을 “1910년대부터 막연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조선민중에 대한 재인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임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sup>340)</sup> 하지만 살펴보았듯 3.1운동은 민중에 대한 지식인의 재인식뿐만이 아닌, 지식인과 민중 가릴 것 없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족 담론’은 당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며 거의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이전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에 대한 타자의 담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하나의 전환을 가져온 3.1운동은 조선 내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며 조선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일제의 철저한 감시 하에 3.1운동과 조선 민족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아일랜드 독립 전쟁과 중국의 5.4운동을 주제로 내세웠지만 이를 3월초 신문에 실으며

---

339) Wales, 2005, p. 95.

340) 류시현, 2009.

몰랐던 ‘민족’을 알려하는 - 일없는 ‘민족’을 찾으려 하는  
 - 부서진 ‘민족’을 반죽하려 하는 - 지질린 ‘민족’을 일으키려  
 하는 - 파무친 ‘민족’을 끄집어 내려하는 조선인의 갱생열이 다  
 른 방도가 모조리 두색(杜塞)되었기 때문에 겨우 터져 있는 구  
 멍을 뚫고 발표된 것이 그것이외다<sup>341)</sup>

라고 3.1운동을 통해 경험했던 ‘무엇’이 ‘민족’이었음을 명확하  
 게 제시하며 재확인하였다. 부서지고 파문혀 있어 그동안은 사라진  
 듯 몰랐던 민족이 실제로 존재함을 3.1운동을 통해 인식하였다는 것  
 이다. 이런 서술은 3.1운동이 일어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던 방  
 식이었다.

조선 사람들에게 3.1운동은 이처럼 하나의 변환을 가져온 일대  
 사건이었으며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3.1운동 이전과는 다른 ‘신현  
 상’이었다. ‘신현상’의 예를 들어보자면 학생들뿐만이 아닌 일반 조선  
 인들조차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로 일본서적보다 외국서적을 찾  
 고, 사회문제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신간 잡지에 다수의 주문  
 이 몰리고 문학서적도 통속문학보다 세계적 명저의 번역본을 갈구”하  
 였다. 순회강연마다 “지식을 동경하여 단성사로 모이는 수천 군중이  
 장관을 이뤄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기도 했고, 되든지 안 되든  
 지 무엇인가 해보려는 신현상을 연출되었다.<sup>342)</sup>

또한 당시 ‘기미이후(己未以後)’란 관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에 보지 못하던 새 현상이 많이 생긴다. 전에 듣지 못하던  
 새 말이 많이 생기고 전에 쓰지 못하던 새 문자도 많이 쓰게 된” 상  
 황을 의미했다.<sup>343)</sup> 이처럼 ‘기미이후’는 하나의 시대를 구분해 주는

341) 류시현, 2009.

342) 『동아일보』, 1920년 5월 13일; 『개벽』, 1921년 5월; 『동아일보』, 1920년 7  
 월 19일; 『개벽』, 1920년 6월, 1920년 9월, 1921년 5월. 재인용: 유선영,  
 “3.1운동 이후 근대 주체 구성: 식민지 근대주체의 리미널리티,” 『大東文化研  
 究』, Vol. 66 (2009).

것이였다. 이혜령은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라는 식의 서술이 이후의 소설들에서 주인공의 삶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sup>344)</sup>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회고록에서도 삼일운동 당시 ‘나는 학생이였다’ 혹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등등의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이를 두고 류시현은 3.1운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개인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적’ 기준점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sup>345)</sup> 이처럼 3.1운동은 만세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며 조선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3.1운동 자체가 그 전과 이후 각자의 삶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면서 그 기억은 더욱 강고하게 각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독립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낳지는 못했다. 이는 3.1운동을 통해 패권적인 위치에 섰던 민족 담론이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었음을 뜻한다. 만세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초현실’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가슴이 벅차고 피가 끓는 듯한 기분은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었으며, 재산, 농사일, 일신상의 안전 등 일상에서 고민하던 일들이 엄습해왔다. 짧지만 해방감을 느끼며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전보다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3.1운동을 위해 뭉쳤던 민족대표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도 다시 흩어졌다. 하나의 패권적인 담론이 사라지자 이들은 각자의 담론을 형성하며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920년에 접어들자마자 나타났던 천도교의 끊임없는 분파와 대립은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3.1운동 이후 일련의 만세운동과 지식인들

343) 『개벽』, 1925년 3월. 재인용: 류시현, 2009.

344) 선우회의 불꽃(1957)에서도 주인공 고현은 “31년 전 바로 이 동굴 안에서 그의 부친이 스물네 살의 짧은 생애를 끝마쳤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31년 전이란 1919년 3월이였다. 이혜령, 2009 참조.

345) 류시현, 2009.



의 노력은 어쩌면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막아보기 위한 투쟁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심해진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그리고 3.1운동 이후 느꼈을 좌절감에 의한 높아진 참여 한계점(threshold)에 의해 식민지 지배 하에서 제2의 3.1운동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3.1운동은 ‘민족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을 가능하도록 하여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 의식에 ‘속 눈’을 뜨게 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민족 담론이 패권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헤게모니는 항상 재생산되며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sup>346)</sup>

---

346) Williams, 1960, p. 587.

## VII. 결론

독립 당시 인도의 분할은 “백만 명 이상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될 정도로 격렬한 공동체 간의 폭력을 낳았으며, 그 이후로도 인도는 이 폭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sup>347)</sup> 우리 역시 독립을 이루는 순간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이와 같은 분립은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지금까지 나타나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우리 스스로 만든 역사이다. 무엇보다 서로 처절하게 싸웠던 한국전쟁의 역사는 한민족이란 말을 무색하게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은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언어 아래에서 한국은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응집력과 단결을 보여주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역사의 다양한 면모들을 되살려내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다’, 즉 ‘우리 민족’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려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은 보다 더 화려한 앞날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가 무엇을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었다. 이는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며 더욱 가중되었다.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에 대한 열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부재한 채 흔들렸다. ‘적왜양창의’를 내세웠던 동학 역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친일’을 하고 자신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negation)을 하는 등 변신(變身)을 거듭하여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을 적대하고 경멸했지만 동시에 부러워하기도 했었다. 이에 ‘친일’을 하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더 악랄하게 괴롭히면서 일본인들의 자리에 있고자 희망했다. 민중은 이와 같은 조선인들과 상대하며 자신들의

---

347) Young, 2003, pp. 569~570.

분노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의 단결은 심각하게 와해되었고, 혼란스러움과 함께 찾아온 불안함과 분노는 쌓여가고 있었다. 이들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진회의 노골적인 친일 활동과 한일합방성명 발표는 친일을 하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식인층 및 사회 지도 세력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문화를, 천도교는 자신의 전신(前身)인 동학을 회고(回顧)하며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견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적(敵)’에 대한 규정과 ‘아(我)’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며 지식인층에서 제시한 ‘아’는 바로 민족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인종’, ‘국민’, ‘동포’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정치적 이유로 결국 ‘민족’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인층에 의해 제시된 민족 개념은 정치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이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행동의 의미를 규정하는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존재했던 수많은 경쟁 담론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식인층과 독립운동 주도세력에 의해 선언문과 신문을 통해 제시된 민족이란 개념은 민중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사람들은 만세운동에 나서며 흰 옷 물결의 가시적인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와 행동에 노출되고, 만세운동 현장에서 자신과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주변 이들에게 가해지던 일제의 폭력을 목격하며 민족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민족 담론을 재생산하였고, 민족 담론은 하나의 일상적인 담론이 되었다.

민족 담론이 일상적인 담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다른 정체성보다 민족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민족 담론이 1919년 3월, 조선 사회 내 유일한 담론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민족 담론이 영원히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본고의 주장은 당시 상이한 정체성과 담론들이 존재하였지만, 3.1운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민족 담론이 대두되었고 일정 순간 패권(hegemony)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불가피하게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 내 ‘민족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또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이를 통해 확대된 ‘민족 담론’의 등장엔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이전보다 더 조선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했고,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그들의 담론 역시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전환을 가져온 3.1운동은 만세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며 조선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3.1운동 자체가 그 전과 이후 각자의 삶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면서 그 기억은 더욱 강고하게 각인될 수 있었다. 3.1운동 이후 ‘기미 이후(己未以後)’란 관용어가 자주 사용된 것처럼 3.1운동은 조선 사람들에게도 명확히 인식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신현상’이 생길만큼 이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일이었다.

하지만 독립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낳지는 못했다. 이는 3.1운동을 통해 패권적인 위치에 섰던 민족 담론이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었음을 뜻한다. 만세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초현실(surreal)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의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또한 하나의 패권적인 담론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각자의 담론을 형성하며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족 담론이 패권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 즉 ‘우리 민족’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하나의 담론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족 담론은 항상 재생산되며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3.1운동은 이 담론이 형성되어 하나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민족 담론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배 구조는 아니기에 그러한 사회정치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경쟁 담론들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도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일말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는 살림 시나이가 자신이 메스월드 혈통이라는 것을 인정, 즉 자신의 혼성적인 면을 스스로 인정, 하며 화해를 이뤄낸다고 서술했다.<sup>348)</sup> 사이드는 “문화, 사람, 그리고 사회들 사이의 보다 폭넓고 관대한 인간적인 공동체 현실을 지향”하며 민족주의가 좀 더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될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sup>349)</sup>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하나’임을 밝혀내는 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현실에 대한 논의에서 멀어져 오지는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혼성적인 면을 스스로 인정하며 보다 폭넓고 관대한 시선을 가진다면, ‘우리 민족’의 의미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348) Salman Rushdie, 김진준 옮김, 『한밤의 아이들』 (파주: 문학동네, 2011).

349) Said, 1993, p. 262, 264.

## 참 고 문 헌

### ■ 1차 자료

#### 1. 자료집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1995.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2002. 『3.1 運動 獨立宣言書와 檄文』. 서울: 國家報勳處.

국사편찬위원회. 1984. 『한국사료총서(1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199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199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199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0. 『통감부문서(1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명 편. 1933. 『일한외교자료집성(6,상)』. 국학자료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석원화, 심민화, 패민강 역음.

김승일 옮김. 2004. 『(중국언론, 신보에 그려진)한국근현대사』. 서울: 역사공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2)』.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1973. 『독립운동사(3)』.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1974. 『독립운동사자료집(4)』.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1974. 『독립운동사자료집(5)』.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1974. 『독립운동사자료집(6)』.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1978. 『독립운동사자료집(9)』.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편. 1991. 『三一運動: 韓國의 事情 韓國의 어린 殉國者』. 서울: 국가보훈처.
- 이인섭. 1977. 『원한국일진회역사』. 서울: 경문사.
- 박종효. 200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서울: 선인.
- 심여추, 심극추. 2002. 『20세기 중국조선족 력사자료선집』. 서울: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 윤소영 편. 2009(a).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운동편 1』. 천안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2009(b).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3.1운동편 2』. 천안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돈화. 1933. 『천도교창건사』. 서울: 천도교 중앙종리원.
- 정교. 조광 편. 변주승 역. 2004. 『대한계년사(3)』. 서울: 소명.
- 황현. 1955. 『梅泉野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 흑룡회 편. 1966. 『일한합방비사(상)』. 동경: 원서방.
- 1966. 『일한합방비사(하)』. 동경: 원서방.

## 2. 신문 및 잡지

『대한매일신보』 『별건곤』 『황성신문』 『종령』 『동아일보』 『구한국관보』 『해성』 『신인간』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천도교회월보』 『신한민보』 『매일신보』 『반도시론』 『삼천리』 『신천지』

## 3. 회고록 및 전기

김창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2011. 『기독교 민족사회주의자 김창준 유고』.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유기석. 임원빈 번역. 최기영 해제. 2010. 『三十年放浪記: 유기석 회고록』. 서울: 國家報勳處.

윤치호. 김상태 편. 2001.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이미륵. 전해린 옮김. 2000. 『압록강은 흐른다』. 서울: 범우사.

이병헌. 2002. 『삼·일운동비사』. 서울: 개벽사.

이준열. 이달호 편. 2012. 『선각자 송강 이준열의 삶 : 3·1운동, 고학당 교육, 광주학생운동, 대동사업의 증언』. 서울: 해안.

정정화. 1998. 『長江日記: 양자강 푸른 물결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 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서울: 학민사.

정현웅. 2002. 『뺨혀도 민들레꽃은 핀다』. 서울: JJ미디어그룹출판부.

정화암. 1982.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回顧錄』. 서울: 자유문고.

최승만. 1985. 『나의 回顧錄』. 인천: 仁荷大學校 出版部.

최태영. 2000. 『인간 단군을 찾아서: 최태영 회고록』. 서울: 학교



재.

Avison, Oliver. 황용수 역. 장의식 편. 2006.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 舊韓末 風景』.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Eckert, Carter. 주익종 옮김. 2008. 『제국의 후예: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서울: 푸른역  
사.

Kang, Hildi. 정선태, 김진옥 옮김. 2011. 『검은 우산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1910-1945)』. 서울: 산처럼.

Wales, Nym. 송영인 옮김. 2005. 『아리랑』. 서울: 동녘.

## ■ 2차 자료

### 1. 영문 단행본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Berlant, Lauren. 1991. *The anatomy of national fantasy: Hawthorne, Utopia, and everyda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habha, Homi K. 나병철 옮김. 201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

Calhoun, Craig J. 1997.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Chatterjee, Partha. 1993.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A Derivative Discour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anon, Frantz. 남경태 옮김. 2004.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 Foucault, Michel. translated by A. M. Sheridan Smith.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Harper and Row.
- , 1994.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New York: Vintage Books.
- , edited by Colin Gordon.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 Gandhi, Leela. 이영욱 역. 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Gasset, Ortega y. 황보영조 옮김. 2005. 『대중의 반역』. 서울: 역사비평사.
- Henderson, Gregory. 박행웅·이종삼 옮김. 2000. 『소용돌이의 한 국정치』. 서울: 도서출판 한울.
- Hobsbawn, Eric. 1959. *Primitive Rebels: Studies in Archaic Forms of Social Movement in the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ies*. Manchester, Englan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tchinson, John. 1994. *Modern Nationalism*. London: Fontana.
- , 2005. *Nations as Zones of Conflict*. London: Sage.
- Laclau, Ernesto and Mouffe, Chantal.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Verso.

- Lang, Kurt and Gladys Lang. 1961. *Collective Dynamics*. New York: Crowell.
- Le Bon, Gustave. 이상돈 옮김. 2005. 『군중심리』. 서울: 간대서원.
- Leiman, Robert and Rober Wuthnow. 1983. *The New Christian Right: Mobilization and Legitimation*. New York: Aldine.
- McLeod, John. 박종성 외 옮김. 2003. 『탈식민주의 길잡이』. 서울: 한울아카데미.
- Memmi, Albert. 1968. *Dominated Man: Notes Toward a Portrait*. London: Orion Press.
- Michels, Robert. trans. Eden and Cedar Paul. 1915.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Hearst's International Library Co.
- Mills, Sara. 2004.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airn, Tom. 1977.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London: NLB and Verso.
- Nandy, Ashis. 1983. *The Intimate Enemy: Loss and Recovery of Self Unver Colon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Özkırmılı, Umut. 201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Özkırmılı, Umut and Sofos, Spyros A. 2008. *Tormented by history: nationalism in Greece and Turk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iven, Frances and Richard Cloward. 1979. *Poor People's Movements: Why They Succeed, How They Fail*. New York: Vintage Books.

- Puri, Jyoti. 2004. *Encountering Nationalism*. Malden and Oxford: Blackwell.
- Roth, Guenther. 1963. *The Social Democrats in Imperial Germany: A Study in Working-Class Isol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Totowa, NJ: Bedminster Press.
- Rule, James. 1988. *Theories of Collective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ill and Rothschild.
- Rushdie, Salman. 김진준 옮김. 2011. 『한밤의 아이들』. 파주: 문학동네.
- Said, Edward W.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Random House.
- Schutz, Alfred. translated by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hin, Gi-Wook. 이진욱 옮김.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 Smith, Anthony D.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 . 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 . 1995.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 . 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arrow, Sidney. 2011. *Power in movement :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onathan H. 2007.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Weber, Max. 전성우 역. 2011. 『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서울: 나남.
- Williams, Raymond. 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Robert J. C. 2003. *Postcoloni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 영문 출판물

- Bhabha, Homi K. 1986.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in Francis Baker, Peter Hulme, and Margaret Iversen (eds.),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London: Methuen.
- Clemens, Elisabeth and Martin Highes. 2002. "Recovering past protest: Historical Research on Social movements," in Bert Klandermans and Suzanne Staggenborg (eds.), *Methods of social move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nnor, Walker. 1994. "When is a Nation?," in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lanty, Gerard and O'Mahony, Patrick J. 2002. *Nationalism and Social Theory: Modernity and the Recalcitrance of the Nation*. London: Sage.
- Duncan, John. 1998. "Proto-nationalism in Pre-modern Korea," in Sang-Oak Lee and Duck-Soo Park (eds.), *Perspectives on Korea*.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m, Henry. 1999. "Minjok as a Modern and Democratic Contract: Sin Ch'eaho's Historiography of Korea," in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Fox, Richard G. 1992. "East of Said," in Michael Sprinker (eds.), *Edward Said: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 Gillis, John R. 1994. "Memory and Identity: The History of a Relationship," in John R. Gillis (eds.),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uha, Ranajit. 1983. "The Prose of Counter-Insurgency," in Ranajit Guha (eds.), *Subaltern Studies II: Writings on South Asian History and Society*.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Stuart. 1996.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tuart Hall, David Held, Don Hubert and Kenneth Thompson (eds.),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Oxford: Blackwell.
- Hill, Stuart and Donald Rothschild. 1992. "The Impact of Regime on the Diffusion of Political Conflict," in Manus Midlarsky (e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munal Strif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Horowitz, Donald L. 2002. "The Primordialist," in Daniele Conversi (eds.), *Ethnonational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Walker Connor and the Study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landermans, Bert. 2004. "The Demand and Supply of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Correlates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in David Snow,

- Sarah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Malden, MA: Blackwell Pub.
- McAdam, Doug. 1996.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in Doug McAdam, John McCarthy, and Mayer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ris, Aldon and Suzanne Staggenberg. 2004. "Leadership in Social Movements," in David Snow, Sarah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Malden, MA: Blackwell Pub.
- O'Leary, Brenden. 2001. "Instrumentalist Theories of Nationalism," in Athena S. Leoussi (eds.), *Encyclopedia of Nationalism*.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Pratt, Mary L. 1996. "Transculturation and autoethnography: Peru 1615-1980," in Francis Barker, Peter Hulme, and Margeret Iverson (eds.), *Colonial Discourse/Postcolonial The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mith, Anthony D. 2001. "Ethno-Symbolism," in Athena S. Leoussi (eds.), *Encyclopedia of Nationalism*.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Snow, David and Robert Benfor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ldon Morris and Carol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3. 영문 논문

- Eisinger, Peter.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No. 1 (March)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May)
- Huddy, Leoni. 2001.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1 (March)
- Jasper, James. 1998.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nd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Vol. 13, No. 3 (September)
- Kim, Young-Jick. 1992. *Formation of a Modern State and National Social Movement in Modern Korea: March First Movement(1919)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Suny, Ronald G. 2001. "Constructing Primordialism: Old Histories for New Nations,"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73, No. 4 (December)
- Thompson, Edward P. 1971.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No. 50 (February)
- Williams, Gwyn A. 1960. "The Concept of 'Egemonia' in the Thought of Antonio Gramsci: Some Notes on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 4. 국문 단행본

-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 사상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파주: 한울.
- 김진봉. 2000. 『三一 運動史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 김희곤. 2010.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 박경식. 1986.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서울: 청아출판사.
-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서울 : 모시는 사람들.
- 박성수. 2003. 『渚上日月: 117년에 걸친 한국 근대생활사』. 서울: 민속원.
- 박성수·신용하·김호일·윤병석. 2013.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서울: 모시는사람들.
- 박호성. 2005.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 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이용권 외 옮김. 1990. 『한국통사(하)』. 서울: 대야출판사.
- 신용하. 2001.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염상섭. 김경수 책임 편집. 2005. 『만세전: 염상섭 중편선』. 서울: 문학과지성사.
- 오성철. 2000.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 윤진현. 2010. 『한국독립운동사』. 파주: 이담Books: 한국학술정보.
- 이영호. 2004. 『동학과 농민전쟁』. 서울: 혜안.
- 이정은. 2009.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서울: 국학

자료원.

이충호 편. 2012. 『조선통치 비화』. 서울: 국학자료원.

이현희. 2002.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한국학술정보.

조경달, 허영란 옮김. 2009.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 근대 민중운동사』. 서울: 역사비평사.

조민. 1994. 『한국민족주의 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차기벽. 1978.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풀빛.

## 5. 국문 출판물

박성수. 1979.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윤병석·신용하·안병직. 『한국근대사론Ⅱ』. 서울: 지식산업사.

신용하. 1979. “3.1운동의 재평가.” 안병직 외. 『變革時代の 韓國史: 開港부터 4·19까지』. 서울: 東平社.

-----, 1979. “3.1운동 발발의 경위.” 윤병석·신용하·안병직. 『韓國近代史論(2)』. (서울: 知識産業社.

-----, 1986.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한국사학회. 『한국현대사론: 한국독립운동의 전개와 근대민족국가의 수립』. 을유문화사.

윤경로. 1994. “1910년대 독립운동의 동향과 그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이영호. 1995. “농민전쟁 이후 농민운동조직의 동향.”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연구(4)』. 서울: 역사비평사.

이희승. 1989. “내가 겪은 삼일운동.” 동아일보사.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서울: 동아일보사.

정연태·이운상·이지원. 1989.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한

국역사연구회.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서울: 청년사.  
 최영희. 1969. “3.1운동에 이르는 민족운동의 원류.” 동아일보사  
 편. 『3.1운동 50주년 기념논총』. 서울: 동아일보사.

## 6. 국문 논문

- 강동국. 2006. “근대한국의 국민·인종·민족개념.” 『동양정치사상사』, Vol. 5, No. 1.
- 김경택. 1990. “한말 동학교문의 정치개혁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주. 2009. “3.1독립운동에서 호남인의 참여도 검토.” 『역사학연구』, Vol. 37.
- 김남석. 2010. “대호지 3.1운동의 전개와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35.
- 김도형. 2010. “경남 함안지역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학논총』, Vol. 34.
- 김동택. 2009. “한국근대국가형성과 3.1운동.” 『大東文化研究』, Vol. 67.
- 김봉렬. 2003. “마산 삼진의거의 3.1운동사적 고찰.”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총서』, Vol. 8.
- 김상기. 2010. “瑞山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36.
- 김상환. 2011.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Vol. 29.
- 김용직. 2005. “3.1운동의 政治思想.” 『동양정치사상사』, Vol. 4, No. 1.
- 김지수. 2012. “현상윤의 민족의식 형성과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70.

- 김진호. 2009. “대전지역 3.1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 『충청문화연구』, Vol. 2.
- 김흥식. 2009. “관동대진재와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29.
- 노태돈. 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시민강좌』, Vol. 20.
- 류시현. 2009. “1920년대 삼일운동에 관한 기억: 시간, 장소 그리고 ‘민족/민중’.” 『역사와 현실』, No. 74.
- 목수현. 2006. “근대국가의 ‘국기(國旗)’라는 시각문화: 개항과 대한제국기 태극기를 중심으로.” 『美術史學報』, Vol. 27.
- 박명림. 1996. “분단 시대 한국 민족주의의 이해: <열린> 민족주의의 모색.” 『세계의 문학』, Vol. 80.
- 박찬승. 1989.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 , 1995. “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학연구』, Vol. 9.
- 박환. 2005. “용인지역의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42.
- 백동현. 2001. “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Vol. 10.
- 송지예. 2012. “‘민족자결’의 수용과 2.8 독립운동.” 『동양정치사상사』, Vol. 11, No. 1.
- 안병직. 1969. “3.1운동에 참가한 계층과 그 사상.” 『역사학보』, Vol. 41.
- 유선영. 2009. “3.1운동 이후 근대 주체 구성: 식민지 근대주체의 리미널리티.” 『大東文化研究』, Vol. 66.
- 윤경로. 2012. “105인 사건 피의자들의 사건 이후 행적에 관한 소고: 친일로 경도된 9인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36.

- 윤병석. 1973.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 試論.” 『사학연구』, Vol. 27.
- 윤해동. 1995. “일제의 지배정책과 촌락재편.” 『역사비평』 No. 28.
- 이규수. 2003. “3.1운동에 대한 일본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No. 62.
- 이동희. 2011. “3.1 독립운동 이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법적용과 식민지법제의 변화.” 『법학논총』, Vol. 35, No. 1.
- 이용창. 2005. “동학·천도교단의 민족독립운동과 정치세력화 연구 (1896~1906).”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1991. “동학교단의 ‘갑진개화운동’(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 2010.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Vol. 43.
- 이준식. 1998. “천도교와 코민테른: 최동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제62회 연구발표회.
- 이태훈. 2000. “韓末 大韓協會 主導層의 國家認識과 資本主義 近代化論.” 『學林』, Vol. 21.
- . 2012. “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No. 27.
- 이현희. 1977. “張孝根日記의 民族思想史的 檢討: 憲兵警察時代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Vol. 17.
- 이혜령. 2009.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No. 40.
- 장규식. 2002. “YMCA 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 연구』, Vol. 20.
- 전상숙. 2009.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3.1운동기 심

- 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개념과 소통』, Vol. 2, No. 2.
- 전재관. 1997.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오학회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Vol. 10.
- 정영훈. 2012. “삼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Vol. 11, No. 2.
- 조규태. 2001.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Vol. 114.
- 조극훈. 2012. “의암 손병희의 ‘이신환성’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 『동학학보』 Vol. 24.
- 조동걸. 1987.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Vol. 9.
- 최기영. 1994. “韓末 東學의 天道敎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Vol. 20, No. 3.
- 최홍규. 2002.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京畿史學』, Vol. 6.
- 하승우. 2010. “식민지 시대의 아나키즘과 농민공동체.” 『OUGHTOPIA』, Vol. 25, No. 3.
- 한기형. 2009.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민족문학사연구』, No. 40.
- 황민호. 2006.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의 전개와 조선총독부의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26.
- 허영란. 1994. “일제시기 '市場'政策과 在來市場商業의 변화.” 『韓國史論』, Vol. 31.
- . 2009.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경기도 안성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Vol. 72.

## **Abstract**

# **Reconsider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Constr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 National discourse

Jihoon Ki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how the national discourse was constructed and reproduced. For that purpose,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March First Movement’, which has been remembered as the widest-scale act of resistance to Japanese colonial rule. In general, this uprising has been regarded to ignite a nationwide movement, in which many people took part, regardless of locality and social status, and to give rise to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among people. Although understanding what provoked such national consciousness and how it could happen is essential, it has attracted less interest in previous studies. This dissertation’s aims are twofold: (1) to answer ‘what’ question, that is to know what Korean people did and experienced while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nd (2) how the national discourse was constructed and reproduced.

In the late 19<sup>th</sup> and early 20<sup>th</sup> centuries, the Korean society was experiencing not only economic difficulties, but internal conflict and social collapse. The apparent conflict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not that clear to people at that time. In confusion, *Donghak*, which had flagged up ‘Expel Westerners and Japanese’, sought political relationship with Japan for the sake of its survival. It eventually

survived through ‘autotomy’ and ‘regeneration’, and ‘metamorphose’ itself. However, it lost its original purpose and was left only with the question ‘who am I now?’

Vicious acts of pro-Japanese collaborator, called *Ilchinhoe*, and proclamation of Japan’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de Korean people identify who was their common enemy. Only after that, they could identify themselves as ‘nation’ while scanning the page of history: intellectuals and leaders looked back on their ancestors and traditional culture, and *Cheondogyo* did on its predecessor, *Donghak*. And while they promoted independence movement, ‘National discourse’, which functioned as a frame of reference, was construct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ational discourse was only one of many competing discourses.

The concept of nation, which was presented through independence declaration statements and newspaper, was meaningful only for intellectuals and leaders. Most people learnt it through experience: (1) seeing the white clothes wave out in the movement, (2) hearing other participants’ shouting and slogan, and (3) witnessing violence inflicted on the people with wearing the same color clothes.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as a result, people reproduced the national discourse and at a given moment it became self-evident, universal, and necessary. Other discourses and alternative discussions about identity were also present at that time. However, through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national discourse strengthens its hegemony, reproduced itself, and became implicated in our everyday experience.

A discourse is an ongoing process and not a fixed system or structure. The national discourse is not an exception. After socio-political moment of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gone, it stepped down from the hegemonic status and then continually resisted, altered, or challenged by other competing discourses. This discussion offer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hybrid’ charact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to give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the ‘nation’.

Keyword: March First Movement, Nation, Nationalism, Discourse, Hegemony, Donghak and Cheondogyo

Student Number: 2010-23048